



# 수리산 산신제

---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 수리산 산신제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 수리산 산신제

---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 발간사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산을 숭배하여 왔습니다. 산에는 신령이 있어 고을마다 진산(鎭山)을 두고 산신제를 통해 신과의 교감대를 형성하여 마을과 마을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단합을 도모하였지요.

안양에서도 산신제가 올려졌습니다. 특히, 안양을 감싸고 있는 수리산은 오랫동안 안양의 진산으로 그 역할을 해왔지만,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으로 중단되며 오랫동안 잊혀 왔습니다.

수리산산신제는 잊힌 우리의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지역의 무속인들이 뜻을 모아 복원한 것입니다. 수리산산신제를 통해 국태민안과 안양시의 발전, 안양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한바탕 신명을 펼치는 잔치마당으로서 안양을 대표하는 의례이자 축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양문화원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계승한 수리산산신제의 보존·계승과 지역문화의 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학술조사연구사업을 진행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자를 발간합니다.

본 책자를 위해 조사, 기록, 연구를 담당하신 책임연구자 홍태한 교수님과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주신 이승규 교수님 그리고 자문을 맡아주신 류호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안양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위원님들과 안양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양문화원은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와 함께 수리산산신제의 전승·보전을 위해 결성한 수리산산신제보존회를 통해 올바른 전통문화의 계승과 체계적인 전승에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안양문화원장 김용곤



# 목차

발간사 .....	03
<b>I. 수리산산신제의 역사</b> .....	08
<b>II. 수리산산신제의 제단과 신령</b>	
1. 수리산산신제의 제단 .....	18
2. 수리산산신제의 신령 .....	20
가. 산신과 지역신들	
나. 근원신 가망	
다. 불사와 하늘신들	
라. 인물신	
마. <뒷전거리>의 여러 잡신들	
<b>III. 수리산산신제의 재차</b>	
1. 수리산산신제의 재차 .....	38
2. 수리산산신제의 구성 .....	41
가. 준비과정	
나. 산신께 인사 올리기	
다. 산신제례	
라. 기본 굿거리 구성	
마. 확장 굿거리	
바. 공연물들	

## IV. 수리산산신제의 연행 요소

1. 수리산산신제의 무가 ..... 62
- |               |         |
|---------------|---------|
| 가. 주당물림       | 아. 장군거리 |
| 나. 부정청배       | 자. 별상거리 |
| 다. 가망청배       | 차. 신장거리 |
| 라. 진작         | 카. 대감거리 |
| 마. 산신거리       | 타. 창부거리 |
| 바. 불사거리       | 파. 계면거리 |
| 사. 가망·말명·대신거리 | 하. 뒷전거리 |
2. 수리산산신제의 무복 ..... 110
- 가. 기본 무복
  - 나. 띠
  - 다. 의관
  - 라. 무복의 상징성
3. 수리산산신제의 무구 ..... 116
- 가. 굿거리별 무구
  - 나. 약기류
4. 수리산산신제의 상차림 ..... 119
- 가. 일반적인 서울·경기굿 상차림
  - 나. 수리산산신제의 상차림



# 목차



<b>5. 수리산산신제의 장단</b> .....	129
가. 청배장단	사. 별상장단
나. 휘물이장단	아. 당약장단
다. 노랫가락장단	자. 만수받이장단
라. 타령장단	차. 물림장단
마. 상산장단	카. 각 개별 장단의 연결과 의미
바. 굿거리장단	
<b>6. 수리산산신제의 춤</b> .....	138
가. 들이숙배나숙배춤	마. 신장춤
나. 거상춤	바. 대감춤
다. 뛰는 춤	사. 바라기춤
라. 제금 들고 추는 춤	아. 뒷전춤

## V. 수리산산신제의 전승 주체

1. 내적 주체 .....	144
2. 외적 주체 .....	145

## VI. 수리산산신제의 가치와 발전 방안

1. 수리산산신제의 현대적 의미 .....	150
2. 수리산산신제의 무형유산으로의 가치 평가 .....	152
가. 역사성에 대한 평가	
나. 학술성에 대한 평가	
다. 예술성에 대한 평가	
라. 대표성에 대한 평가	
마. 사회문화적 가치 평가	
3. 수리산산신제의 발전 방안 .....	157
가. 안양시 향토문화재 제도 운영 방안 개선	
나. 무형문화재 정책의 방향성 수용	
다.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와의 협조 방안 모색	
4. 수리산산신제의 구체적 발전 방안 .....	161
가. 굿거리 구성의 표준화	
나. 굿거리 구성의 세부 조정	
다. 전승 주체의 조정 및 확립	
라.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 추구	

부록 .....	169
----------	-----





# 수리산 산신제

---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

# 1. 수리산산신제의 역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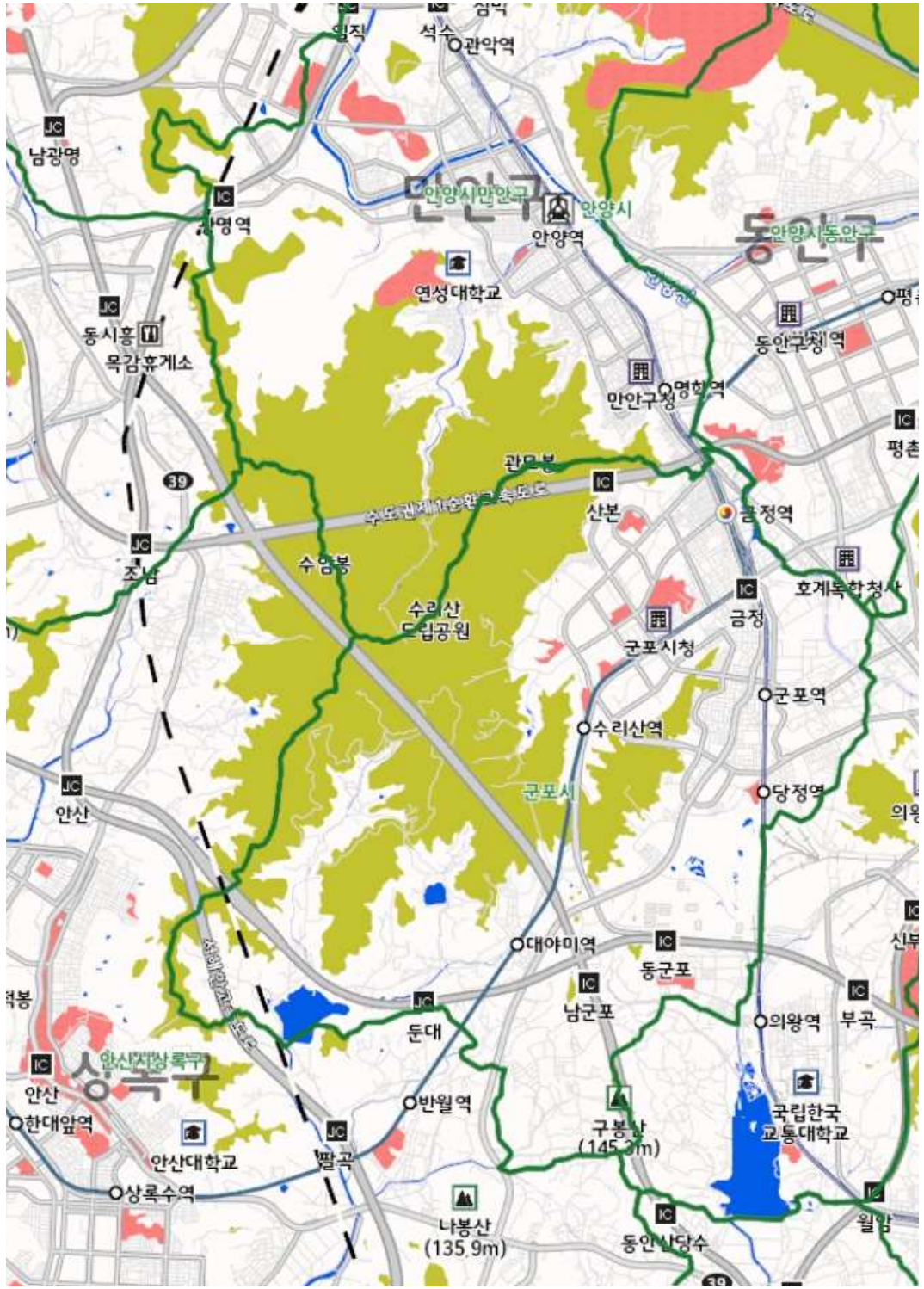


# 1. 수리산산신제의 역사

수리산은 안양의 진산(鎭山)이다. 수리산은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에 걸쳐 있는데, 안양시가 수리산의 전체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가장 크다.<sup>1)</sup> 실제로 안양 쪽의 수리산에는 길고 넓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수리산은 안양 수리산이라고 할 만하다. 산의 바위가 마치 독수리와 비슷하여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한 수리사(修理寺)로 인해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조선시대에 어느 왕손이 수도하여 수리산(修李山)이라고 했다는 설 등 명칭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 많은 것은 수리산이 이 지역의 상징적인 산이라는 의미이다.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산이 수리산이다. 그러므로 수리산과 관련 있는 많은 이야기와 의례가 전승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리산은 안양의 시민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역사 문화의 배경이 되었다. 지금도 안양의 많은 시민이 아끼고 즐겨 찾는 수리산은 안양의 상징이다.

---

1) 수리산의 전체 면적은 36.155km<sup>2</sup>이며, 이 중 안양시가 19.5km<sup>2</sup>, 군포시가 10.475km<sup>2</sup>, 안산시가 6.18km<sup>2</sup>를 점유하고 있다. (“수리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2022년 5월 31일 검색)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출처 : 국토정보플랫폼 국토정보맵)

하지만 수리산과 관련 있는 마을신앙이 구체적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1967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전국의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한 마을신앙 사례에도<sup>2)</sup>, 2002년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간행한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단』에도 안양시 마을신앙 사례가 여럿 수록되어 있지만<sup>3)</sup>, 수리산과 관련 있는 마을신앙은 없다. 이 당시 조사된 안양의 마을신앙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 번	조 사 지	비 고
1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 삼막마을 선왕당	『한국의 마을제당-서울·경기도편』 <sup>4)</sup>
2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 수촌마을	
3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 군포마을	
4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 덕현마을	
5	안양시 관양동 수촌마을당제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단』 <sup>5)</sup>
6	안양시 석수동 산신제	
7	안양시 석수1동 삼막골 당제	

안양의 마을신앙 조사 목록

두 자료는 대동소이하다. 수촌마을과 삼막마을은 시차를 두고 거꾸 조사되었다. 이들 마을 신앙이 수리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징표는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안양의 여러 마을에 마을신앙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리산과 관련 있는 마을신앙 조사 자료는 현재로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같은 행정구역이었던 군포시에 수리산산신제가 전승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안양시에도 수리산을 마을신앙의 구심점으로 모셨을 가능성은 있다. 최근에 조사된 군포시 수리산산신제 사례는 안양 수리산산신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군포시의 수리산산신제는 다음과 같다.

군포시 수리산산신제는 음력 1월 초, 음력 7월 초에 수리산 태을봉 산신제단에서 수리애향회가 주관하는 마을신앙이다. 수리산산신제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 잠시 중단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신

2) 1995년 국립민속박물관이 이때 조사한 조사질문지를 모아 자료집(『한국의 마을제당』)으로 편집·발간하였다.

3) 김지옥,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단』,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4)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서울 경기도편』, 1995, 242-245쪽.

5) 김지옥, 앞의 책, 172-176쪽.

도시 건설 이후 과거와 같은 공동체적 유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종래 자연 마을 출신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수리산산신제보존회’라고 불리는 모임을 결성하고 산신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수리산은 군포시와 안양시, 안산시 등의 경계를 이루며, 주봉인 높이 489m의 태을봉을 비롯하여 슬기봉, 관모봉, 수암봉 등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 수리산 아래에는 ‘산밑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산본동이 있다. 이곳은 원래 도장골, 둔전골, 궁안골, 광정골, 골안(곡란)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마을들에는 청주 한씨, 순흥 안씨, 전주 이씨 등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로 자연마을은 해체되었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과거와 같은 공동체적 유대를 조금이나마 유지하고자 1990년부터 수리애향회를 구성하여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이 마을들, 그중에서도 광정과 골안의 원주민 중심으로 ‘산축회(山祝會)’라는 계(契)를 조직하여 수리산 산신제를 주관해 왔다. 당은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으로 이루어진다. 할아버지당은 태을초등학교 뒤편 수리산산림욕장 관리사무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90m 떨어진 곳에 있다. 할아버지당에는 본래 ‘수리산산신제당(修理山山神祭堂)’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으나, 제당을 정비하면서 ‘태을당산신제각(太乙堂山神祭閣)’이라고 쓰인 현판으로 교체하였다. 본래 할아버지당은 별도의 건물이 없었고, 현재의 당 정면에 있는 바위에 제사를 모셨다. 그러다 약 40년 전, 산본리 출신의 기업가 이재준 씨의 기부금으로 제각(祭閣)을 세우고 안에 제단을 만들어 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당은 할아버지당에서 동북 방향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태을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출입로 방향 산기슭에 있다. 제당 위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난다. 제당은 약 2m 높이의 바위들과 참나무들로 이뤄져 있다. 바위 밑에 제단을 만들고, 그 옆에 주저리를 만들어서 나무에 묶어 놓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출입로 공사로 제각이 사라지면서 본래 위치에서 조금 이전하였는데, 도로가 제당을 고립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수리산 산신제는 음력으로 1년에 두 번, 정월과 음력 7월 초에 행해진다. 산신제를 행할 즈음이 되면 우선 ‘깨끗한’ 당주(堂主)를 정하고, 그의 생년월일시와 치제(致祭) 시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길시(吉時)를 택한다. 제일을 정할 때 생기복덕의 일진을 보아 날짜를 정하는 일반적 방식에서 수리산 산신제도 예외가 아니다. 제일로 정해진 날 중에도 다시 당주와 천기(天氣)·생기(生氣)가 맞는 시간을 정해 치제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까다롭다. 그러나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부정을 타지 않는다고 믿는다. 수리산 산신제는 제물 진설을 마치면 ‘분향-강신-참신-헌작-독축-소지-제신제-고수례’의 순서로 진행된다. 절은 사배(四拜)를 한다. 여기서 산신이 거느린 제신(諸神)에게 제를 올린다는 점이 주목된다. 소지를 마친 후에 제물을 바로 거두지 않고 제단 아래로 모든 제물을 그대로 내려 또한 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제신제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고수례를 하고, 참석자들이 제물로 올린 고기와 음식으로 음복한 후 하산하면 마을에서

대동이 모여 음복을 한다.<sup>6)</sup>

군포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1990년도에 와서야 시작된 점, 나름의 격식을 갖추려 노력한 점 등은 안양시의 수리산산신제의 방향성을 모색할 때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할아버지당, 할머니당을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은 것은, 안양시 수리산산신제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마을신앙의 핵심에는 신성공간인 당집(신당)이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안양시의 수리산산신제는 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현대식 마을신앙이어서 마을신앙이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리산 산신제를 올리기 전 산신제를 맡은 여러 무속인들이 수리산 중턱에 위치한 제당에 가서 수리산 산신께 인사를 올리고 있는데 이를 재정립하고 확장할 필요성을 알려 준다.

안양시의 수리산이 안양의 상징적인 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마을신앙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은 수리산이 특정 마을을 대상으로만 존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안양시 전체를 포괄하는 산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특정한 마을신앙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리산 안쪽에 있는 담배촌은 수리산에 의지하는 마을이어서 마을신앙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지만, 최경환 성인의 순교 이후 이곳이 한국 가톨릭 성지가 되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도 전통적인 마을신앙 전승의 소멸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안양에서 수리산은 구체적인 마을과 연결되기보다는 안양 전체를 보호하고 감싸는 진산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마을신앙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수리산이 안양시민의 신앙 대상이 된 것은 2012년에 와서이다. 2012년 수리산도당곳이 재현되면서 드디어 수리산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온전한 신앙의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이미 수리산을 중심으로 지역을 확장한 안양시는 현대 도시가 되어 있어 과거의 전통적인 마을신앙을 온전하게 복원, 계승하기는 어려웠다.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다시 살리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를 바쳐줄 전통적인 마을문화가 이미 사라졌다. 수리산도당곳이 ‘수리산 무(巫) 예술제’, ‘수리산산신제’로 명칭을 바꾸어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 이러한 연유이다. 안양시와 안양문화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리산산신제를 계승하려 했지만, 아직 수리산산신제를 감당할 전승 주체가 제대로 꾸려지지 못한 것도 아쉽다. 현재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가 수리산산신제를 감당하고 있지만, 안양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안양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안양시와 안양문화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온전하게 수리산산신제를 마을신앙의 모습으로 돌려주는 길이 될 것이다.

현재 수리산산신제는 나름의 전형을 확립하려 애쓰고 있다. 전통적인 마을신앙의 모습을 찾고 전승체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리산산신제의 모습을 구축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전통마을문화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마을을 배경으로 한 마을신앙의 고향을 정립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현대화된 마을신앙으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수리산산신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을 정립하려 한다.

6) 홍태한·윤동환, 『2020 군포시 무형문화유산 기초 조사 연구』, 군포시청, 2020.

첫째는 이 지역 무속문화를 바탕으로 한 수리산산신제의 정형성 확보이다. 부정을 물리고 굿청을 정확하는 〈주당물림〉, 〈부정청배〉부터 잡귀와 잡신을 대접하는 〈뒷전거리〉까지의 굿거리 구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과거 경기남부굿이 성행하던 곳으로 화랭이와 미지로 대표되는 세습무계와 강신무계가 결합하여 굿을 연행하던 곳이다. 하지만 현재 세습무계는 모두 끊어졌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서울굿의 흐름이다. 수리산산신제의 열두거리 구성은 서울굿의 흐름을 계승한 것으로 현재 안양시에 전승되는 무속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안양시의 무속은 넓은 범위로 볼 때 서울굿의 영역에 포함된다. 지하철이 개통되어 이미 서울 근교의 여러 도시들이 서울의 배후도시가 된 지 오래이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등지의 남부권 도시가 서울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무속도 서울 무속의 영향권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수리산산신제의 굿거리를 서울굿식으로 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둘째는 안양시민들의 호응을 돋우면서 수리산산신제의 흐름을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코로나 19 창궐 등 현재 안양시민에게 닥친 고난을 〈작두거리〉를 새롭게 수용하여 액을 물리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강조하였고, 경부선을 개설하면서 병목안 채석장에서 희생된 많은 이들과 박달동 범고개에서 목숨을 잃은 마을 주민과 나그네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길가름〉과 〈군웅풀이〉를 연행한다. 전통적인 굿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을 확장하면서 안양시민들의 호응을 돋우려는 의미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다소 부합하지는 않지만 무속신앙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두거리〉는 원래 북쪽의 황해도굿에서 연유한 굿거리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작두를 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작두거리〉는 신령의 영험함을 드러내는 데 매우 유용하며, 작두를 열려 신령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어 인기 있는 굿거리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통성은 부족하지만 〈작두거리〉가 서울·경기의 여러 지역에서 연행된다. 수리산산신제에서 〈작두거리〉를 연행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길가름〉은 망자를 천도하는 상징적 의미가 큰 굿거리로 망자천도굿인 진오기굿에서 주로 연행된다. 수리산산신제가 평안을 기원하는 굿임을 고려하면 〈길가름〉은 굿거리의 성격이 조금 달라 포함하는 데 주저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수리산산신제가 열리는 병목안시민공원은 과거 병목안 채석장이 있던 곳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어 의미가 있다. 〈군웅거리〉는 황해도굿에서 연유한 것으로 억울한 이들을 힘차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군웅거리〉를 연행함으로써 맺힌 것이 풀리는 의미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셋째는 현대의 다양한 공연과 결합하는 시도이다. 해마다 창조공연 형식으로 열린 다양한 공연을 무당굿과 결합하여 무당굿 또한 새로운 공연물임을 보여준다. 안양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러 문화단체와 결합함으로써 무당굿도 하나의 공연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용, 연극, 음악 등은 현대 예술로 이미 자리 잡았다. 무당굿은 이러한 현대 예술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 무용, 연극, 음악 등이 우리 문화 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처럼 무당굿 역시 우리의 문화 활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공연물을 올리는 것은 무당굿 또한 지금 살아있으며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이 될 수 있다는 의

미이다. 이처럼 수리산산신제는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굿거리를 창안하였고,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리산산신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정리된다.



진산으로 존재한 수리산을 산신제를 통해 신앙의 대상으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다양한 굿거리와 공연물을 수용하여 현대화된 수리산으로 이미지화한 것이다. 수리산산신제의 굿거리 구성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기본 굿거리	안양 굿문화의 흐름 수용
확장 굿거리	다양한 현대적 욕구 수용
공연물	무당굿의 현대화된 공연물 인식 제고

#### 수리산산신제의 기본 구성

수리산산신제는 전통 잣대로만 보기는 어렵다. 나름의 정체성을 구축하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그 핵심에는 전통적인 굿거리의 구성이 자리 잡고 있다.

수리산산신제가 열리는 병목안시민공원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병목안 채석장이 있던 곳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된 곳이다. 지금은 현대식 공원으로 말끔하게 단장하였지만 아픔을 치유하는 장치는 필요하다. 비록 무대이지만 수리산산신제를 이곳에서 여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셈이다.

수리산산신제에 대한 기술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 올리는 수리산산신제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현재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기술 방식은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수리산산신제의 실상을 알려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수리산산신제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하면서 완성된 모습의 수리산산신제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리산산신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기도 할 것이고, 수리산산신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지향점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현재 이뤄지는 수리산산신제가 아직 온전하게 구성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공연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제의로서의 모습을 좀 더 드러낼 수 있기 위한 제언의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이 글의 종반부를 통해 수리산산신제가 온전하게 전승되기 위해서는 안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수리산산신제를 안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되는 실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을 더하여 보다 나은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수리산산신제가 안양시의 문화자산이면서 안양시민들이 즐기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안양의 상징적인 의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기술방식을 택하였다.





# 수리산 산신제

---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

## II. 수리산산신제의 제단과 신령

1. 수리산산신제의 제단
  2. 수리산산신제의 신령
-

## II. 수리산산신제의 제단과 신령

### 1. 수리산산신제의 제단

수리산산신제 제단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마을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제단과 수리산 산신제를 연행하기 위해 병목안시민공원에 가설한 무대 제단이다.

먼저, 수리산 중턱에 위치한 산신제 제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이 제단은 ‘천지신명(天地神明)’이라는 명칭을 바위에 음각한 것으로 안양 지역의 여러 등산 동호회가 시산제(始山祭)를 여는 곳이기도 하다. 천지신명단 옆에는 ‘제단(祭壇)’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수리산 산신을 모시기에 적절하다. 문제는 이곳이 안양 시내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앞쪽 공간이 협소하여 본격적인 산신제를 올리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은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병목안시민공원에서 산신제단을 가설하여 본격적인 산신제를 거행하는 방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리산산신제를 올리기 전에 수리산산신제를 맡은 여러 무속인들이 이곳에 가서 산신께 인사를 올려 이곳이 수리산산신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곳이 수리산 산신과 관련이 있다는 표식은 없어 앞으로 이곳에 이와 관련된 표식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병목안시민공원 안에 차린 수리산산신제 제단이다.

다양한 제물을 올린 제단은 수리산산신제의 규모를 알려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는 앞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제단 바로 앞에 설치한 영상막의 이 전이다. 초기에는 도상을 걸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많아지면서 영상막을 설치하여 진행 상황을 비롯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의미가 있지만, 영상막이 있음으로 인해 제단이 가진 신성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수리산산신제를 신앙의례로의 성격을 드러내기보다 공연물로의 성격을 드러낸다. 영상막을 제단 옆으로 이전하여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둘째, 주최측이라 할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의 깃발 제거이다. 제단 양옆에 설치한 깃발로 인해 수리산산신제가 안양시와 안양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안양시민의 신앙의례가 아니라 몇몇 무속인들이 주도하는 무당굿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자리에는 ‘안양 수리산산신제’, ‘더불어 살아가는 수리산의 도시 안양’ 등의 문구가 적힌 깃발을 걸어 안양시와 수리산산신제의 연관성을 드러내어 수리산산신제의 위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수리산산신제 제단이 주는 무대로서의 성격을 줄이고 신앙의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수리산 산신을 형상화한 도상을 제단 바로 앞에 거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덧붙여 수리산산신제 제단 옆에는 작두를 설치하였다. 용 작두는 수리산산신제의 특성을 더욱 잘 보여주는 장치이다. 하지만 용 작두가 있음으로 인해 오히려 산신제 제단의 비중이 약화된 느낌을 주고 있어 용 작두의 설치 장소의 변경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위 : 수리산 중턱에 위치한 제단 / 아래 : 병목안시민공원에 가설된 제단

## 2. 수리산산신제의 신령

수리산산신제에는 다양한 여러 신령을 개별 굿거리를 통해 모시고 있으므로 개별 굿거리를 중심으로 신령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리산산신제의 주요한 신령은 다음과 같다.

### 가. 산신과 지역신들

〈산신거리〉는 여러 지역신을 모시는 거리이다. 수리산산신제의 첫 거리가 〈산신거리〉로 산신과 여러 지역신이 가장 중요한 신령임을 드러낸다. 지역신 중 주목되는 것은 산신과 도당신이다. 수리산산신제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거리가 〈산신거리〉인데, 이때 도당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무속인들은 동네신을 모셔놓아야 다른 신들을 모실 수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신이 매우 중요한 신임을 강조한다. 도당신은 수리산산신제를 올리는 곳을 관장하는 신령인 셈이다. 지금도 서울·경기 지역 굿판에서는 산신과 도당신을 상징하는 홍철력을 굿이 진행되는 공간 한쪽에 걸어둔다. 필요한 경우 홍철력을 입고 굿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굿 연행 후 다시 걸어 둔다.

도당과 동일한 신령에 부군신이 있다. 무당들은 도당과 부군이 같은 지역신이지만 도당이 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것을 ‘장군’과 ‘장교’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도당이 행정구역 중심이라 한다면 부군은 자연마을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도당과 부군은 모두 산과 관련된 신이다. 한국 무속에서 산은 지역의 상징이고 신이 거처하는 성스러운 공간의 상징이다. 그래서 〈산신거리〉의 처음에는 반드시 산종이를 들고 굿을 시작한다. 산종이는 종이를 산 모양으로 접은 것이다. 이 산종이가 등장하는 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 〈가망거리〉에서 가망을 모시면서이다. 이것은 가망과 산신의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지역신에는 산신도 포함된다. 어떤 점에서는 산신이 지역신의 조종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산신을 분향신으로 부르기도 한다. 무당은 〈산신거리〉에서 산종이를 들고 사방의 여러 산신들을 청배한다. 이것은 신들의 근원을 쳐드는 것이다. 산신이 들어오고 도당과 부군이 들어옴으로써 지역신에 대한 초대는 끝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신을 따라다니는 하위 신령들인 신장, 대감, 호구, 부인 등을 불러 모시기도 한다.

불러 모시는 신령 중에서는 서낭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낭은 동네의 수호신 이면서 거리신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서낭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들어온 신으로 여기는데, 이런 점에서 서낭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신이라 볼 수 있다. 동네 한 곳에 좌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과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 서낭신이 산거리에 불려짐으로 인해 지역과 지역의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산신거리〉와 〈불사거리〉는 열두 신령을 불러 모시는 열두거리가 다 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수리산산신제에서 모셔지는 도당신은 안양시의 지역신이고, 부군신은 안양시 각 동의 지역

신이다. 산신은 안양시의 언덕과 산줄기가 이어져 온 모든 산맥을 의미한다. 가까운 북한산부터 멀리는 백두산까지의 기운이 안양시까지 넘쳐오는 것이다. 산맥을 따라 흘러온 기운이 안양시의 도당과 안양시 여러 동의 부군을 통해 형상화되는 것이다.

## 나. 근원신 가망

곳이 진행되면서 <부정청배>가 있고 뒤를 이어 <가망청배>가 있다. '청배(講拜)'라는 말을 통해 어떤 특정한 신령을 불러 모시는 거리임을 알 수 있다. 수리산산신제에서도 <가망청배>가 있어 굿문을 열어준다. <가망청배>에 불러지는 신령은 <부정청배>에 불러지는 신령과 다르다. <가망청배>에서 불러지는 신령은 다음과 같다.

- 1) 초가망
- 2) 이가망
- 3) 맑게 받아 오신 가망, 설게 받아 오신 가망
- 4) 전물가망
- 5) 대신가망, 산신가망, 도당가망, 부군가망
- 6) 부리가망, 신에가망, 정전가망, 내전가망
- 7) 만조상가망, 선대가망, 후대가망
- 8) 조부모가망, 부모가망, 여러 친척 가망

이는 앞선 거리 <부정청배>에서 부르는 신령과는 다른데, 특히 여러 조상들을 나열하고 있다. 조상들을 나열하면서 구태여 가망이라는 용어를 붙인다. 여기에서 가망의 첫 번째 의미가 확인된다. 그것은 바로 조상신과 관련된 신령이라는 것이다. 조상과 관련된 가망의 용례는 곳이 진행되어 <조상거리>가 진행될 때 다시 한번 확인된다.

가망은 무속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신령의 이름이다. 그래서 부정거리의 첫머리에 '영정가망 부정가망'으로 불러진다. 본향을 쳐들기 전에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며 조상을 부르기 전에 '말명', '대신'보다 먼저 불러야 하는 신령이다. 망자가 저승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신이 가망이다?).

수리산산신제의 <산신거리>와 <가망거리> 두 거리의 신령은 닮은 점이 있다. <가망거리>에서 춤을 출 때 드는 종이를 '가망종이<sup>8)</sup>'라 하는데, 이는 산거리에서 들고 추는 산종이와 같다. 두 종이는 산의 모양이고 근원의 모양이다. 터와 지역신을 의미하는 산신과 근원을 의미하는 가망신은 성격에 상통하는 바가 있다.

---

7) 신을 의미하는 말인 '감', '곰'과의 관련성도 따질 수 있다.

8) 한지를 삼각형 모양으로 접은 것으로 산거리, 가망거리에서 좁은 쪽을 양손에 들고 춤을 추며 굿을 진행한다.

〈부정청배〉를 하고 뒤이어 〈가망청배〉를 한다. 〈가망청배〉가 끝나야 수리산산신제에 참가한 이들은 상에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가망이 와서 근원을 향한 문이 열렸기에 이제 안양시 민들은 신을 맞아들여 절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부정청배〉에서 여러 신령을 불러들였다면 〈가망청배〉는 근원을 쳐들어 굿문을 열어 놓았고 그래서 재가집은 신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굿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가망이 근원이고 조상의 성격을 가진 신령이라고 해도 가망을 청배해야 굿이 시작된다면 가망은 굿을 시작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부정청배〉에서 여러 신령을 불러 모셨다면, 〈가망청배〉는 모신 신령을 인간세계에 들어오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망청배〉는 인간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신들을 인간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 굿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러 신령이 모셔졌다고 해도 굿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신들이 굿판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신들을 굿판에 들어오게 하는 기능을 〈가망청배〉가 한다. 이러한 기능을 〈가망청배〉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망이 근원신이기 때문이다. 가망이라는 근원이 먼저 청배되어야 다른 여러 신들이 굿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신들이 굿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합일된다는 의미이다. 신의 세계가 오늘 굿이 진행되는 인간의 세계와 접하기 위해서는 가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가망이 근원신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구체적인 기능을 한다는 뜻이다. 〈가망청배〉를 통해 모셔진 여러 신령이 인간의 세계인 굿판에 들어와 공수를 줄 수 있고 가망공수를 통해 모셔진 여러 조상신들은 굿판에 들어와 후손들에게 자신의 소회를 말할 수 있다.

## 다. 불사와 하늘신들

불사는 하늘 관련 신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우주신으로 보기도 한다<sup>9)</sup>. 불사가 나오는 거리는 〈불사거리〉인데, 이를 무속인들은 〈천궁거리〉라 부르기도 한다. ‘천궁’이라는 말 속에 하늘이 들어있고 이는 달리 말하면 신들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불사거리〉에서 모셔지는 여러 신들, 신장, 대감, 호구는 모두 하늘신으로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이들이 천궁신장이고 천궁대감이고 천궁호구임을 강조한다.

불사와 함께 모셔지는 신에 칠성이 있다. 하늘에 있는 칠성신으로 사람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신이다.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북두칠성이라 하여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모두 쳐든다. 천왕도 동일하다. ‘천왕’이라는 말속에 하늘의 임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이들은 노랫가락을 통해 볼 때 은하수를 타고 내려오거나, 바람과 구름 가신 데 안개 사이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 하늘신임을 알 수 있다.

〈불사거리〉 마지막에 산을 주는 의식이 있다.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대추와 밤을 나누

9) 이용범,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1.

어 주는 것인데 짝수로 맞아 떨어지면 복이 있다고 여긴다. 이때 무당들은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주는 산이라 강조한다. 하늘에 있는 여러 신령들이 내려와서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불사와 관련하여 함께 따져보아야 할 신령으로 제석이 있다. <제석거리>에서 주신으로 모셔지는 제석은 개인곳의 경우에는 불사거리와 함께 모셔지기도 한다. 제석은 하늘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산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석본풀이를 보면 제석이 가진 생산신의 성격을 알 수 있다. 당금애기의 전체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등장하는 스님의 내력 등 다른 화소가 앞부분에 설명된다.
- 2) 당금애기를 낳기 위해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한다.
- 3) 스님 사위 본다는 예언을 듣는다.
- 4) 당금애기만을 집에 두고 모든 가족이 집을 떠난다.
- 5) 당금애기 부모는 당금애기를 가두고 외인과의 접촉을 금한다.
- 6) 당금애기의 미모가 널리 알려진다.
- 7) 스님은 당금애기 집에 오는 도중에 내기를 한다.
- 8) 집에 도착한 스님은 도술로 잠긴 문을 연다.
- 9) 스님이 시주를 요청하고 당금애기는 시주를 준다.
- 10) 당금애기의 잉태를 암시하는 행동이 있다.
- 11) 스님은 재워주기를 요청하고 당금애기와 동침한다.
- 12) 동침 중에 잉태를 암시하는 꿈을 꾸다.
- 13) 스님은 아들 낳을 것을 예언하고 찾아오는 법을 알려준다.
- 14) 당금애기가 잉태를 한다.
- 15) 당금애기의 잉태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진다.
- 16) 당금애기는 별을 받으나 겨우 별을 면한다.
- 17) 당금애기는 추방당하고 스님을 찾아간다.
- 18) 당금애기는 감금당하고 아들을 낳는다.
- 19) 당금애기와 아들들은 집으로 돌아와 성장한다.
- 20) 당금애기의 아들들이 놀림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넘어서기도 한다.
- 21) 당금애기의 아들들이 아버지 소재를 알아내려고 한다.
- 22) 당금애기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찾아간다.
- 23) 스님은 자신을 찾아온 아들들이 혈육임을 확인하는 시험을 한다.
- 24) 스님을 만난 아들들 사이에 과거 응시 등 다양한 사건이 벌어진다.
- 25) 스님을 만난 당금애기는 아들들을 낳는다.
- 26) 아들임을 인정하고 아들들 이름을 짓는다.
- 27) 아들과 당금애기를 만난 스님은 환속(還俗)한다.



28) 아들과 당금애기에게 신직을 부여한다<sup>10)</sup>.

이때 당금애기가 받은 신령이 삼신이다. 그리고 이를 제석신이라 불렀다고 한다. 단군신화에 제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민족은 하늘신과 삼신을 동일한 신령으로 여겼던 듯하다. 후대에 오면서 분화되었겠지만, 천신과 생산신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불사거리>가 제석신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수리산산신제에서 모셔지는 불사와 천신들은 안양시를 굽어보는 하늘을 신령화한 것이다. 태초에 하늘이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의 조상이 나왔으니 수리산산신제의 불사거리는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리인 셈이다.

## 라. 인물신

### 1) 장군

장군은 따로 영웅신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서울 지역의 무속에서는 장군신 중 최영장군을 가장 대표적인 장군신으로 여긴다. 하지만 무가에는 최영장군 이외의 여러 장군신들이 함께 등장한다.

무가 사설을 보게 되면 이 장군신에게 기원하는 내용은 개인의 안녕도 있지만 나라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 국가를 수호하고 백성을 보살피고 태평성대를 가져다주는 신령이 장군신이다. 임경업 장군, 남이 장군, 평산 신장군 등이 중요한 장군신이다.

그런데 한국의 민간신앙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대거 신령으로 숭배하고 있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이, 임경업, 최영은 모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어서 무속신으로 숭배된다.

### (2) 별상

별상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규명된 바 없다. 호구별상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천연두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수리산산신제에는 호구신이 따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천연두와는 별개의 신령으로 여겨도 무방할 듯하다.

<장군거리> 다음에 이어지는 <별상거리>는 '이 나라 이씨 별상 저 나라 흥씨 별상'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사설을 세워 신의 힘을 확인하고 있는 데에서 별상신도 장군신과 동일한 계통임을 알 수 있다. 수리산산신제에서 모셔진 장군신과 동일한 맥락으로 별상신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느 서울·경기곳처럼 수리산산신제에서 모셔지는 별상신은 사도세자로 판단된다. 사도세자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인물이다. 한국 무속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인물

---

10) 당금애기에 대해서는 흥태한,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민속원, 2001. 참조.

이 숭배의 대상이 됨은 앞서 장군신에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사도세자의 생모가 거주하던 궁이 선희궁이었는데, 선희궁말미라 하는 유평가 바리공주 무가를 구송하는 무당 사이에 남아 있다. 그렇다면 사도세자 사후 큰 궁이 선희궁에서 있었고 이때 불려진 바리공주 무가가 선희궁제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다<sup>11)</sup>. 이처럼 사도세자와 관련한 사항이 무속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으므로 별상을 사도세자로 보는 것이다. ‘이 나라 이씨 별상 저 나라 홍씨 별상’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풍산 홍씨와 조선의 국성(國姓)인 이씨를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별상을 사도세자로 위하고 받드는 것은 서울 무속이 가지고 있는 인물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수리산산신제는 서울과 경기 무속의 정통성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 (3)신장

신장신도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별상거리〉가 끝나게 되면 같은 무복에 삼지창을 놓고 신장기를 들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동일한 인물신으로 여기는 것이다. 장군신과 별상신이 엄숙하게 굿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복과 명을 빌어 주는 의미가 강하다면, 신장신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장군신과 별상신에는 보이지 않던 타령이 〈신장거리〉에서는 불려진다. 신장타령의 내용은 신장님이 매우 만족해한다는 점과 복을 마음껏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장기를 뽕게 해 뽕은 사람의 길흉을 점쳐준다는 데에서 신장신은 일종의 예지적인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서울의 개인굿에 청계(청개)벗기기가 있다. ‘청계(청개)’는 ‘청귀’로도 불리는 것으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좋지 않은 기운과 흐름이다. 이를 벗겨내는 것이 청계(청개)벗기기인데 대부분 신장거리에서 신장기를 뒤집어쓰게 하고 진행한다. 이것은 신장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액을 물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안양시에는 동서남북 사방(四方)이 다 있다. 이 사방을 지켜주는 기능신이 신장신이다. 가운데까지 합하여 오방(五方)이라 부르는데, 안양시를 사방에서 감싸 안아 안양시 주민들을 지켜주는 신령이다.

### (4)대감

대감은 성격이 매우 다양한 인물신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없다. 대감이라는 동

11) ‘제’라는 것은 유평과 동일한 개념이다. 서울 무속에서는 노들제, 각심말제, 구파발제, 선희궁제 등 제라는 말을 붙여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는 무속을 불렀다.

12) 서울 마을굿에서 인물신을 받드는 곳이 여럿 있다. 용산구 용문동에서 남이장군 숭배, 용산구 보광동에서 김유신 장군 숭배, 마포구 창전동에서의 공민왕 숭배가 그 예다. 또한 서울 마을굿에서 부군님이라는 신령을 받들고 있어 인물신 숭배와 마을굿의 친연성이 확인된다.

일한 이름이 있지만 텃대감이라면 가옥신의 영역에, 양반대감이라면 조상신의 범주에 포함되며, 몸주대감이나 하직대감이라면 굿을 하는 개인의 운수를 강조한 표현이다.

따라서 대감은 고유명사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복과 명을 관장하는 보통명사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만약 터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면 텃대감이 될 것이고, 조상 중에서 복과 명을 나누어 주는 신이 있다면 양반대감, 벼슬대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신령이 대감이다.

## (5) 호구신

수리산산신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는 무가를 구송하는데 상당히 다양한 신령들이 등장한다. <호구거리>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호구와 관련된 여러 호구신을 청배한다. 구송된 무가에 상당한 호구신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호구신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뜻이다. 청궁호구, 일월호구, 성신호구, 사해용신호구, 중단호구, 서인호구, 상산호구, 전안호구, 수풀당애기씨호구, 형제호구, 부군애기씨호구, 송씨부인·나씨부인호구, 대신호구, 관왕대전호구, 삼신서주호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호구신들의 신령을 밝혀본다면 호구신의 의미가 조금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sup>13)</sup>.

먼저 청궁호구는 일월호구, 성신호구와 함께 하늘에 있는 호구신을 말한다. 사해용신호구는 바다에 있는 호구를 말하니 하늘과 바다에 있는 모든 신령들이 다 동원된 셈이다. 중단호구와 서인호구는 양반이 아닌 중인계층, 일반백성들과 관련이 있는 호구신으로 사회계층과 관련이 있다. 상산호구는 장군신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관왕대전호구와도 성격적으로 통한다. 대신호구는 무당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신의 하나로 이해된다. 이렇게 본다면 주로 호구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있지만, 무속에서 숭배하는 여러 신령들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천신 계통에서 일신 계통과 바다신 계통까지 호구신이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

수풀당애기씨호구와 부군애기씨호구도 같은 성격으로 이해된다. ‘수풀당’은 무당들이 정통성을 가릴 때 꼭 거론하는 당이다. 무가 사설에 수풀당이 나오지 않으면 정통무당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무당들에게 있어서는 숭배의 대상이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대단한 신령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부군애기씨호구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부군당이라면 서울 지역의 마을 수호당으로 지금도 부군당굿이 행해지고 있다<sup>14)</sup>. 결국 수풀당과 부군당은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송씨부인과 나씨부인이 남았다. 송씨부인은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정

13) 그동안 한국 무속의 신령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신령들의 종류와 신령들의 위상, 그러한 신령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들이 집중적으로 탐구되었다.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0. ; 조흥윤, 『한국 무의 역사와 현상』, 민족사, 1997. 등에 이러한 신령에 대한 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로는 앞에 제시한 이용범의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가 상세하다.

14) 2002년 5월 12일 민명숙 당주에 의해 진행된 이태원부군당굿이 그 예가 된다. 이태원부군묘에서 진행된 이날 당굿은 부군할아버지와 부군할머니를 모시고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는 굿이었다.

업원에서 주지로서 수행하다 죽은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를 가리킨다. 젊어서 남편의 죽음을 목도한 후 평생을 한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단종비가 무속에 수용된 것이다. 나씨부인의 정체는 뚜렷하지 않지만, 동일한 신령으로 보인다.

민중들이 무속에서 숭배하는 신령들은 대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경우가 많다. 임경업과 남이, 최영 장군 등의 신령이 모두 여기에 속하는데, 민중들은 그들이 가진 억울한 사연과 현실로부터의 좌절감 등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면이 있다.<sup>15)</sup> 실제 인물인 임경업과 남이, 최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필요한 것이고, 자신들이 현실로부터 받은 여러 제약들을 풀기 위한 존재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인물들을 수용한다.

송씨부인과 나씨부인도 그들의 실재적인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들을 굿판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 신령 중에서 호구거리에 이 두 부인을 등장시킨 것은 용궁부인, 산신부인과 달리 이들이 현실로부터 어떤 억울함과 한스러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호구거리>에 등장하는 호구신들은 전체 모든 신령을 의미하면서 특별히 억울함과 한을 가진 여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호구’를 ‘호귀’로 연결하여 오랑캐에 끌려가 욕을 본 여성신으로 풀이한 성과를 고려하면 호구신의 성격과 송씨부인과 나씨부인의 의미는 상통한 점이 발견된다. 호구신은 여성신들 중에서 특별히 억울함을 가진 신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당당하게 내놓지 못하고 붉은 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무가를 부를 수 있을 뿐이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거리>에 두드러진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신령과 달리 얼굴을 가린 채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호구각시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 신령이 어떤 신령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짧은 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호구신의 성격처럼 재가집도 무의미하게 바라볼 뿐이다.

과거의 굿판은 여성 중심의 제의 공간이었다. 서낭제, 산신제 같은 마을 공동제의가 남성 중심인데 비하여 굿판의 주재자는 여성이었다. 1900년대 초까지 서울의 굿판에서는 악사의 앞을 가로 막는 차일(遮日)이 쳐져 있었다고 한다. 이는 악사와 굿판에 참가한 여성들과의 내외의식 때문인데, 그만큼 굿판은 여성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굿판에서 여성들은 자신이 가진 한들을 마음껏 풀어 낼 수 있었다. 동해안별신굿에서 많은 할머니들이 굿청에 앉아 무당들의 연희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장면이야말로 우리의 전통적인 굿판의 모습이었다.<sup>16)</sup>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은 생활을 하던 여성들에게 있어서 굿판이야말로 해방의 장소였던 셈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한(恨) 하나하나를 풀어내는데, “굿하고 싶

15) 이에 대해서는 흥태한, 『인물 전설의 현실 인식』, 민속원, 2000. 참조.

16)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김인회의 『한국무속사상사연구』 표지에 실려있는 풍속화이다. 악사들 앞에 차일이 쳐 있고 여성들이 신명나게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 당시 굿판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최근 간행한 다음 책에서도 이러한 실상을 알 수 있다. 흥태한 외, 『이지산의 서울굿 그림 읽기 43점 이야기마당』, 민속원, 2021.

어도 며느리 춤추는 것 보기 싫어 못한다”는 말처럼 굿판은 한풀이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런 굿판에서 여성들은 〈바리데기〉 무가에서 자신들의 신세를 본다. 버림을 받는 장면에서 여성들은 일체감을 느낀다. 〈심청굿〉 무가를 들으며 심청의 행적에 울고 웃는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떠올린다.

이런 여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구신이다.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모습을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호구신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소외 받은 여성들의 모습이다. 엷은 얼굴은 천연두로 인해 생긴 얼굴이면서, 천연두로 상징되는 사회의 억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생긴 얼굴이다. 무가 사설에서 보이듯이 모든 신령과 동등하게 등장은 하고 있지만, 다른 신령에 비해 여성 신령들은 모두 한을 가진 존재이고, 이는 곧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굿판에 등장하는 신령을 본다. 여성들이 주재하는 굿판이지만, 실상 각각의 거리에서 모셔지는 신들은 대부분이 남성 신령인 경우가 많다. 대감놀이를 걸판지게 할 때도 그 대감은 조상대감, 텃대감 등 남성 신령이고, 작두를 놀리는 장군신도 남성 신령이다. 여성이 중심이 되는 굿판에서 남성이 중심이 되는 신령들을 놀린다는 것은 상당한 역설로 보인다. 이러한 신령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호구신이다. 부끄럽게 나타나 잠깐 춤을 추다가, 무가 사설 몇 마디 일러주고 사라지는 호구신의 모습은 남성 신령이 중심이 되는 굿판에서 여성의식이 반영된 단 하나의 굿거리이다.

이러한 양상은 서울굿에 등장하는 신령들을 정리한 이용범의 연구 성과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서울 재수굿에 등장한 신령들을 우주신, 지역신, 가신, 조상, 무조신(巫祖神), 영웅신, 잡귀잡신으로 나누면서 호구신을 잡귀잡신으로 처리했다<sup>17)</sup>. 그런데 영산, 상문, 수비 등의 다른 잡귀잡신들이 주로 뒷전에 등장하는 데 비하여 호구는 〈천궁맞이〉와 〈산신거리〉의 부속거리에 나타난다고 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호구신이 비록 잡귀잡신으로 주요한 신령은 아니지만, 다른 잡귀잡신과는 구별되는 면이 있다. 뒷전이 말 그대로 굿판에 오기는 왔지만 한 거리도 놀아지지 않은 여러 잡신들을 풀어먹이는 거리인 것을 감안한다면 호구신은 그렇게 지위가 낮은 신령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렇게 본다면 호구신은 중요 신령은 아니면서, 그렇다고 뒷전에서 풀어먹이는 신령은 아니면서,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진 신령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굿판에 참가한 여성들의 위치와 상당히 닮은 점이 있다.

굿판은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남성들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굿판에 초대받는 신령들은 대부분이 남성 신령이고, 그러다 보니 굿판에 참가한 여성들은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함께 사회적인 제약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어정쩡한 관계를 보이는 굿판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중요한 신령도 아니면서 중요 거리의 부속거리에서 놀아지는 호구신령과 닮은 점이 있다. 무속의 신령과 동등하게 대접을 받고

---

17) 이용범, 앞의 글, 참조.

있는 듯이 보이면서도 독립된 하나의 거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잡귀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호구신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신령과 동등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한을 가진 존재가 바로 호구신이다. 송씨부인을 통해 아픈 역사를 되새기면서 수풀당과 부군당을 통해 마을 수호신의 성격을 보여주지만 결국은 사라질 운명의 신령이 호구신이다. 그래서 ‘잠깐 놀다 간다’라는 말처럼 호구신은 굿판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안 놀면 안된다’는 말에서 아직 굿판에 여성 신령이 살아는 있지만, 적극적인 위상은 가지지 못한 채 사라지는 모습으로 호구신은 등장하고 그렇게 호구거리는 명맥만 유지한 셈이다.

## (6) 창부

창부는 〈창부거리〉의 주신령이다. 복색이나 무가의 내용으로 보아 창부는 광대신이 분명하다.

안산은 광대씨 박산은 청계씨  
 서무시 너털리 소년 출신 재인광대  
 안양 ○씨의 대주님 부모자손 몸주창부 직성창부 창부씨 청계씨에서  
 이렇게 받으시구 재수 열어서 도와주시구  
 은산에 은두 뜨구 금산에 금두 뜨구  
 천량산에 천량 뜨구 은자보물 숨은 천량  
 생기여 도와주고 열홍수 저쳐주고  
 뜯홍수 물려주고 재수천량 뜨러 갑시다

굿판에서 악사들은 창부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인식의 발로이다. 창부는 액을 물리는 역할을 한다. 위의 무가에도 나와 있듯이 홍수를 물려주고 재수를 주는 역할을 한다. 대개 〈창부거리〉는 굿의 마무리 단계이다. 창부타령을 불러 액을 막으면서 굿을 끝낸다.

## 마. 〈뒷전거리〉의 여러 잡신들

〈뒷전거리〉는 여러 잡신과 잡귀를 풀어먹이는 거리이다. 다양한 여러 신령이 들어온다. 먼저 걸립이 있다. 걸립은 ‘대감’과 결합하여 흔히 걸립대감으로 불린다. 서울·경기 지역의 여러 무속인들이 개별 신당을 보면 출입문 쪽에 걸립을 따로 모시고 있다. 즉, 걸립을 수비나 영산처럼 박대하지는 않고 대접하여 모신다. 그러므로 서울굿의 유파에 따라 걸립과 서냥이 〈뒷전거리〉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하는 것은 걸립과 서냥이 〈뒷전거리〉에 반드시 포함되는 신령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지신과 터주는 모두 마당과 관련이 있는 신령이다. 터주는 집이 위치하고 있는 땅을 신

명화한 것이다. 터주의 성격은 기본 공수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어 곳차  
남터주 여대감 여터주 남대감 아니시리  
원주터주 집주터주 은주저리  
업터주 금주저리 복터주 아니시리  
터주하고는 김침지 아니시리  
이 마전 이 터전 터왕 텃대감 아니시리

‘이 마전 이 터전’이라는 말에서 터주는 마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주저리’라는 말을 통해 터주가 짚으로 만들어진 신체를 가지고 있어 농경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터주타령<sup>18)</sup>에는 터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나갈 적에 빈 바리요 들어올 제 찬 바리라  
금산에 가서 금을 뜨고 은산에 가서 은을 떠서  
은자보물 숨은 천량 생겨를 주시던 내대감  
늘여를 주시던 내대감

금과 은을 가져다주는 터주는 복을 주는 신령이다. 빈 바리로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는 그 바리를 가득 채워준다. 터주는 마당과 관련이 있으며 복을 주는 신령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자신도 동일하다. 자신 기본공수에 자신의 성격이 보인다.

이 터전 이 마전에 지신지덕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집을 지으려고 돌도 실어 들고  
흙도 실어 날라서 배꼽은 소꼽이 되고  
이마는 도마가 되었구나  
무쇠 천익이 다 헤어지고 무쇠 신이 다 닳아 없어졌구나

지신은 이 터전에 집을 짓게 해준 신령이어서 집터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지신을 계속 연행하게 되면 지경달이타령과 방아타령, 키질타령이 이어진다. 모두 마당과 관련이 있으며 농경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동으로 달는 지경 청학머리 놀랄세라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에라 지경이야  
남으로 달는 지경 업 족제비 놀랄세라 가만가만 다져주소

---

18) 텃대감타령이라고도 한다.

에에에라 지경이야

서로다 닫는 지경 잉어머리 놀랄세라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에라 지경이야

복으로 닫는 지경 금구렁이 놀랄세라 가만가만 다져주소

에에라 지경이야

집을 지을 터를 잘 닦는 지경담이는 마당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당에서 농경의 여러 행위가 이루어진다. 방아를 찧고, 키질을 하여 수확한 곡식을 거둔다. 마지막에는 지신에 대한 축원이 이어진다.

어 허허 지신지덕 할아버지 할머니 키질도 다했으니

○씨 가중 ○씨 명당

양위부처 좌우명당 다져놓고 부자 되고 장자 되서

이 마전에 꽃이 피고 싹이 나게 받들어 주시마

이렇게 잘 정비한 마당에 꽃이 피고 싹이 나면서 복이 들어오기를 기원한다. 터주와 지신은 농경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모두 굿이 진행되는 마당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신령이다. 이처럼 <뒷전거리>에 부른 여러 신령은 농경과의 관련성, 굿이 진행되는 장소로 마당의 의미 강조라는 공통점이 있다. 황해도굿에서 <뒷전거리>를 <마당굿>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뒷전거리>의 특징을 잘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맹인이다. 맹인은 한국 무속에서 매우 독특한 신령이다. 육안(肉眼)이 막힌 대신에 심안(心眼)이 열린 존재로 여겨져 한국 무속에서는 신기하고 영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용산구 용문동 남이장군사당과 은평구 구파발동 금성당에도 맹인 내외를 무신도로 그려 봉안하고 있다. <뒷전거리>에 등장하는 맹인은 회화화의 대상이다. 어린아이들의 놀림을 받기도 하고, 설움에 겨워 타령조로 길게 신세타령을 하기도 한다. 상위의 여러 음식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보니 상차림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상한 것으로 둘러대기도 한다. 맹인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맹인이 점을 쳐서 액을 풀어주는 부분이다.

\*장구잡이 : 여보 장님 잘 자셨으면 점이나 쳐주구려.

\*장 님 : 그럼 점을 쳐 줄 테니 복채나 두둑이 주구려.

(산통을 꺼내 흔드는 시늉을 하며) 점도 점도 점ियो. 떡국점도 점ियो  
무점도 점ियो 오오오오~ 워리워리워리.(개 부르는 시늉 소리)

\*장구잡이 : 무슨 점이 개를 부르슈.

\*장 님 : 어허 어디 다시 봐 봅시다. (다시 산통을 흔드는 시늉을 하면서) 오



방신장 육갑신장 동으로는 청제신장, 남으로는 적제신장, 서로는 백제신장, 북으로는 흑제신장, 한가운데 황제신장. 점을 딱 쳐보니 ○씨 가중 몇 남매 자손인데 어쨌든지 하괘, 중괘, 상괘로 뽑았소. 상괘 중에 사괘(상괘)요.

과거에는 판수(判數)라 하여 맹인이 사방을 다니며 점을 봐주었다. 널리 알려진 고전소설 춘향전에도 감옥에 갇힌 춘향이 악몽을 꾸 후 지나가던 맹인을 불러 점을 치는 장면이 있을 정도<sup>19)</sup>로 널리 알려진 풍속이다. 무당이 굿청에 좌정하여 굿을 주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맹인은 사방을 떠돌며 사람들의 신수를 봐준다. 마당은 안과 밖이 통하는 공간이다. 굿이 열리고 있어 이미 무당이 모든 운명을 알아주는 굿을 하고 있으니 재가집의 입장에서 복을 빌고 명을 이어주기에 충분한 셈이다. 처음부터 맹인이 굿판에 와서 신수점을 봐 줄 일은 없다. 따라서 맹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굿이 어느 만큼 진행된 이후가 될 것이어서 다른 굿거리에는 등장할 수 없고 마당이 중심이 되는 굿거리에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나가던 맹인은 마당을 매개로 하여 굿청에 들어올 수 있었고, 마당이 중심이 되는 여러 신령들이 있는 <뒷전거리>에 나올 수 있다.

다음은 영산과 상문, 수비인데, 이들은 굿의 중반부에 들어오는 불사, 산신, 창부 등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다른 여러 신령이 무신도로 자신들의 형상을 나타내지만, 수비, 상문, 영산은 무신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산은 억울하게 죽은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별적인 의미의 신령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무가를 보게 되면 억울한 죽음 자체 내지는 죽음의 모습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죽음의 양상은 불교 의례인 수륙재(水陸齋)의 하단이나 유교 의례인 여제(厲祭)에서도 찾을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다.<sup>20)</sup> 상문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이나 죽음 자체의 의미보다는 죽음의 기운을 의미한다. ‘따라든 상문 물어든 상문’이라는 말에 보이듯 상문은 살아있는 사람을 따라가 또 다른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이다. 수비는 주신을 따라 다니는 좋지 않은 기운을 의미한다. 그래서 서울굿의 몇몇 거리에서는 수비를 물리는 의식이 있고, 동해안굿에서도 개별굿 연행 이후 수부물림을 연행하고, 남해안굿에서도 수부장단에 맞춰 수비를 물리는 내용이 개별 굿거리에 다수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영산, 수비, 상문은 개별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의미의 신령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인 의미의 신령이다.<sup>21)</sup> 그래서 무가를 보면 수비, 상문, 영산은 모두 여러 신령들을 나열할 뿐 재가집에게 신령이 공수를 내리지는 않

19)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4-춘향전 완판 84장본』, 박이정, 1997. 64면 수록. ‘옥 박그로 봉사 한나 지나가되 서울 봉사 갓들진디 문수하오 웨련만던 시골 봉사라 문복하오 하며 외고 가니 춘향이 듯고 여보 어만이 저 봉사 좀 불너주오.’

20) 홍태한, 「수륙재 하단에 보이는 죽음 양상의 보편성」, 『남도민속연구』 24, 남도민속학회, 2012. 199~216쪽에서 불교의례, 감로탱, 유교의례, 무당굿의 죽음 양상을 비교했다.

21) 김현선은 이를 일러 하나가 아닌 여럿이고 한 종류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러 신격이 결합된 것이라고 했다. (김현선, 「서울굿 안당뒤틀전의 제의적 성격과 굿놀이적 특징」, 『서울굿, 거리 거리 열두 거리 연구』, 민속원, 2011, 119쪽.)

는다.

이 영산 저 영산 산에 올라 호영산  
들로 내려 처사영산 목 매달아 가던 영산  
약을 먹어 자결영산 물에 빠져 수살영산  
불에 타 화살영산 난리폭격 끝에  
총칼 맞아 파편 맞아 가던 영산

외상문 내상문 구상문 조각상문  
옛본 상문 숨어본 상문이요  
백호상문 주작상문  
초상장사에 염습 시  
하관시에 범한 상문  
지초부의 왕래상문

여수비 남수비  
상산수비 도당수비 부군수비 물아래 용궁수비  
하청수비 열여섯 중청수비 스물여덟 상청수비

그런데 서울·경기곳을 보면 수비가 등장하는 곳거리가 몇 있다. 먼저 <불사거리>가 진행 되면 대신을 모시기 전에 영산과 수비를 물린다. <산거리>가 끝나게 되어도 역시 영산과 수비를 물린다. <불사거리>, <산거리>, <뒷전거리>는 모두 이승의 신을 대상으로 한 거리로 흔히 열두거리가 다 있는 거리로 알려져 있다.<sup>22)</sup> <사재삼성거리>는 진오기곳에서만 연행하는 거리로 저승신인 저승사자를 불러들이는 곳거리이다. 저승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령을 맞이하는 거리여서 영산과 수비를 물려 액을 막는 의미를 강조했다.

<뒷전거리>에서 영산과 수비를 쳐드는 것은 <불사거리>, <산거리>처럼 열두거리의 의미를 다 보여주는 것이다. 즉, 다양한 신령들이 들어온 거리인 <불사거리>, <산거리>, <뒷전거리>는 영산과 수비를 물려 곳거리의 완결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영산과 수비는 마당과의 관련성을 따지기보다는 열두거리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곳거리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 상문이 들어간 것은 곳의 초반부인 <부정청배>와 대응하여 곳의 종반부인 <뒷전거리>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곳의 초반부인 <부정청배>와 종반부인 <뒷전거리>는 모두 무당이 무복을 걸치지 않고 평복으로 진행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영산, 수비와 성격이 상통하는 상문을 함께 불러 곳을 마무리한다.

그런데 영산과 수비 무가를 보면 <뒷전거리>의 무가가 <불사거리>나 <산거리>의 무가보

22) 김현선은 <뒷전거리>의 신격이 일종의 열두거리 관념을 충족하는 특성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김현선, 앞의 책, 120쪽.)

다 훨씬 더 다양하다. 이것은 <뒷전거리>에서 영산과 수비를 좀 더 다양하게 늘어놓아 강조하는 것으로, <뒷전거리>가 마당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당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 곳을 마무리하는 공간이다. <불사거리>나 <산거리>는 아직 곳이 완결되지 않은 것이어서 영산과 수비를 간단하게 물리나, 모든 곳이 마무리되는 <뒷전거리>는 마당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영산과 수비의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늘어놓을 수 있다.

이러한 수리산산신제의 여러 신령을 보게 되면 매우 다양한 신령들이 불려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계통	신령들
천신	불사, 칠성, 중상, 제석
지역신	산신, 도당, 부군, 서낭
인물신	장군, 별상, 신장, 대감, 호구, 창부
잡귀잡신	지신, 터주, 맹인, 영산, 상문, 수비

#### 수리산산신제의 신령들

이러한 여러 신령이 수리산산신제에서 모셔지는데, 천지인의 결합에 수의 결합까지 이루어진 것이 수리산산신제이므로 신령들의 종합적인 결합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신령들은 순서 없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흐름에 따라 들어와 곳이 진행되는 것이다.



수리산산신제에서 모시고 있는 수리산 산신 도상  
(2021. 4. 25. 제8회 수리산산신제 중)



# 수리산 산신제

---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

### Ⅲ. 수리산산신제의 재차

1. 수리산산신제의 재차
  2. 수리산산신제의 구성
-

### III. 수리산산신제의 재차

#### 1. 수리산산신제의 재차

수리산산신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준비하기
- 2) 산신께 인사 올리기
- 3) 기본 굿거리 구성
- 4) 확장 굿거리 구성
- 5) 현대화된 공연물

준비는 수리산산신제 제단에서 여러 제물을 올리고 굿청을 꾸미는 것이다. 대개 수리산산신제가 열리기 전날에 이뤄진다. 산신께 인사 올리는 수리산산신제를 거행하기 전 수리산산

신제 제단에 나가 인사를 올리는 것이다. 기본굿거리와 확장굿거리가 수리산산신제의 굿거리 구성이다. 기본굿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주당물림
- 2) 부정청배
- 3) 가망청배
- 4) 산신거리
- 5) 불사거리
- 6) 가망·말명·대신거리
- 7) 장군거리<sup>23)</sup>
- 8) 별상거리
- 9) 신장거리
- 10) 대감거리
- 11) 창부거리
- 12) 계면거리
- 13) 뒷전

이러한 흐름을 서울·경기 지역의 일반적인 굿거리와 비교해보면 수리산산신제의 특징이 보인다. 먼저 서울·경기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재수굿과 비교해본다. 재수굿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주당물림
- 2) 부정청배
- 3) 가망청배
- 4) 불사거리
- 5) 산거리
- 6) 조상거리
- 7) 상산거리
- 8) 별상거리
- 9) 신장거리
- 10) 대감거리
- 11) 성주거리
- 12) 창부거리

---

23) <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를 묶어 <대안주거리>라고도 한다.



### 13) 뒷전

이러한 재수굿과 비교해보면 기본적인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 다만 재수굿에 있는 조상거리가 수리산산신제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수리산산신제가 개인굿이 아닌 마을굿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개인굿에서는 재가집의 조상을 불러서 위해야 하겠지만 수리산산신제에서는 마을 중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조상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른 마을굿과 비교해보면 수리산산신제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특이성이 발견된다. 하나는 군웅을 모시는 거리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군웅이라면 마을을 수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군웅 거리에서 무당은 사방으로 화살을 날려 마을에 들어오는 액을 물린다. 이태원부군당굿이나 봉화산도당굿에서 군웅거리의 성격이 확인된다. 그러나 수리산산신제에서는 군웅신을 모시는 거리가 따로 없다.

이렇게 본다면 수리산산신제는 서울·경기굿의 일반적 흐름을 가진다. 또한, 수리산산신제의 각 거리는 청신(淸神)-오신(娛神)-공수-송신(送神)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며 신령을 청배하여 놀린 후 공수를 듣고 신을 돌려보내는 식으로 거리가 진행된다. 강신무가 주재하는 굿판이어서 이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무당이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은 오신의 과정이다. 그리고 무당의 입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말들이 나온다. 올해 운수가 어떨할 것이고, 안양시가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식의 말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공수를 받으면서 한 해 동안 가려야 할 것을 가리면서 대비해야 할 것은 대비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은 수리산산신제가 가진 종교적인 기능이다.

또 하나는 확장 굿거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장 굿거리는 다음 세 굿거리로 이뤄진다.

- 1)작두거리
- 2)길가름거리
- 3)군웅풀이

〈작두거리〉는 수리산산신제의 가장 인기 있는 굿거리이다. 비록 기본 굿거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작두를 타 액을 물림으로써 안양시민들의 호응이 가장 높다. 〈길가름거리〉는 병목안 채석장에서 희생된 이들을 천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리산산신제가 경사 굿으로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의미가 있으므로 〈길가름거리〉의 연행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확장 굿거리로 구성한 것이다. 길을 갈라주는 연행 과정에 안양시민들이 다수 참여하여 자신들의 조상을 천도하는 의미를 보여주기도 한다. 〈군웅풀이〉는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위로하고 풀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안양시 박달동에는 범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고갯길이 험하고 호랑이가 살았다 하여 고개를 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넓게는 수리산산신제가 가지고 있는 대동의 멋진 것을 풀어주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수리산산신제의 제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구분	성격
산신께 인사 올리기	신과의 만남
기본 굿거리	산신제의 실행
확장 굿거리	산신제의 확장
공연물	산신제의 축제화

### 수리산산신제의 성격

## 2. 수리산산신제의 구성

연행은 실제 무당이 굿판에서 굿을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굿은 음악과 춤, 그리고 말이 합쳐진 종합예술이다. 굿에는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기서는 각 거리별로 어떻게 연행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 가. 준비과정

수리산산신제의 날짜에 맞춰<sup>24)</sup> 여러 무속인들은 자신들이 맡을 굿거리를 먼저 정한다. 그리고 미리 모여서 ‘합을 맞춘다’. 이것은 수리산산신제의 전체 흐름을 미리 살피면서 당일 수리산산신제가 아무 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제물준비도 이때 이뤄진다. 수리산산신제에 필요한 과일, 떡, 전, 육고기 등을 미리 주문하여 준비하고, 조리가 필요한 제물은 몫과 역할을 나누어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한 제물은 수리산산신제가 열리기 전날 특별히 설치한 수리산산신제 제단으로 운반해 진설을 한다. 진설은 여러 무속인이 모두 참석하여 준비한다. 정해진 법도에 따라 상을 차리고 각 굿거리에 필요한 무구를 진설하고 이 과정에 자신이 당일 맡을 수리산산신제의 흐름도 짚어본다.



24) 수리산산신제는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을 제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16 세월호 참사, 강원도 고성 산불 사태,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에 따라 다른 날짜에 수리산산신제를 연행하기도 하였다.

## 나. 산신께 인사 올리기

수리산산신제를 올리기 전날 오후 3시경 수리산 중턱에 위치한 제단에 올라가 산신께 인사를 올린다. 수리산산신제에 참여한 다수의 무속인이 참여하여 진행한다.



산신께 인사 올리기 위한 상차림



산신께 인사 올리는 모습

수리산을 찾은 시민들의 이목 끌기는 물론 제례 후의 음식을 함께 나누며 산신제의 의미를 더하였다.



먼저, 천지신명단(天地神明壇)에 상을 차린다. 상차림은 간소하게 삼색나물 1접시, 사과, 배, 오렌지, 참외, 포도 각 1접시, 대추와 밤을 함께 담은 1접시, 팥떡 위에 북어 올린 것, 옥수, 산신노구메, 술 3잔, 촛대 2개가 올려진다. 2022년에는 법사가 참여하여 부정경과 산신경을 읽었는데, 이는 엄밀하게 보면 격식에 어울리지는 않는다. 안양지역의 굿이 강신무굿임을 고려하면 주무(主巫)가 참석하여 산신을 청배하고 산신의 말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산신께 인사 올리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인사 올리는 시간의 변경이다. 밝은 낮에 인사를 올리기보다는 산신제가 열리는 날 새벽에 정결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 인사를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신을 상징하는 산신대를 제단에 모셨다가 이를 수리산산신제가 열리는 병목안시민공원 안의 수리산산신제 제단으로 옮겨 모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리산 산신이 실제로 제단에 왕림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신께 인사 올리는 장소도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천지신명단은 수리산의 상징 공간으로 안양시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공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등산로 초입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산 산신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종택에서 좀 더 올라간 곳에 산신제단을 별도로 모시고 이곳에서 인사 올리기를 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다. 산신제례

수리산산신제는 산신제례부터 시작한다. 유교식으로 올리는 산신제례는 매우 의미가 있다.



유교식으로 올려지는 산신제례

하지만 무대 위에서 무당굿이 열리기 전, 밝은 낮에 산신제례를 올리는 것은 격식에 맞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산신께 인사 올리기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 수리산산신제를 모시기 전날 수리산 종턱에 올라 산신께 인사를 올리고 있는데, 이를 당일 새벽으로 시간을 옮겨 무속인들이 인사를 올린 후 유교식 제의를 함께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북구 우이동 삼각산도당제가 매우 소중한 사례가 된다. 삼각산도당제는 무당굿을 올리기 전날 안반고사를 거행하고 밤중에 다시 산신제를 올린다. 산신제는 유교식으로 진행하는데 제관 3인이 정성을 다해 올린다. 다음날 본격적인 무당굿이 열리면 산신제를 올릴 때 모셔둔 산신대를 굿청으로 옮겨 모셔 산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리산산신제도 이러한 흐름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 라. 기본 굿거리 구성

### 1) 주당물림

주당살을 물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무당은 장고를 앞에 놓고 앉고 또 다른 무당은 제금 손에 들고 옆에 앉는다. 모든 사람은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굿당이라면 모든 사람은 당 밖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수리산산신제가 거행되는 곳은 야외 공간이므로 일정한 거리만큼 물리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구나 무복을 하나씩 잡는다. 아니면 장고에 손을 얹기도 한다. 이렇게 해야 주당살이 사람에게 실리지 않는다고 한다. 무당은 땡땡 빈 장단을 올리고 제금이 함께 올린다.

### 2) 부정청배

무당은 장고를 앞에 놓고 앉아 자장단으로 신령 청배를 시작한다. 일정한 속도의 장구 장단에 맞추어 여러 신령들을 나열하고 그 신들이 굿판에 오기를 바란다. 부정청배가 진행되는 동안 악사들은 옆에서 조용히 대기하며 굿판의 분위기를 빠르게 감지하고 반주 준비를 시작한다.

부정청배에서 무당은 여러 신령들을 나열하다가 중간에 장고를 크게 울려 염을 짓는다. 일종의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되기도 하고, 굿판에 모셔지는 신령들의 종류가 달라질 때 이렇게 한다. 대략 40여 분 정도로 여러 신령들을 모신다.

모든 신령이 모셔지게 되면 무당은 빠른 장단으로 무가를 구송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리 준비한 잣물과 고춧가루물을 들은 무당이 빠르게 굿판을 씻어낸다. 물로 굿판을 정확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소지에 불을 붙여 역시 굿청을 둘러내어 굿판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보인다.

이와 같이 부정청배는 신들을 부르기 위해 굿판을 정확하는 거리이다.

### 3) 가망청배

무당은 앉아서 장구를 치며 청배한다. 가망은 근원신이고 조상신이므로 마땅히 불러 모셔야 한다. 가망이 들어옴으로 인해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다가 하나로 합일되면서 굿문이 열리고 만날 수 있다. 가망청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 다른 무당은 용왕을 모시러 출발한다.

가망청배는 장구 장단에 사설을 이어 부르면서 진행되는데 모든 가망이 다 청배되었으면 본향노랫가락을 부른다. 본향(本鄉)은 근원이고 고향이니 가망과 의미가 같다. 노랫가락은 신을 불러 모시면서 받드는 것이므로 이제 굿문이 열렸으니 어서 들어오시라는 뜻이다.

노랫가락이 끝나면 굿판에 참가한 여러 사람들이 신령상 앞에 나가 인사를 한다. 비로소 굿문이 열려 신들이 인간세계에 강림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릴 수 있다. 이 부분을 서울·경기의 개인굿에서는 '진적'이라 한다. 그런데 수리산산신제에서는 <진적>에서 인사를 올리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수리산산신제에서 본격적인 무당굿을 연행하기 전에 유교식 제의를 올리고 참석한 인사들을 소개한 후 말씀을 듣는 개회식이 식전행사로 있었기 때문이다. 식전행사에서 굿판에 참가한 여러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수리산산신제가 열리게 된 과정, 안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 등이 공지된다. 이는 새로운 모습이지만 과거의 전통을 온전하게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인사가 끝나게 되면 상산노랫가락을 부른다. 상산은 장군신이니 인물신의 으뜸이다. 이러한 장군신을 불러 모시는 것은 과거 무속의 흔적이다. 과거 무속에서는 장군을 불러 모시는 거리를 <대거리>라 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부정청배 및 가망청배

#### 4) 산신거리

산종이를 들고 사방을 다니면서 무당은 청배를 한다. 흥철력을 입고 머리에는 흥갓을 썼다. 팔도명산의 신령님들이 모두 들어오기를 청한다. 본향공수, 산신공수, 도당공수가 곧장 이어진다. 그리고 사술을 세운다. 신령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곳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산신거리〉는 〈산거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종이는 산의 모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근원을 쳐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도당신장을 모셔 공수를 주고 흥이 난 신장은 신장타령을 부른다. 삼지창과 월도(月刀)를 놓고 신장기를 들고 병거지를 쓰고 진행하는 도당신장은 신장기가 있어 사람들에게 기점을 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오방색의 기를 주고 하나씩 뽑게 하여 그 색을 보고 뽑은 사람의 길흉을 판단한다. 붉은색의 깃발이 가장 좋다. 신장 의대를 벗고 쾌자만 입고 부채를 들고 춤을 춘 다음 대감공수를 주고 대감타령을 부른다. 쾌자를 벗고 청치마를 입은 후 부채와 방울을 들고 노란 몽두리를 걸치고 대신공수를 준다. 대신타령을 불러 흥을 돋우고, 말명, 호구, 제장공수가 이어진다.

서울지역의 개인곳에서는 〈불사거리〉와 〈산신거리〉의 위치가 바뀌기도 한다. 서쪽은 산이 많아서 〈산신거리〉를 먼저 연행하고, 동쪽은 물이 가까워 〈불사거리〉를 먼저 연행한다고 하면서 동쪽곳과 서쪽곳이 매우 다름을 강조한다. 하지만 흐름으로 볼 때는 〈불사거리〉를 먼저 연행하고 〈산신거리〉를 하는 것이 어울린다. 하늘신을 맞은 후 지역신을 맞는 것이 도리에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리산산신제에서는 산신이 주신령이므로 〈산신거리〉를 먼저 연행한다. 대개의 경우 〈산신거리〉를 맡은 무속인을 가장 핵심적인 무속인으로 여긴다. 수리산산신제에서는 여러 무속인이 참가하고 있으며 각각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므로 핵심적인 무속인을 지칭하기는 어렵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 5) 불사거리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친 무당은 고깔을 쓰고 〈불사거리〉를 진행한다. 만수반이로 불사신을 청배한 후 공수를 준다. 공수에는 공식적인 공수와 개별 공수가 있다. 공식적인 공수는 자신이 어떤 신령인지를 밝히고 대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다음으로 칠성신을 모셔 공수를 듣고 바라를 받아 울리며 춤을 추다가 천왕중상공수를 준다. 이 부분에서는 중상타령이 이어지고 바라를 사라고 다니면서 시주를 받는다. 다음으로 산을 주는데, 장고는 잦은 장단을 치고 무당은 밤이나 대추가 담긴 접시를 들고 와 장구 위로 돌리면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부른다. 산을 줄 때 불사노랫가락을 부른다. 산을 주는 것은 일종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무당이 나누어 준 밤, 대추의 숫자가 짝수면 좋다고 여기고 홀수면 다시 준다. 당의를 입고 방울과 부채를 들고 장구 치는 사람과 호구만수반이를 하고 호구공수와 부인공수를 준다. 호구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화장품 값을 받은 후 너울을 벗어야 좋다고 하며 벗어준다. 공수를 추고 치마를 벗은 후 천궁신장과 천궁대감이 이어진다.

〈불사거리〉에는 12거리가 다 있다 할 정도로 다양한 신령들이 들어온다. 대개 무당들이 전 안에 모시는 신령님들을 다 쳐드는 거리가 〈불사거리〉이다. 요즘 서울·경기곳에서 볼 수 있는 선녀와 동자를 놀리는 것도 〈불사거리〉에서 이루어짐으로 〈불사거리〉는 모든 신령들을 받아들여 모시는 거리라 할 수 있다.





산신거리

(위 : 제8회 수리산 산신제/아래 : 제9회 수리산산신제)



불사거리



## 6) 가망·말명·대신거리

개인굿이라면 조상거리를 하기 전에 하는 거리이다. 수리산산신제는 개인굿이 아니므로 <조상거리>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가망과 대신을 모시는 정도이다. 가망종이를 들고 가망신을 청배한 후 가망공수를 준다. 그리고 그동안 수리산산신제에 관계하던 여러 무당들의 혼령을 불러 모시는 <대신거리>를, 수리산산신제에 왔던 여러 마을의 어른들을 모시는 <말명거리>를 진행한다.

## 7) 대안주거리

<장군거리>부터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를 묶어 <대안주거리>라 한다.

<장군거리>는 수리산산신제에서 가장 엄숙한 거리이다. 반염불과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장단에 맞추어 청철력을 걸친 무당은 사방으로 다니며 엄숙하게 춤을 추는데, 이는 거성춤이다. 장군님을 받들어 모시는 거리이다. 그리고 월도를 들어 상 위의 제물에 올려놓고 제물을 흥향(歆饗)한다. 그리고 최영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군신을 불러 모신 후 공수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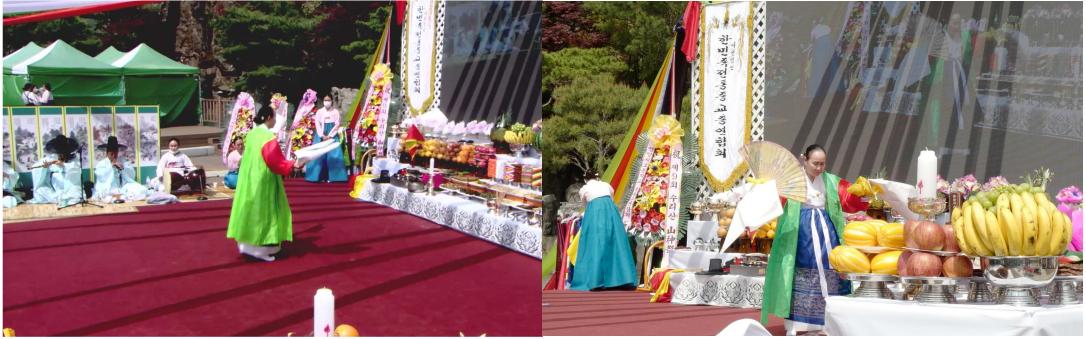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별상거리>이다. 미리 <장군거리>를 하기 전에 장군 의대 속에 별상 의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청철력을 벗으면서 바로 <별상거리>가 진행된다.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은 별상님을 잘 불러 모셔야 오늘 올리는 수리산산신제가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술을 세운다. 월도(月刀)만으로 사술을 세운 다음 삼지창에 준비한 육고기를 꿰어 세운다. 제대로 서게 되면 수리산산신제를 받는 신령님이 흡족하게 받아들였다고 여긴다.

사술을 세운 후 신장기를 들고 바로 <신장거리>를 진행한다. 앞서 나온 신장들이 천궁신장, 도당신장으로 하늘신 계통과 지역신 계통이라면 여기 나오는 신장은 인물신이다. 신장공수를 준 후 흥이 오르게 되면 신장타령을 부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방기를 뽑게 해서 뽑은 기의 색에 따라 맞는 공수를 준다.

이어 <대감거리>를 하는데, 여러 대감을 모시기 위해 만수받이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악장단에 맞춰 댄 후 곧장 대감공수를 주기도 한다. 안양에 거주하던 양반대감과 글문대감 등을 불러 모신다. 흥이 오르게 되면 대감타령을 부르기도 한다. 텃대감을 불러 모시기도 하고 안양에 거주하는 도깨비 대감을 모셔 익살스럽게 놀기도 한다. 텃대감을 모실 때에는 지게 위에 향아리를 짊어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흥을 돋운다. 지게에는 북어를 한 마리 꽂았다.

<대감거리>는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의 신명을 돋우는 거리이다. 무당은 족발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을 퍼주는 시늉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옷셔를 열어 복을 받는 시늉을 한다. <신장거리>를 거치면서 흥이 오르고 열린 마당이 된 <대감거리>는 한바탕 신명이 넘치는 거리이다.

다른 지역의 마을굿의 경우에는 대감거리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참가하고 별비(別備)를 쓰고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춘다. 수리산산신제에서 앞으로 보완하고 가장 신명나게 분위기를 돋아야 할 거리가 <대감거리>이다. 기왕이면 여러 명의 무당이 함께 나와 타령을 부르고 주민들에게 술잔을 권하면서 흥을 돋운다면 수리산산신제가 가진 축제적인 성격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망·말명·대신거리



대안주거리

## 8) 창부거리

창부의대를 입은 무당은 부채를 들고 창부만수받이를 한다. 그리고 공수를 준다. 이 창부신은 액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신령이다. 흥이 오르게 되면 창부타령을 부른다. 굿판에서 부르는 창부타령이 따로 독립된 것이 민요와 잡가의 창부타령이다.

〈창부거리〉는 굿판에 참가한 약사들을 위한 거리이기도 하다. 굿판에서 약사는 창부대신으로 불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 9) 계면거리

계면떡을 나누어 복을 청하는 거리이다.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일체감을 느끼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굿상에 차린 떡을 무당이 복을 부르면서 나누어 준다.

## 10) 뒷전거리

〈창부거리〉가 끝나게 되면 모든 굿거리가 다 끝난 셈이다. 무당들은 상을 헐어서 굿판에 온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과일과 떡 등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나누어 준다. 수리산산신제의 위대한 정신인 마을굿의 베품의 ‘노나멕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굿판의 정리에 들어간다. 상을 헐고 굿이 진행되면서 소용된 여러 물건을 정리한다. 무구를 비롯한 무복을 정리하여 가방에 넣고 약사들도 돌아갈 준비를 한다.

한쪽에서는 장구를 치는 무당과 북어를 손에 든 또 한 사람의 무당이 굿판에 오기는 왔으나,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여러 잡신들을 불러 먹이는 거리를 진행한다. 이것이 〈뒷전거리〉이다. 뒷전도 열두거리가 있다 할 정도로 격식을 갖추어 진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건으로 인해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 진행하지 않고 수비와 영산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기도 한다.

뒷전만수받이를 통해 여러 신들을 나열하고, 걸립, 터주대감, 지신, 장님, 맹인, 성황, 영산, 수비들을 불러 먹인다. 북어를 밖으로 던져 머리가 밖으로 향하면 굿판에 온 하위신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만족한다는 뜻으로 여긴다. 부정을 막기 위해 쓰고 남은 오색다리를 무당들이 서로 마주 잡고 찢는다. 뒷전은 대개 무당들만이 진행한다. 일반인들은 모두 돌아간 뒤다. 개인굿에서도 뒷전에 들어가기 전에 재가집에게 뒤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가라 한다.

수리산산신제는 이상의 굿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앞에 기술했듯이 수리산산신제에는 산신을 모시고 굿을 올리고 다시 산신을 보내드리는 굿거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삼각산 우이동도당제의 〈도당맞이〉와 〈도당배웅〉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도당맞이〉이다. 도당굿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도당신을 맞이하는 거리이다. 흥철력을 입고 갓을 쓴 무녀와 대잡이 두 사람이 제단 앞에 늘어선다. 대잡이 두 사람은 각각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맞이하는 사람들이다. 무녀





창부거리



계면거리



노나멕이와 뒷전거리

에게 감응이 있자 대잡이를 앞세우고 도당목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도당신을 맞으러 가는 것이다. 도당목 앞에 도착한 무녀는 산종이를 들고 도당목 돌레를 돈다. 그러다가 도당신이 내리자 마을 주민들에게 다가가 공수를 주기 시작한다. 도당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도당굿을 받으러 제단으로 갈 준비를 마쳤다. 다시 대잡이들을 앞세우고 제단 앞으로 이동한 무녀는 양손으로 대를 잡아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모셔왔음을 알린다. <도당맞이>와 <도당배웅>은 짝을 이룬다. 첫머리에서 도당을 맞아왔고 종반부에서 다시 도당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도당배웅>을 살펴본다. 굿이 끝나갈 무렵이면 도당을 도당목이 있는 곳으로 배웅할 차례이다. 흥철릭에 흥갓을 쓴 무녀는 대잡이 둘과 함께 대에 도당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후 출발한다. 굿이 진행되는 동안 술을 마시기도 한 대잡이를 부축해가면서 도당목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도당목 앞에 시루를 바치고 절을 한 후 대를 든 무녀는 마을 주민들에게 ‘한 해 동안 걱정하지 마라’는 공수를 내린다. 대는 도당목에 걸쳐놓고 다시 제단으로 내려온다. 제단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제단의 음식을 철상하고 굿을 끝낼 준비를 한다.

한편,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마을굿에서 군웅신을 매우 의미 있게 모신다. 군웅신령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으로 대부분 마을굿의 <군웅거리>에서는 활을 쏘아 액을 물리는 의미를 보여준다. 수리산산신제에서도 군웅신령을 모셔 액을 물리는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모든 굿거리가 진행되었다. 수리산산신제는 다양한 여러 연행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연행요소들이 모여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음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굿판의 여러 악기 중 가장 중요한 악기는 장구이다. 장구는 지휘자의 역할을 다하여 악사들을 리드한다. 장구를 치는 무당은 굿을 진행하는 무당의 사정에 가장 알맞은 속도와 음높이를 잡아준다. 악사들 중에는 피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굿거리를 진행하는 무당의 성량과 높이에 맞는 음을 바로 잡아 굿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 타령을 할 때 흥을 더 실감나게 돋우는 역할도 악사가 한다.





다음으로 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춤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수리산산신제의 춤은 방정맞지 않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흥겹게 만들어 준다. 이러한 경지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조(年條)가 필요하다. 발뒤꿈치를 움썽거릴 정도로 뛰는 것이 보기 좋다고 말하는 무속인도 있다. 쉬워 보이는 춤이지만 막상 해보게 되면 굿판의 신명을 복돋우면서 상황에 어울리게 춤을 추기가 쉽지 않다.

노래가 있어 굿판의 분위기를 돋운다. 신명이 난 신령은 타령을 불러 젖힌다. 신장타령, 대감타령, 대신타령, 창부타령 등을 불러 굿판에 신명이 넘치게 한다. 굿을 구경하는 관객들도 단순한 구경꾼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굿판의 연행에 참가하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준다. 엄숙하게 노랫가락을 불러 신령님을 청배한다. 장구와 악기의 화합 속에 울려 퍼지는 노랫가락은 수리산산신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굿인지를 알려 준다.

화려하고 다양한 무복의 활용, 부채와 방울을 중심으로 한 무구의 적절한 사용, 굿판을 풍성한 잔치 느낌이 나게 만들어 주는 각종 상차림 등은 이러한 수리산산신제를 대동의식이 넘치게 한다.

이러한 여러 요소가 결합한 가운데 무당은 자신이 가진 신기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때로는 엄숙하게,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가장 흥겹게 굿판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면서 수리산산신제는 점점 무르익어 가는 것이다. 굿판에 참가한 관객들도 매우 중요한 연행요소이다. 만약 굿을 봐주는 관객이 없다면 그 굿은 의미 없는 굿이다.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음으로 인해 수리산산신제는 안양시 전체의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마. 확장 굿거리

### 1) 작두거리

작두를 타서 액을 물리는 거리이다. 수리산산신제에서는 열두용작두를 특별히 설치하여 작두를 탄다. 안양시민들의 복을 기원하고 대동의식을 고취시키는 거리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 수리산산신제뿐만 아닌 지역행사에서도 연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작두거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곳거리는 아니었다. 마을 곳에서는 굳이 작두를 타서 신령의 영험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대동익식을 고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다고 하여 <작두거리>가 현재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확장 곳거리로 신령의 영험함을 드러내고 안양시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작두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곳이 연행되는 마당의 양쪽에 3m 정도 되는 승전기(勝戰旗)를 세우고, 그 사이에 칠성단(七星壇)을 쌓아 놓는다. 칠성단의 맨 밑에는 드럼통을 놓고 그 위에 안반, 밥상, 송판, 물동이, 양철로 만든 양푼의 순서로 놓는다. 신입 무당이 작두를 타기 전에 신어머니가 되는 무당은 신입 무당에게 작두 어르는 법을 일일이 보여 준다. 즉 작두를 들고 춤을 추다가 날카롭게 날이 선 작두날로 자기의 팔이나 다리 등을 자르는 시늉을 해 보인다. 그러면 신입 무당은 신어머니가 되는 무당으로부터 작두를 받아 작두를 어르고 휘두르면서 동서남북과 중앙에 놓여 있는 오방신장(五方神將)을 놀린다. 신입 무당의 작두 어르기가 끝나면 다른 무당이 바라를 들고 시루를 걸으면서 염불타령조로 노래를 부른다. 그러는 사이에 신입 무당은 두 개의 작두날을 재빨리 칠성단 위에 올려놓고 고정시킨다. 이어 신입 무당은 빠른 무악장단에 맞춰 춤을 추다가 신이 오르면 작두날 위로 뛰어오른 후 칼을 휘두른다. 그리고 장군이 싸우는 시늉을 한 뒤 사람들에게 공수를 준다. 이런 식으로 신입 무당은 작두 위에서 모든 신을 받고 놀리고 전승한다. 이것이 끝나면 신입 무당은 아래로 내려와 오방신장기(五方神將旗)를 들고 춤을 추다가 곳판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기점(旗占)을 뽑게 한다<sup>25)</sup>.

수리산산신제 <작두거리>는 이를 다양하게 확장한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작두를 타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이를 통해 수리산산신제의 영험함을 높이는 것이다.

## 2) 길가름

한국의 여러 곳판, 특히 망자천도곳에는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다양한 의식이 있다. 서울의 진오기곳, 호남의 씻김곳, 동해안의 오구곳 등에는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망자가 곳판에 들어와 남은 가족들을 만나고 그 길을 따라 이제 다시 저승으로 떠나간다. 이번에 떠나가는 저승길은, 가족을 만나 한을 풀고,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여정이다. 이승에 남은 가족들은 저승으로 떠나가는 망자를 배웅하며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한다. 망자가 떠나가는 길은 소창으로 만든 길이다. 흰색의 소창이 길게 펼쳐져 이승의 '삶의 길'이 저승의 '죽음의 길'로 이어져 있다. 무당은

25) 최원오, 「작두장군」, 『한국민속신앙대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5.

그 길을 따라 망자를 보낸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어진 길. 그 길을 눈으로 실제 볼 수 있어서 살아남은 이들은 삶과 죽음이 갈라섬을 느낀다.

소창으로 만든 길은 의미심장하다. 성글게 짠 소창은 값이 헐한 천으로, 한국의 곳에 요긴하게 사용된다. 명주나 비단과 같은 고급 천이 아니라 소창으로 만든 길은 우리 삶과 죽음이 성글게 이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살아 부귀영화를 누렸거나, 허름한 골목에서 가난하게 살았거나, 모두 동등하게 소창이 만든 길을 따라 저승으로 간다. 이승에 남은 가족들은 서럽게 울면서 노잣돈을 올려 망자를 배웅한다. 무당을 따라, 또는 영혼을 싣고 간다고 여기는 무구인 냇당석에 실려 망자는 소창의 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떠나간다.

이렇게 소창으로 만든 저승길을 ‘다리’라 부른다. 무당들은 굿판에서 소창을 잘라 다리를 만들며 굿을 준비한다. 다리는 이중적이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한 번 건너가면 다시 건너오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의 의미도 있다. 흰색 소창을 길게 펼쳐 다리와 길을 눈앞에 재현하였다. 길게 펼쳐진 소창의 양 끝을 굿판의 사람들은 번쩍 들어 이승에서 저승으로의 다리와 길을 형상화하였고, 그 길을 따라, 그 다리를 건너 망자는 영원의 길을 간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다리를 건너가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

서울·경기 지역의 진오기굿에서는 무당이 몸으로 소창길을 가르며 앞으로 나간다. 온몸으로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것이다. 특히 ‘이승다리’, ‘저승다리’라고 하여 소창과 삼베로 만든 길을 두 번 헤치고 나간다. 흰색의 소창과 흐린 색의 삼베는 서로 대비된다. 밝았던 이승의 삶을 마무리하고, 어두운 저승의 길로 나간다는 의미이다.

소창으로 만든 다리는 이승다리인데, 이를 맑은 다리라고도 한다. 무당은 ‘아무 망자 극락 세계 연화대로 가소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원왕생 원왕생 나무아미타불<sup>26)</sup>’이라고 하면서 맑은 다리 밑에서 바라를 들고 두 팔을 올려 맑은 다리를 좌우로 휘저으며 앞으로 나간다. 뒤로 돌아온 무당은 바라를 눕혀 든 채 허리로 베를 갈라 앞으로 나가 망자를 저승으로 보낸다. 맑은 다리를 다 가를 때까지 ‘원왕생 원왕생 나무아미타불’을 반복 염송한다.

삼베로 만든 저승다리는 흐린 다리라고도 하는데, 맑은 다리와 같은 방식으로 갈라 나간다. 다만 제금이 아니라 대신칼을 드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두 차례 다리를 갈라 망자를 온전하게 저승으로 보낸다. 사람들은 노잣돈을 놓거나 굿상에 올렸던 질빵<sup>상차림</sup> 음식의 하나, 모양이 질빵을 닮았다<sup>다</sup>이나 쌀을 올려 저승 가는 길에 망자가 굶지 말라고 기원한다.

호남의 씻김굿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 과거에는 무명으로 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소창으로도 길을 만든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이어서 이 천을 ‘질베’라고 한다. 대개 집 안에 있는 마루에서 집 밖인 마당으로 질베를 길게 펴고 냇당석<sup>신광주리라고도 한다</sup>을 그 위에 얹어놓고 무가를 부르면서 앞으로 천천히 밀고 나간다. 서울의 강신무들이 몸으로 찢어가는 것과 달리 호남의 세습무들은 냇당석으로 길을 닦아나간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를 일러 ‘베 가르기’라 하고 호남에서는 ‘길닦음’이라 한다. 서울의 무당들이 저승 가는 길을 가르다면 호

26) 이상순, 『서울 새남굿 신가집』, 민속원, 2011, 571-572쪽,



남의 단골들은 저승 가는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가르는 것이나 닦는 것이나 저승가는 것은 매일반이다. 호남의 단골들은 중모리 장단에 맞춰 염불을 부른다.

되야를 가시오 되야를 가시오  
환생하여서 되야를 갈 적  
천상옥형 요대상에 오만신선이나 되야 가시고  
금강산 높은 봉에 금수비운님이 되야 가시고  
남자가 되야서 가실라고 허거든 우리나라 왕후장수나 되야 가시고  
여자가 되야서 가길라고 허거든 정절부인 수절부인이 되야 가시며<sup>27)</sup>

이러한 양상은 황해도굿이나 동해안굿에서도 발견된다. 황해도 채수굿 〈조상거리〉에서 만신은 만세반이장단에 맞춰 선대 조상들을 부른다.

훈이로다 녀이로다 무주공천에 삼훈훈령  
가리로다 가리로다 만조상님께 차례로다  
먼저 가신 구조상님 나중 가신 신망재님  
훈이야 녀이야 땡겨갈 때  
썩은 손목 마주 잡고 헛튼 머리 집어 엮고  
헌 짚신은 등에 메고 검은나 갖은 숙여 쓰고  
살은 썩어 물이 되고 뼈는 썩어 진토 하여 훈이야 녀이야 오실 적에<sup>28)</sup>

그런 다음에 이승다리, 저승다리를 조상 성씨마다 다르게 갈라 나간다.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천천히 부르면서 앞으로 몸으로 밀고 나간다. 황해도굿 산수왕굿에서는 〈수왕제석거리〉에서 소창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다.

이처럼 한국 무당굿에서 소창은 다리와 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두 망자천도굿에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소창을 길게 펼쳐 길을 형상화하고 있는 점에서, 소창을 비롯한 모든 천이 활용될 수 있어 과거에는 소창 대신 여러 종류의 천이 사용되었다. 소창은 성글게 짜인 것이어서 몸으로 갈라 앞으로 나가기 용이한 것도 이러한 활용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b>이승</b> 목숨, 삶의 매듭	→ 가는 길 ← 오는 길	<b>길, 다리</b>	→ 가는 길 ← 오는 길	<b>저승</b> 사자의 표식
------------------------	------------------------	--------------	------------------------	---------------------

### 길가름의 의미

27) 이경엽, 『씻김굿 무가』, 박이정, 2000, 300쪽.

28) 김혜숙, 『황해도 만신 김혜숙의 문서』, 민속원, 2018, 147쪽.

### 3) 군웅거리

〈군웅거리〉는 대수대명(代壽代命), 인신대명으로 돼지와 닭을 잡아서 대주의 사전에 안 좋은 살을 방지하는 굿거리이다. 피를 흘리거나 다치는 살을 미리 방지하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로 피를 본 식구들을 위해 피를 흘려서 군웅을 벗겨내는 것이 목적이다. 요즘에는 안 좋게 가신 조상들을 피군웅으로 씻겨낼 목적으로 많이 한다. 과거에는 산돼지를 어르고 만신이 직접 잡았는데,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라도 도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산돼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군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웅을 한자식으로 ‘軍雄’ 내지는 ‘群雄’으로 풀이하는데, 아마도 장군신으로 군웅의 성격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웅이 장군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판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용어가 그러하듯이 한자로 이름을 풀이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sup>29)</sup>. 『무당내력』을 보아도 군웅을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 ‘구릉’이라고 한글로 적었다<sup>30)</sup>. 『무당내력』의 여러 굿거리 명칭이 모두 한자로 표기되어 있지만, 유독 구릉만큼은 한글로 적었다. 이는 군웅이 한자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軍雄으로 풀어내는 것에 의문이 간다. 서울 지역의 노무당들은 ‘구능’이라고 부른다. 재차 확인해도 틀림없이 ‘구능’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군웅(구능, 구릉)의 성격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액을 물리치는 성격을 가진 신임은 분명하다. 동해안에서는 군웅을 망자가 극락을 가는 데 수호하는 역할을 하거나 산 자들의 액막음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무당내력』에도 구릉의 성격을 수호신으로 보았다. 사신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무녀가 구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백지에 돈을 써서 앞길에 귀신들을 물렸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 마을굿에서 군웅신을 모시는 〈군웅거리〉가 있는데, 이때 군웅신은 사방에 화살을 살려 마을의 액을 물리는 시늉을 한다. 황해도굿에서도 〈군웅거리〉를 진행한다. 이때에는 억울하게 죽은 조상의 혼령을 풀어먹이는 것이라 하여 매우 거창하고 살벌하게 굿거리를 진행한다. 군웅을 제대로 풀어먹여야 앞날의 장애가 사라진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수리산산신제에서 군웅을 푸는 것은 안양시와 관련 있는 여러 억울한 죽음을 풀어내는 의미가 있다. 비록 현대적인 변화를 보이는 굿거리이지만 확장 굿거리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

29) 예를 들어 가망을 한자 ‘感應’의 와음(訛音)으로 보았지만,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감응과는 관련이 없다. 가망은 조상 또는 근원을 의미하는 신령이기 때문이다. 부정 또한 한자 ‘不淨’으로 보는 데에도 이견이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부정신을 청배하는 〈부정거리〉가 별도로 있었고, 부정청배의 내용이 깨끗하게 정화하는 측면보다는 여러 신령을 굿판에 불러 모시는 것이 주되기 때문이다. 정작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여러 신령을 불러 모신 다음에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데에 매우 짧은 시간이다.

30) 흥태한 외, 『무당내력류 그림 툇아 읽기』, 민속원, 2021, 참조.



작두거리



길가름



군용거리



## 바. 공연물들

수리산산신제는 안양의 마을굿이자 축제이다. 그래서 무당굿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안양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다양한 공연물을 무대에 올린다. 무용, 음악, 국악 등은 모두 안양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이를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치를 인정받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길놀이>의 의미는 각별하다. 황해도굿이 열리는 서해안의 여러 포구에서는 굿이 열리기 전 마을 곳곳을 돌며 복을 나눠주는 <세경돌기>를 한다. 이것은 이날 굿이 열림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장치이기도 하다. <세경돌기>를 통해 마을 곳곳이 축제화 된 마을굿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서울·경기굿에서는 이를 일러 <유가돌기>라고 한다. 역시 마을굿이 열림을 널리 알리면서 복을 나눠주는 의미가 있다. 수리산산신제에서도 <길놀이>를 행한다. 명칭은 다소 농약 중심이다. 마땅히 <유가돌기>라고 칭하면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길놀이



# 수리산 산신제

---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

## IV. 수리산산신제의 연행 요소

1. 수리산산신제의 무가
  2. 수리산산신제의 무복
  3. 수리산산신제의 무구
  4. 수리산산신제의 상차림
  5. 수리산산신제의 장단
  6. 수리산산신제의 춤
-

## IV. 수리산산신제의 연행 요소

### 1. 수리산산신제의 무가

#### 가. 주당물림

특정한 무가가 따로 없다. 주당은 일명 ‘추당’이라 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것을 가리킨다. 이사, 회갑, 혼인, 하관, 안장 시에도 주당이 있다고 하며 모두 주당을 꺼려한다. 곳에도 주당이 있어 그곳에 닿는 것을 피한다. 전물(굿상)을 차리고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장구, 제금을 울려 당울림을 하여 주당을 물린다.

주당에는 모두 아홉이 있는데, 우물, 대문, 처마, 변소, 마구간, 부엌, 마루, 방, 굴뚝이 그것이다. 가령 초하루, 열하루, 스무하루 날은 우물가를 피하고, 초이틀, 열이틀, 스무이틀에는 대문, 중문, 방문가를 피하고, 초삼일, 열사흘, 스무사흘은 변소를 피하고, 초닷새, 열닷새, 스무닷새는 짐승 기르는 곳을 피하고, 초엿새, 열엿새, 스무엿새 날은 부엌을 피하고,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날은 대청을 피하고, 초여드레, 열여드레, 스무여드레날은 모든 방안을 피하고, 초아흐레, 열아흐레, 스무아흐레 날은 굴뚝을 피하고, 열흘, 스무날, 그믐날은 주당이 공중으로 흩어진다고 생각한다.

## 나. 부정청배

영정가망은 부정가망 시위들 하소사 안양주민 가중이요  
조라두 영정에 전물두 부정이요  
벌높은 처소에 수많은 인간이여  
각인각성이고 열에는 열명이요 드나든 영정에  
날리도 부정이요 몸담어 보든 부정  
살담어 보든 부정 해산에 피부정 산이실 영정에  
거리노청 객사도 부정이요  
이웃 근방안에 소잡어 우마부정 말잡어 대마부정  
상마루 영정에 산에 올라 산너구리 들로 나리어 들너구리  
마당너구리 땅너구리 꽃방기 장방기 지사도 반기로다  
고사도 반기 날짐승 날버러지 살생도 영정이요  
마루 넘어오는 부정 재넘어 오는 부정  
눈으로 본 부정 귀로 듣던 부정  
열부정 뜬 부정 물부정 불부정 선후부정이랑  
다 저쳐 주소사  
미천한 인간들이 천신기도 대감 전물 왕래 영정  
시위를 하소사 재산동반이여 즐기 명천  
상단에 중단 호구 상하당 서인호구 배옥남산 불사호구  
열두 대신에 기자호구 두 대신님은 서자 호구  
물 건너 하주당에 매달왕신은 사날호구  
왕십리 수풀당 열네애기 당자호구  
두 대신님은 서자호구 동과남 남과남 정전은 내전호구  
내전정전 호구 사해용신호구 도당호구 살흥호구  
시위들 하소사 ○○년으로는 ○○날 공사온데  
사옴는 거주지점으로 해동조선국에  
우부장네는 나라터전 안양시지점에 사옴는데  
성명존으로는 안양주민 가중이요  
안양주민 양위부처상 남자손을 엉거느려 살아가옴는데  
부모님 선세부터 부리유궁하고 산에 가득하야



양산번양이 뚜렷하고 꽃이 되면은 꽃맞이요  
 사과 진상을 춘추로 양등에 우춘하는 가중인데  
 안양주민에 기주님이 햇곡이 우거지고 신곡이 좌천하고  
 산국화 만발하고 들국화 봉지 그냥 있기가 죄만하여  
 나에 생기는 여에 복덕 주역에 날을 골라 월천강시를 골라  
 생기복덕을 이중천이 사마절체를 가려  
 타강문전에 황토배설하고 중문전 송침 배설하고  
 나갈세라 들어올세라 청한 인간이 나갈서라  
 공중에 배설하고 불사님 대위하고 햅곡맞이 신곡자랑  
 겹사 많은 정성 유렴 많은 정성 부모자손은랑  
 시절이 험난하고 해운이 불길해도  
 부모자손에 험한 일 저쳐주고 악한 일 물려주고  
 인명에 갈축 없고 재물에 손재 없구  
 안양주민 대주님이 천장사 판영업  
 앓은 동무는 장사에 두폐영정에 시위백락 하드래도  
 밤안에 먹은 대로 뜻에 먹는 대로 기구에 서린대로  
 관제귀설 없고 모략 중상 없고 부인전 꽃이 되주 하인전 잎이 돼서  
 부모자손을랑 꽃이 없고 서서 동발 없이 점지를 하소사  
 사회 삼당불사 궁리제당불사 육천 전안불사  
 그 연상신불사 조비 조상불사 안양주민 불사님  
 안양주민편 불사님 옥황천존님과 사회 천존은 무악천존 옥천대사님과  
 과천 관악산에 염불암 염주대 석가여래는 나님불사  
 척간불사님과 안양주민 불사님 안양주민 불사님과  
 안양시 지점에 토랑불사 살흥불사님과 새해루 용신불사  
 이 정성 드릴라고 안양주민 기주님이 생기복덕  
 이중천이 사마절체를 저쳐주시고 문전에 황토배설하고  
 중문전 송침 배설하야 드런 인간이 들어올세라  
 정한 인간이 나갈서라 공중에 배설하고  
 맞인 독자는 양독자요 불사맞이는 천존맞이  
 사해 용신맞이 홍수변에 셋별맞이 우춘하고도 다령허니  
 이 정성 받으시고 부모자손 세 식구가 낮 일곱량 불을 밝히고  
 밤 일곱시랑 불을 밝혀 물과 불과는 수하천명 갖춰 밝혀  
 으백미 한이 갔고 장유수 물결 같고  
 우복팔복은 두량대복 자손창성하고  
 시절이 험난하고 해운이 불길해도

험한 일 저쳐주고 악한 일 물려주고  
 맘에 먹은 대로 뜻 안에 먹은 데로 기구에 서린 대로  
 심중 소원대로 일일이 성불하고 가지가지가 발복하게  
 점지를 하시고 안으로 인사냥과 밖으로 천식물 도덕벌레  
 화재보새 관재귀설도 저쳐주고 앞설 대학도 물리여서  
 점지를 하소사 사해로 삼랑말명 궁리제랑말명 육천전안 말명  
 그 연은 상산말명 궁리제랑말명 육천 전안 말명  
 그 연은 상산말명 조비조상말명 안양주민 양두편 선대다러  
 할머니 할아버지 내위말명 이대봉실은 양위 말명  
 아버지 업제장 어머니 복말명에 동기 일신 청춘말명  
 삼사춘 가든 말명 오류춘 가든 말명 칠발춘 가든 말명  
 가문 안에 들든 말명 가문 밖에 나든 말명  
 만조상님을 오시라고 청배하고 가시라고 배웅하니  
 올릴반 열두반 나릴반 열두반에 나비얏은 꽃반 받고  
 새 얏은 앞반 받아 당산놀이하고 공산에 좌정하야  
 한잔 술에 다가 열시물이 희망하고  
 오시는 길에다 명을 주고 가시는 길에다 복을 줘서  
 우복팔복 무량대복 자손 창성하고 부귀공명하고  
 판대유전하고 백대창성허게 점지를 하소사  
 사회 삼랑대 궁리제랑대감 육천점안 대감  
 그연 상산대감 조비조상대감 안양주민 가중에 조상대감  
 벼슬 대감님 양반대감님과 안양주민 대주님 몸주대감  
 안양주민 기주님 직성대감 상남 자손은 몸주대감  
 영업대감님과 안양시지점 도당대감 살흥대감 부군대감님과  
 터왕 텃대감님 앞문 뒷문에 서준대감  
 이담 저담은 넘든 대감 광지기 참봉대감  
 산나무 지점대감 죽은 나무 목신대감  
 이담 저담은 왕래대감 대감님 수위해서  
 안양주민 가중에 마음 안에 먹는 대로 뜻 안에 먹는 대로  
 기주에 서린 대로 재수 열어 주고 먹을 전 입을 전 늘어주고  
 험한 일 저쳐주고 악한 일 물리여서 점지를 하소사  
 업성주 마누라 복성주 마누라요  
 와가 성주는 대가성주 초년 성주는 스물일곱  
 인연 성주는 서른일곱 와가 성주는 마흔일곱  
 대가 성주는 쉰일곱에 환갑성주는 예순하나

토성주는 일흔일곱 성주가 심란하면 대주님이 심란하고  
 자신이 발동하여 기주가 심란하고  
 안량이 덧나면 슬하 자손이 심란하니  
 성주님 그늘 아래 부모자손 낮 일곱시 불을 밝혀  
 밤 일곱시당에 불을 밝혀 불과 물과는 수하천명 갖춰 밝혀  
 어백미 한미 갖고 장유수 물결 같고 우복팔복은 무량대복  
 자손 창성하고 부귀 공명하고 만대 유전하고  
 백대 창성하고 내우야 제산으로  
 사회 삼랑 창부 궁리제랑 창부 육천전안 창부  
 안산광대는 발산 책겨 오늘 안양주민 대주 여린 창부  
 안양주민 기주는 직성창부 상남자손은 여린창부  
 만 인간에는 여린 창부 ○○년 열석 달 홍수창부  
 부모자손에 산진홍수도 저쳐주고 수진홍수도 저쳐주고  
 내우에 이별홍수 자손에 동발홍수 손 끝에 식물홍수  
 거리에 낙마홍수 화재홍수는 물 홍수 불홍수요  
 삼재 팔란도 저쳐주고 드는 삼재는 명삼재요  
 묵는 삼재는 복삼재고 나는 삼재는 삼재팔란  
 일년 열두달 ○년은 열석달에 다달이 이르는 홍수  
 나날이 드는 홍수 빨래같이 널린 홍수  
 바다같이 넓은 홍수 모래같이 깔린 홍수  
 홍수대학을 막다가 우주월강에 소멸하고  
 사회삼당 맹인 궁리제당 맹인 그연상산 맹인  
 전안맹인 신장맹인 조상맹인  
 안양주민 가중에 부모자손에 삼석삼 없고  
 마른안질 진안질 다르다가 방울 같고 어리 색경같고  
 부모자손 눈다락지 좀 다락지 연다락지 삼눈 없이 다구나  
 방울 같고 어리 색경 같이 점지를 하시고  
 안양주민 대주님 상없이 번성하고 상업이 늘어나고  
 점지를 하소사 사회 삼당서낭 궁리제당 서낭  
 외국서낭은 타국서낭 중국서낭 사신서낭  
 안양주민 가중에서 높은 추녀는 얇은 하방 만지고 다른 서낭  
 다루고 만진 서낭 헛 집이 새 재목 새 집에 헛 재목에  
 무 장롱 목신서낭 흙을 다뤄 돌을 다뤄 석신서낭  
 인간 들어서 인서낭 동법동티도 물려주고  
 이 정성 받으시고 신사삼년 곱게 나고

신사 석 달이 무궁하게 점지를 하소사  
 눈 큰놈 저쳐주고 발 큰놈 물려주고  
 험란한 일 악한 일 다 저쳐 주소사  
 사회 삼낭 영산 궁리제당 영산 천전안영산  
 안양주민 편 가든 영산 말러시들어 가든 영산  
 암병에 가든 영산 나구가구 배구가고 거적자리 옆에 끼고  
 하탈영산은 원훈영산 안양주민 가든 영산  
 꿈에 몽에 비긴 영산 재수에 하리를 무리를 영산들과  
 산에 올라 호영산요 들로 나리어 객사영산  
 물에 빠져 수살영산 만경청파는 뜬 영산에  
 조미 조상영산 뒤로 뒷전에 고픈 배 불러가고 마른 목 적시여서  
 우주 월강에 소면하고 외상문 내상문 진상문 후상문  
 눈으로 보든 상문 귀로 듣는 상문  
 철 목은 상문들과 달 목은 상문을 날 목은 상문들  
 안양주민 가중에서 안방 메기 범한 상문  
 건너방 메기에 범한 상문 뒷방 메기에 범한 상문  
 마루대청에 범한 상문 주왕메기에 범한 상문  
 오방지신이 나오시고 마당메기에 범한 상문  
 수문장 각시가 내모시고 눈으로 보던 상문  
 귀로 듣던 상문 철 목은 상문들 달 목은 상문들  
 외상문 내상문 신상문 구상문에  
 눈으로 보든 상문 귀로 듣던 상문 걸린 상문  
 철 목은 상문들과 달 목은 상문들  
 꿈에 몽에 비상문 다 저쳐 주소사  
 안산 여덟이요 발산 대국이요 동서 모이신 영정들을랑  
 물리소사 부정들을랑은 대활이 영정  
 영정가망 놀아나오 부정가망 놀아나오

열부정 놀아나오  
 뜬부정 놀아나오  
 들리영정 놀아나오  
 날리부정 놀아나오  
 흐린 재물 들러내어  
 맑은 청수들러다가  
 소지 삼장 받아다가소서

당당 놀아나소사 수리산산신제

#### 다. 가망청배

초가망 이가망 상가망 조라 전물가망  
맑게 높아서 오신 가망 설게 받아서 오신 가망  
맑게 설게시오 조선말명이요 물에 능석에  
걷는 말 석술 잡고 달는 말 체를 제거 서겨오시라  
만신에 대신가망  
육천육번양에 양산은 번양가망  
내우제산으로 미천한 인간들이 양산은 번양가망  
내우제산으로 미천한 인간들이 대감 천신기도  
대감 전물기도 왕래가망 시위들 하소사  
햇상년 년으로는 ○○년 해운에 달색존이로는  
물 얻어 금동지달 날루 공사로는 ○○날 공사옴고  
사옴는 거주지점 해동 조선국에 우부장네는  
나라터전 안양시지점에 사옴는데  
성명존이로는 안양주민 가중이요 안양주민에도 양우에 부처  
상남자손을 엉겨늘여 살아 가옴는데  
부모님 선세부터 부리유궁하고 신에 가득하야  
양산 번양이 뚜렷하고 꽃이 피면은 꽃맞이요  
잎이 피면은 잎맞이요 진달래 화전맞이 해밀천신  
사과진상 춘추양동을 대우하시고 바라지 않는 가중  
않는 가중 이 정성 햅곡이 무거지고 신곡이 좌천하여  
산국화 만발하고 들국화 봉지지어  
그냥 있기가 죄만해서 안양주민 기주님이  
남에 생기는 여에 복덕 주역에 날을 골라  
월천강 시를 골라 생기복덕 이중천이 사마절체를 가려다가  
불사님 대위하고 만조상님을 우촌하고 대감님도 대위하니  
이 정성 받으시고 부모자손을 앓아 걱정 없고 서서동발 없고  
험한 일 저쳐주고 악한일 물리여서 도덕벌레 저쳐주고  
화재를 저쳐주고 도와주고 시냇 삼년이 편안하고  
신사 석달이 무구하게 점지를 하소사  
내우야 재산으로 공수하시든 천신기도 대감전물 왕래감아  
시위들 하소사 대함제석은 쟈 제석요 제불제천은 천지건곤

일월요량은 황사제불 불사제석님과  
 안양주민 ○씨편 ○씨편 양두편 안에 안당 어구 전동  
 그레제석 박항아리 용양제석 삼신천왕은 서준제석  
 석사 세치는 후대제석 자세치 꽃갈제석  
 이 정성 안양주민 기주님이 산구고하 만발하고  
 들국화가 봉지지여 햇곡이 우거지고  
 산곡이 좌천하니 산이삭 끝을 골라 모진등을 들쳐나고  
 삼년 세력 정성 명발원 정성이고 복발원 정성에  
 수발원 정성이니 부모자손을 앓아 걱정 없고  
 서서동발 없고 안으로 인사냥 물려주고  
 밖으로 천식물 다 저쳐주시고 낮 일곱시 물을 맑에  
 밤 일곱시 불을 밝혀 물과 불과는 수화천명 갖춰 밝혀  
 으백미 하미 갔고 장유수 물결 갔고 우복팔복은 무량대복  
 자손 창성하고 점지를 하소사 사회로 삼당말명 공리제당말명  
 육천 전안 말명 그 연 상산 말명  
 안양주민편 선대다려 할머니 할아버지 내위말명  
 이대봉실은 야우이말명 아버지 업제장 어머니 복말명  
 삼사춘 가든귀로 듣던 상문 철 묵은 말명 오륙춘 가든 말명 가문 밖 나든 말명  
 만조상님 오시라고 청배하고 가시라고 배웅하니  
 열두반 나릴반 열두반에 나비 앓은 꽃반 받고  
 새 앓은 잎반 받고 단상놀이하고 공상 좌창하야  
 한잔 술에다가 열시물이 희망하야  
 오시는 길에다 명을 주고 가시는 길에다 복을 줘서  
 자른 명 이어주고 긴 명은 서려 담어  
 신사삼년이 편안하고 신사석담이 무구하게  
 점지를 하소사 정성 덕을 입혀주소사  
 황국덕을 입혀주소사 마누라 지을 상덕을 입혀주소사

〈본향 노랫가락〉

천리소 하오 번양 양산이 산에 올라  
 그 염두 단식이요 부귀 설상에 돌아드니  
 설상에 매화진 꽃이 나비 보듯

번양 양산이 오시는 길에 가야골로 다릴 놓고

가야금 열두 줄에 오는 줄마다 내려 오소  
줄 아래 덩기덩 소리 노나라고

변양 양산이 잡으신 잔에  
사유신 잔마당으로 이슬 맺혀  
그 잔두 조잔 요나 지성이라 쌍비오리 시웁는 잔이

인에 하위랑 허소니라 안양주민 식구가 변양하위  
인조차 하외요나 양산변양이 하외요나  
마누라 변양하외를 하외보듯

천만년수를 빌러를 왔오 안양주민네 식구가  
만년 수천 년 수에 수를 비시고  
만수무강에 복을 빌어 삼천 년 한오백하니 자손창성

재수소망을 생재를 주오 안양주민 내위가 외방소망  
외방에도 소망요나 성안성 밖에 재수요나  
아두에 흘려진 천량 다 생길가

가내 진중을 안유를 하오 안양주민에 세 식구 내위명산  
방에도 영산요사 내위 명당을 살파라고  
마누라 안사 진등을 다 살필가

맺든 맘을랑 물어를 주오 양산 변양이 감석듯 삼석듯 나리요나  
가마져 우신 별전요나 백만사 풀어보시며 대활인가

정성 덕을랑 입소 맞이요 부모 자손이 황복덕 정성에도 덕이요다  
황국 지성에 덕이요나 마누라 지월상덕을 다 입힐소사

## 라. 진작

〈장군노래가락〉

산간대 그늘이 져소 용 가신대 수이로다  
수이라 깊소건만 모래 위에 수이로다

마누라 영검 수이를 다했는가

넙선 장군 오시는 길에 비수창금 다릴 났소  
등으로는 널다하시고 날누마니 서계신가  
줄 아래 덩기덩 소리 노닐라고

넙선장군 잡으신 잔에 황소주로 이슬 맺혀  
이 잔과 저 잔을 지성이라고 쌍배 올까  
일광에 시없는 잔을 쓰시라고

국만은 국이련만 재재마다 절리로다  
시절은 시절이요나 넙선 장군님 시절요나  
송문에 오동잎하니 갈 길 몰라

넙선장군 쓰시든 칼은 연열석에 들개 갈어  
장부에 입신양명이 이 아니 좋을소냐  
마누라 영검수이를 다 입힐까

넙선장군 타시든 말을 두만강수에 굵씩켜 매고  
석술 잡고 구비보니 어렵구나 올라래도  
이 말아 놀라지 마라 그늘 주어

어이 해서 못 오시나 무삼 연고로 못 오시나  
하운이 다기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시나  
춘수는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시나

나비아 봄나비아 얼송덜송 호랑나비  
네 곳은 어떻게 학에 머리에 돌아드뇨  
우리도 설떼가 달나서 창금 끝테

## 마. 산신거리

〈본향공수〉

어허 구자 안양주민 ○씨 양위 아니시리



고향산천 산신할아버지 산신할머니 아니시리  
산신 토신 후토신령 아니시리  
안양주민 양위의 ○남매자손 아니시리  
고향산천을 등을 지고  
안양동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안양주민 양위가 아니신가  
본향은 양산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리를 굽으시고 만리를 살피어서 도와주시마  
(일하는 곳 신령 처들고 공수 준다.)

〈산신공수〉

팔도명산 산신령님 아니시리  
상산은 삼각산 신령님 인왕산 신령님  
인수봉 신령님 도봉산 신령님 금강산 신령님  
나남산 신령님 파평산 신령님 남한산성 신령님  
오대산 신령님 영천군웅 거북산 신령님  
감악산은 빗돌대왕 물대장군 하위를 받아  
연안복산 장대장군님 수위산은 물할머니 물애기씨에  
아차산은 백마신령 충청도로 계룡산 산신령님  
백두산 신령님 개성으로 안산백산 송악산 신령님  
덕물산은 장군님 수위 하위를 받아  
대국으로 곤륜산 신령님 일본으로 부사산 신령님  
과천 관악산 신령님 용문산 신령님 하위를 받아 놓고 나서  
팔도명산 도명산에 칠기 명천  
산마누라 하위를 받아 놓고 나서

〈도당군웅공수〉

내살롱 군웅 외살롱 군웅 아니시리  
도당할아버지 도당할머니 아니시리  
내부군 외부군 아니시리  
안개도당 수풀도당 아니시리  
투수도 네 투수에 백성도 네 백성 아니시리  
어느 가정은 두어라 아니 하시고  
어느 백성은 두어라 아니 하시리

밤이면 수많은 백성 씨워내시고  
동서사방에 사두팔방에 매항출입 하드라도  
조약돌에 거침없이 도와주고  
화재 부세 다 제쳐주며  
돌아가는 서감 없이 비단에 수결 같이 도와주마  
(사슬 세우고 노랫가락을 한다.)

〈신장공수〉

어허구자 초신장 아니시리 산신신장님 부군신장님  
도당신장님 아니시리  
안양주민 가중 부리신장님 신에신장님 아니시리  
안양주민 가중 조상신장 사해로 용궁신장님  
팔도 명산 산신신장님 십이신장  
하우를 받아 놓고 나신 자취에 도와주시마

〈신장타령〉

(재수야 소망이야 여러 번 하면서 신장기로 재수를 주고 호가를 청한다.)

어떤 신장이 내 신장이야  
어떤 신장에 내 신장이냐  
욕심도 많은 내 신장이냐  
탐심도 많은 내 신장이냐  
천하각국 육갑신장에 둔갑하던 내 신장이야  
거염을 뵈던 내 신장이냐 각국 나라 열두신장  
동방에는 청룡신장 남방으로는 주작신장  
서방에 백호신장 북으로는 현무신장  
육정육갑은 둔갑신장 삼태육성 제대신장  
천지조화 풍우신장 이십팔수 제후신장  
오방신장 육갑신장 십이신장님 거동 봐라  
한울림 병거지 숙여 쓰고 구군복 전복을 떨치시고  
자취를 뵈던 내신장님 도와를 주마  
성겨를 주마 재수소망을 성겨주마

〈대감공수〉

초관대감 아니시리 상산대감 본향대감 부리대감  
신에 대감 아니시리 천신대감 지신대감  
설명도라 대신대감 아니시리  
사위 삼당대감 안산대감 밖산대감  
내외산에 왕래대감 한 우물 용궁대감  
셋 우물 용신대감 대국골 왕래대감  
한양성내 육조삼부 부군대감  
어전 법전 대감 하위를 받아  
놓고 나서 도와주시마  
그러나 안양주민 ○씨 기주야 이것이 다 무엇이나  
너무도 소소한 정성 서운하시다  
요것만 성겨주셨느냐 먹는 것이 뉘 것이며  
쓰는 것이 뉘 것이냐 도와주신 것이 이것 뿐이나  
안양 ○씨 기주야 네가 이 정성을 들일 제  
힘도 많이 쓰고 애도 많이 썼으니  
우리 대감님이 소례를 대례로 즐겨 받으시고  
긋은 일 제쳐주시마 먹고 남고 쓰고 남게 도와주시거든  
우리 대감님 수위에서 도와주시는 줄 알아라

〈대감타령〉

닐 닐 닐 닐 날리리요  
덩기덩 덩덩궁 일상에 좋은 게 날리리요  
사철 좋은 게 덩덕궁이라 얼씨구 절씨구  
삼각산 대감이 내 아니냐  
인왕산 대감이 내 아니냐  
북악산 대감이 내 아니냐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안산 주산에는 왕래대감 하늘에는 천신대감  
지하로는 지신대감 보물대감이 내 아니냐  
어사대감에 순력대감 도와주마  
천리곡간도 채우시고 지단도 채우셔서  
명익노적 쌀노적에 노적 더미에 꽃이 피고

금구령이는 굽을 치고 업두꺼비 새끼 치고  
금족제비 터를 잡아 밑에 노적 싹이 나고  
윗노적에 꽃이 펴서 부엉에 자손이 창성하고  
부귀영화 떠나지 않고  
밤 다섯 경 불이 밝고 낮 일곱시 물이 맑아  
수화를 같이 맑혀 봉황이 넘나들듯  
웃음으로 연락하고 천량을 노리하고  
자손으로 화초삼게 도와주시던 내대감이시다

〈대신공수〉

본향대신 산신대신 육조삼부 제장대신  
부리대신 신에대신 성 주던 대신 본 주던 대신 아니시리  
사산명산 산신대신 사해로는 용궁대신  
육천전안 대신 아니시리

〈대신타령〉

어떤 대신이 내 대신이냐 우리 대신이 내 대신이냐  
우리 대신 거동을 봐라 일상에 좋은 것은 덩길덩덩  
사철 좋은 것은 가구강강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네  
본향대신 산신대신 불릴 대신 영검대신  
재수 소망을 성겨주마 운수소망도 성겨주마  
(일에 따라서 타령을 길게 혹은 짧게 할 수 있다.)

〈말명공수〉

부리말명 본향말명 신에말명 사산명산  
산신말명 배움남산 불사말명  
부군말명 도당말명

〈호구공수〉

부리호구 신에호구 기연상산호구 본향호구

월띠는 중디호구 이 나라 이씨호구 저 나라 흥씨호구  
일급지 명산에 상단호구 중단호구 상하단 승인호구  
국내에 제당호구 안산대국 별성호구  
수영 반장호구 솟돌고개 전울호구 하위 받아 놀구 나서  
(호구보를 쓰고 호가를 청한다. 그런 후에 호구보를 벗는다.)  
이것을 벗고 나니 용문산 안개 젖힌 것 같고  
비 온 날 개인 듯이 도와주시마

〈제장공수〉

산제장 들제장 산걸립 들걸립  
산영산 들영산  
산수비 들수비  
아흔아홉 도수비 다 물러 가소사  
(술하고 전물을 조금씩 담아서 둘러서 밖에 놓는다.)

## 바. 불사거리

〈만수받이〉

아 불사  
만신 몸주  
대신불사  
청궁불사  
일월불사  
성신불사  
사해불사  
사해로는  
용궁불사  
달이 돌아  
월광불사  
해가 돌아  
일광불사  
일광월광  
양일광에

비친 불사  
무웅불사  
나옹불사  
억만미륵  
팔만성군  
구만불사  
석가여래  
세존불사  
정전안은  
내전안에  
오십삼불  
신불사  
중불사요  
처사불사  
도시불사  
선바위로  
석부처님  
자하문 밖에  
해수 관음관천으로  
관악산은  
염불암에  
연주대요  
열여섯 분  
나한불사  
삼신불사  
석자 세치  
후대불사  
자 세치로  
고깔불사  
바가지로  
년출불사  
항아리로  
진등불사  
부리불사  
안양주민 가중

부리불사  
사산명산  
상신불사  
여처사는  
여불사요  
남처사는  
남불사요  
놀고 나서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북두칠성  
사부칠성  
북두대성  
칠원성군  
일곱 칠성  
놀고 나서  
안양주민 가중양위  
소원성취  
도와주고  
남녀자손  
수명장수  
점지하고  
말 잘하고  
글 잘해서  
출세하고  
삼재팔난  
거리횡액  
대수대명  
물리어 주고  
소원대로  
도와주고  
소망 생겨  
나는 듯이  
뛰는 듯이

도와주자  
놓고 나오  
아 불사

<불사공수>

어허구자 안양주민 ○씨 가중 ○씨 기주야  
청궁불사 일월불사님 아니시리  
사해로 용궁불사 아니시리  
해가 돌아 일광불사 달이 돌아 월광불사  
일광불사 월광불사 양일광에  
무용불사 나옹불사 아니시리  
억만미륵은 구만불사 아니시리  
좌우정성 굽어보시니 겸사 많은 정성에  
귀염 많은 정성이라  
너희 가중에 뿌리로 유궁하고  
신에도 가득 차고 상전이 뚜렷하고  
본향이 번듯하고 칠성은 상대에  
불사가 예바르시고 동 바르신 가중이 아니신가.  
삼년세력은 이태 말미에 위하던 가중 아니시라  
마음 안에 먹은 대로 적은 정성을 태산같이 받으시고  
장래를 길게 보고 원래를 굽으셔서  
소원 이루시고 불사가물 저치시고  
원 풀어 도와주고 운수 열고 재수 열어 도와주시마  
여러 남매자손에 긴 명은 서려주고 짧은 명은 이어서  
수명장수로 도와주시고 내외부처 길하게  
한 백 년 의미 백 년 되고 자손이 편안해서  
돌아가는 서감에 돌아가는 체중이라  
감기 고불 제쳐주마 액 사나운 것 제쳐주마  
장강수 물결 같고 은하수 물결같이 받들어서 도와주마  
엿듣고 편들어서 가지 뻗듯 번성하고  
신사삼년 깨끗하게 받들어 주시마

<칠성공수>



어허구자 동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북두칠성이라  
 천지신명 일월성신 옥황상제님 사부칠성님 사위시라  
 억만미륵팔만 성군 아니시리  
 바위칠성 부리칠성 삼태육성 외별성님  
 뉘를 깔아 대를 이어 공 들고 심 낙던 칠성님  
 수위에서 수새목숨 끈 달고 바위목수 쇠끈 달아  
 긴 명을 서려주마 짧은 명은 이어주마  
 바늘이 실이 되게 도와주마  
 동서사방 헤아리고 다녀도 딴을 가지  
 낮가지 거리에 황액 돌거침 없이 도와주고  
 이 놀이 정성 받으시고 수원발복하게 도와주마  
 꽃이 피면 꽃맞이 잎이 피면 잎맞이  
 진달래 화전맞이 정성이요  
 신곡맞이 햇곡자랑 상이삭 끝을 골라  
 촌촌맞이 일월맞이 불사맞이 사경맞이 받으시고  
 집안이 무고하고 자손이 태평하게  
 받들어서 소원 이루시고 가지가지로 번성하고  
 상덕 입혀주시마

〈천왕중상공수〉

나무아미타불 소송 문안드리오  
 종이라니 지나가는 돌중으로 알지 마오  
 거리노중 을 넘어 팽개중 접시 밑에 향아중  
 삼경에 밤중이 아니라 무웅나옹 대사중  
 서산대사 사명대사 육관대사 무학대사  
 원효대사 성진대사 도사중이 내려왔오  
 우리 중상이 면면촌촌 도시다가  
 이 가중 남녀자손 수명발원으로 내려왔오  
 우리 중상이 그냥 가기 미미하니 바라 시주나 팔고 가자

〈중상타령〉

나무아미타불 어떤 중상이 내려왔나  
 황야산 황금중상 청악산 청아중상

검고도 푸른 중상 푸르고도 엷은 중상  
 우리 중상 거동 보라 세모시 고깔 속여 쓰고  
 치러베 장삼 떨쳐 입고  
 왼 어깨에 명가사요 바른 어깨에 복가사요  
 청홍대 산수가사요 금란가사 떨쳐 메고  
 제비 흥띠 둘러 띄고 백팔염주 목에 걸고  
 서발단주 손에 들고 길 넘는 육환장 죽비경쇠 울리면서  
 바라 시주를 내려왔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삼각산 나린 줄기 비봉을 때려내어  
 높은 데다 법당을 짓고 얇은 데는 암자 짓고  
 모시리다 모시리다 삼불 부처를 모시리다  
 이리 열 칸 저리 열 칸 열의 열 칸 지어 놓고  
 초일곱에 높은 산중 오르시니 보살님전 염불 배우고  
 선생님전 공부 배우고 밤이면은 수덕설법  
 탁발시주 돌으실 제 아침 재미 거두어다  
 저녁 불공을 드리시고 저녁 재미를 거두어다  
 아침 공양을 올리실 제 일 푼도 동참은 가히 성불이요  
 나무아미타불 바라를 사오 바라를 사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바라 시주를 하시면은  
 없는 아기도 점지하고 있는 자손은 수명장수  
 부귀공명을 점지할 제  
 반달 같은 따님아기 귀동자 옥동자 점지해서  
 선팔십 후팔십 강태공의 명을 주고  
 석승의 복을 주어 삼천갑자 명을 주고  
 무식목숨 돌곤 달아 바위목숨 쇠곤 달아  
 장수원명으로 도와주고  
 원이원이 발원이요 나무아미타불  
 은바라 시주를 내려왔소 금바라 시주를 내려왔소  
 나무아미타불 석교장 봄바람에  
 육관대사 성진대사 팔 선녀를 뵈고  
 합장배례를 하시고서 복단장을 고이 하고  
 너울너울 춤을 추고 황금 같은 피꼬리는  
 황금 갑옷 고이 하고 염불소리로 노래하며  
 양류청산으로 날아든다 바라 시주 내려왔소

그 바라 시주를 내려왔소 나무아미타불  
오동나무 보한지에 상산가지를 가리고  
나무아미타불 산중 귀물은 머루 다래  
인간 귀물은 자손이라 나무아미타불  
티끌을 모으면 태산이로다  
바라 사오 바라 사오 이 바라 시주를 하시면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구십양년 다산노인은 극락길도 밝아지고  
소원성취를 하옵니다 금시발복을 하오리다  
삼재팔난을 제치리다  
관재귀설 횡액대액을 제쳐주오  
이별홍수를 제치리다

(제금을 자진장단으로 올린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삼십 삼천이십팔속 제불제천  
일광월광 양대보살 일세동방 결도량  
이세남방 득청량 삼쇠서방 구정로  
사쇠북방 염안강 나무아미타불

〈산주기〉

일광보살 산이요  
월광보살 산이요  
일광월광에 무옹불사 나옹제석  
부모 자손 명산 복산 받으소사

(사설이 끝나면 산을 줄 때 불사제석 노랫가락을 부른다.)

〈불사제석 노랫가락〉

그리 높소와 은옥이야 주오니다  
전추야 전추로다 불사제석님 전추로다  
설명지 가사인들 떠날른가

불사제석님 오시는 길에 은하수로 다리 났소  
은하수 서기지만 안개 순풍에 내려 왔소  
제석님 내리신 자취를 인간이 몰라

불사제석님 잡으신 잔에 호초 삼잔 이슬이 맺혀  
이 잔과 저 잔을 지성이라 쌍배 올까  
제석님 감하신 자취를 인간이 몰라

천만년수 빌러를 왔소 부모자손이 만년수  
만년산수를 빌고 천년지수에 복을 빌어  
삼천 년 한오백 하니 자손이 창성

장수명을 빌러 왔소 부모자손 수명장수  
수명에도 장수가 오나 부귀하시고 공명이요나  
마누라 부귀공명을 연히나 볼까

벼슬 승차 돈우소사 안양주민 대주의 의전벼슬  
의전에도 벼슬이오나 나라님 안전에 관덕이요나  
그중에 높은 벼슬 다 돈을까

소망재수 생기소사 사방천량 손이나 몰까  
정성덕화 입소와지오 부모자손 황덕이요  
풀고나시니 대활인가

인하위 하시이다 안양주민 양위가 제석님하위  
인조차 하위하나 불사제석님 하위라고  
마누라 영검하위를 다 입힐까

불사제석 주량을 짚고 옥난간에 계시어서  
백운을 가르치며 이내 고향 저기려만  
우리가 세상에 내려와 인간을 점지

아미보살이 발을 갈고 염주 닷 말 씨를 던져  
절 아래 보살님네 염주 발이나 매러 가세

금강산 좋단 말 듣고 만인중생이 구경 가오

방방곡곡마다 염불소리가 순재로  
상재야 시왕이 어디냐 나는 연가  
송하에 앉은 저 중아 네 앉은 지가 몇몇 해냐

살던 절을 잊었느냐 오던 길을 모르느냐  
이곳을 알지 못하긴 네나 내다

불사제석 심으신 나무 아미보살이 물을 주어  
문수로 뽀은 가지에 열매가 열어  
오백나한

〈호구만수반이〉

아 호구  
만신 몸주  
대신호구  
제산동반  
칠기명천  
상단호구  
중단호구  
상하단  
성인호구  
배움남산  
불사호구  
월찍는  
중디호구  
문수천황  
성인호구  
이 나라  
이씨 호구  
저 나라  
홍씨 호구  
금성으로

대신호구  
사해로  
용신호구  
남묘는  
정전이요  
동묘는  
내전이라  
관운장님  
신장호구  
물 건너 하주당  
송씨부인  
나씨부인  
산활호구

<호구 공수>

어허구자 안양주민 ○씨 가중 ○씨 기주야  
호구씨 수위가 아니시리  
제산 동반에 칠기명천에 상단호구 중단호구  
배움남산 불사호구씨 아니시리  
좌우정성 굽으시니 겸사 많은 정성이 아니드냐  
오늘 나들이에 이 정성 받으시고  
마음 안에 먹은 대로 뜻 먹은 대로  
가지로 받들어 상덕 입혀주시마

<부인공수>

정전부인 내전부인 민부인 간부인  
형제부인 옥제부인 아니시리  
귀가진 저고리에 단가진 치마에  
야암삼숙에 깃을 잡아 받으시다  
밤이면 칠 푼 두께 낮이면 육 푼 두께  
녹의홍상에 칠보단장에 받으시다  
면경 색경 하얀 쪽도리 받으시다  
연지분 곤지분 받으시던 호구부인 아니시리

(연지분 값 곤지분 값 달라고 하고)

그래야만 연지분 피듯이 곤지분 피듯이  
속이 시원하게 도와주시마

〈호구공수 2차〉

어허 구자 부리호구 신의호구  
안당은 삼신세준호구  
만조비 조상호구 아니시리

〈불사신장〉

어허구자 불사신장 아니시리  
안양 지접을 돌아봐 주시는 신장님 아니시리  
오늘 이 정성 대우받고 복 주고 명 주마

**사. 가망·말명·대신거리**

〈가망공수〉

어허구자 초가망 이가망 아니시리  
조라가망에 전물가망이라  
맑게 받아 오신 가망 쉼게 받아 오신 가망  
맑게는 쉼게인데 걷는 말에 석을 부쳐  
닫는 말에 채를 제쳐 오신 가망  
조라 전물가망 아니시리  
너희 부리에 성주시고 본 주신 가망  
선후대 부리에 조비조상의 말명가망  
국리는 제당가망 사와삼당가망  
상산가망에 천자대국의 사신가망  
배움남산 불사가망 만조상 영실가망 아니시리  
인의 하위 받으시고 신의 하위 받으시고  
너의 정성 굽어보니 소소하고 약소하시다  
이것만 도와주시고 이것만 성겨 주셨느냐

서위하시고 섭섭하시겠지만  
장래를 길게 보아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이 만당하고 부자 되게 도와 주시거든  
본향 양산의 가망이 도와주시는 줄 알아라

〈조상대신공수〉

어허구자 안양주민 ○씨 가중 ○씨 기주 아니시리  
천하대신 지하대신 아니시리  
우래주래 벼락대신 열두대신  
은선기를 잡아 꽃대신 육천전안대신  
조상대신 아니시리  
배움남신 불사대신 아니시리  
우리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놀구나셔서  
재수를 열어 주시마(부채로 재수를 계속 준다.)

〈대신타령〉

덩길덩덩 어떤 대신이 내 대신이야  
우리 대신 거동을 보아라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네  
우용모 자택도 나는 좋아 자영모 주택도 나는 좋아  
우리대신 놀구 나실 제  
천하대신 지하대신 우래주래 벼락대신  
열두대신 기를 잡아 꽃대신이 문을 열어  
애기러 가자 불리러 가자 닫은 문을 열러 가자  
사산명산은 산신대신 사해로는 용궁대신  
욕심도 많은 내 대신이야  
탐심도 많은 내 대신 정전대신 내전대신  
기연에 상산대신 각심말 부군대신  
장안 가득 불려를 주마 세계 가득 생겨 주시마  
우리대신 노시고 나면 좋으니만큼 생겨 주시마  
좋으니만큼 도와 주시마 덩기덩덩 내가 좋으네  
일상에 좋은 건 덩기덩덩 평상에 좋은 건 릴리리아  
사철 좋은 건 얼씨구야 만당골도 생겨주시마



먹은 자리도 메꿔 주시마 쓴 자리 도와가며  
 여안백전은 내벌리고 신가곡산을 들어 벌려  
 영검산에는 영검을 따고 괴염산에는 괴염을 따서  
 애동기자들 애겨주자 불려를 주자  
 구단골을 앞을 서고 신단골은 줄을 서서  
 문이 메고 골이 메게 도와 주시마  
 앉은 바위 솟으굴려 선 바위 떼굴려  
 부자 단골 장자 단골 의사 단골 판사 단골두 생겨주시마  
 애기러 가자 불리러 가자  
 가슴에 대천문 열고 눈에다가는 야광을 돈혀  
 손에다가 육십갑자를 내려줄 때  
 다리에다 황금줄을 내리시고  
 높은 산에는 눈나리듯 얇은 산에 재날리고  
 역수장마비 퍼붓듯 대천바다에 물밀듯이  
 재수소망을 생겨 주시마

## 아. 장군거리

〈장군공수〉

어 구자 상산장군님 아니시랴  
 안산은 거염산 아니신가 뱃산은 열시위라  
 칠국지 명산은 태주 태평산 의일장군은 최일장군님 아니시랴  
 장장군님 아니신가 임장군님 아니시랴  
 조장군님 아니시랴 한라산으로 여장군님 아니시랴  
 초신에 감발하구 임꼬리 짐꼬리 치룡상짐에  
 우바리 마바리 수경숙배를 돌아서 임진강 대동수를 건너서 장군님이  
 개성 덕물산 최일 장군님을 음성을 못대위 하구  
 화상을 못대위 해서 서위하고 섭섭하나  
 오냐 안양주민 ○씨 가중에 열 발 정성에 스무 발 정성이라  
 이 정성을 대위하니 국태민안하구 시화연풍하구  
 오냐 안양 ○씨에두 시절이 분분하구 해운이 산란해도  
 화재부새 없구 눈큰 대액 발 큰 대액 물리여 도와주고  
 상산장군님 수위에서 정성덕 입히여 도와주자 위-  
 어 구자 장군님 수위에서 하루가 열흘 같고 일각이 여삼추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다리고 바라든 정성

태산 같이 받으시고 준령 같이 받으시고  
이 정성 우촌하구 대위하야 상덕 입히여 도와주시마 위-  
어 구자 이 정성은 월천간 날을 골라 주역이 시를 던져  
좋은 날 좋은 시를 가리여서 이 정성 우촌하고 대위하였으니  
명잔에 복잔에 재수잔 소망잔 천금잔 주시고  
상덕 입히여 도와주시마 위

#### 〈장군공수〉

굽이 뽕소사 안산은 거염산 밖산은 열시위  
칠공지 명산은 태주 태평산이라  
의일장군 최일장군님 장장군님 임장군님  
조장군님 만고충신 임장군님 후덕물마누라 신덕물마누라  
이 정성 태산 같이 받으시구 상덕 물려 주시니다

#### 자. 별상거리

#### 〈별상공수〉

어 구자 별상님 아니시랴  
이 나라는 이씨별상님 아니신가  
저 나라는 홍씨별상님 아니시랴  
강남은 대한민국에 사신별상님 뉘라시냐  
아랫 대궐 옷 대궐 경복궁 새 대궐  
종묘는 사직이라 위패 받아 지니시고  
밤이면은 촛불로 벼을 삼고 낮이면은 문안맞이  
우영문 취태에 좌영문 소악소에  
풍류로 세월을 보내시든 양전은 양별상님 흥마마 흥별상님  
조선왕조 오백 년 별상님 아니시냐  
울기도 많으시고 화기도 많으시다  
오냐 흥역마마 흥진 대진 물리여 도와주고  
이 정성 우촌하구 대위하였으니 풍유로 단고 받으시고  
지구 받으시구 정성덕 입히여 받들어 도와주시마 위-  
어구자 오냐 헛곡이 우거지고 신곡이 만발하구  
골골이 단풍이 지구 흐르는 족족 물결이고

은노적 금노적 싸여 있고  
해곡맞이에 신곡대령에 내가 태산같이 받으시구  
안양의 ○씨에 ○씨 양위부처 소원 이뤄 도와주고 성취 이뤄 도와주고  
장수별산님 뉘랴시라  
외작두를 돌아타고 쌍작두를 거스리고  
오냐 대나라 대장군님 작두장군님  
호법장군님 인에 하위 받으소사 위-

〈사슬〉

이 나라 이씨 별상 저 나라 흥씨 별상님  
강남 대한민국 사신 별상님  
욕심도 많으시고 탐심도 많으시다  
상덕 입혀 주소니다

〈상산노래가락〉

산간대 그늘이 젖소 용 가신대 수이로다  
수이라 깊소건만 모래 위에 수이로다  
마누라 영검 수이를 다했는가

넙선 장군 오시는 길에 비수창금 다릴 뵈소  
등으로는 널다 하시고 날누마니 서계신가  
줄 아래 덩기덩 소리 노닐라고

넙선장군 잡우신 잔에 황소주로 이슬 맺혀  
이 잔과 저 잔을 지성이라고 쌍배 올까  
일광에 시없는 잔을 쓰시라고

국만은 국이련만 재재마다 절리로다  
시절은 시절이요나 넙선 장군님 시절이요나  
송문에 오동잎하니 갈 길 몰라

넙선장군 쓰시든 칼은 연열석에 들개 갈어  
장부에 입신양명이 이 아니 조홀소냐

마누라 영검수이를 다 입힐까

넙선장군 타시든 말을 두만강수에 굽씩켜 매고  
석술 잡고 구비보니 어렵구나 올라래도  
이 말아 놀나지 마라 그늘 주어

어이 해서 못 오시나 무삼 연고로 못 오시나  
하운이 다기봉하니 산이 높아 못 오시나  
춘수는 만사택하니 물이 깊어 못 오시나

나비아 봄나비아 얼송덜송 호랑나비  
네 곳은 엇떡킬내 학에 머리에 도라드뇨  
우리도 설떼가 달나서 창금 끝테

#### 차. 신장거리

〈신장공수〉

어 허허허허 내가 상산신장님 도당신장님  
부군신장님 갑을신장님 육갑육곰 베푸시던 내가  
갑을신장님 오방신장님 팔만신장님 육갑신장님  
우리 신장님이 울기도 많으시고 욕심도 많으시고  
대양푼에 갈비찜 소양푼에 원계찜  
안주 받으시던 신장님 천동하구 벼락치구  
내가 번개치구 벼락신장님 천신신장님  
불도신장님 십이신장님 오냐 갑을신장님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소

〈신장타령〉

어떻게 좋은지를 모르겠소  
말을 타구서 각디 띠구 저벅저벅 자취를 뵈고  
의사돌던 내 신장님 좋다  
갑을신장님 용신신장 동해바다루 용신신장님  
남해바다루 용신신장

서해바다루 용신신장 북해바다루 용신신장  
 갑을신장님두 내 신장님 우영문취태 받으시구  
 좌영문 수악소를 받으시구 말을 타시구 깃발을 날리구  
 각띠를 띄고 목화 신고 어둠층층은 아삼경요  
 아랫대궐 옷대궐 넘나들고  
 운현궁이구 덕수궁이구 인경전 너른 뜰을 왕래하구  
 오방신장 내 신장이며 팔만신장두 내 신장님  
 이룩허게 받드시구 재수 열구 험헌 일 없구  
 악한 일 없게두 도와주고  
 천황신장님은 부군신장 내 신장님이 정말 좋소  
 은장반으로 받으시구 금장반으로두 받으시구  
 야간조찬은 녹아쓰구 팔멜로 쓰시던 내 신장님  
 어허허허 내가 이렇게 받으시구 재수 열어 도와주시구  
 받들어 주시마 워

#### 카. 대감거리

〈대감 만수반이〉

아 대감  
 만신몸주  
 대신대감  
 사위삼당  
 제당대감  
 기연에  
 상산대감  
 안산대감  
 빛산대감  
 내외산에  
 왕래대감  
 육조삼부  
 부군대감  
 의전에  
 법전대감  
 배웅남산

불사대감  
남관암  
동관암에  
증전시위  
신장대감  
물 건너  
화주당에  
매당황산에  
산활대감  
터주 원주  
집주대감  
앞문에  
시주대감  
뒷문에  
화주대감  
대문에  
수문장대감  
산나무에  
천율대감  
죽은 나무에  
목신대감  
천변에  
수각대감  
만장육장에  
열입대감  
의사대감  
술력대감  
제물대감  
보물대감  
조비조상님  
제장대감  
대주에  
몸주대감  
계주에  
식신대감

천각씨대감  
지갑씨대감  
업주대감  
안양주민 대주가  
나갈 째는  
빈 몸이나  
드러올 째는  
찬 바리라  
수레다로  
실려 들려  
먹고 남고  
씨고 남게  
도우시고  
안양주민 가중  
남녀자손  
오복이  
창성하고  
만복이  
구전하게  
필장수  
구십당년  
동방삭에  
명을 주고  
석송에  
복을 주어  
무량대복을  
점지해 주옵소사

〈대감공수〉

설명도라 대신대감 사위삼당 제당대감 한 우물에 용궁대감  
섯우물에 용신대감 기연에 상산대감 안산대감 빛산대감  
육조삼부 부군대감 남관암 동관암에 증전시위 신장대감  
배웅남산 불사대감 물 건너 화주당에 매당황신에 신활대감  
천갑씨 대감 지갑씨 대감이 아니시아

설상에 매화 본 정성이로구나  
 귀엽고 반기시다 여러 대감 화이 받으시고 놓고 나신 자취에는  
 양위에 남녀자손 열액대액 삼재팔난  
 관재구설 다져쳐주고 신사떡 입혀주시마  
 그렇지만 이것만 생겨주고 요것만 도왔느냐  
 여러 대감님 수이에서 도와주신 게 아니시리  
 만만서위하고 섭섭하시다  
 그렇치만은 이 정성을 위성혈 제  
 의논 많고 공논만은 정성이라  
 소례를 대래루 받으시고 구진일 다 저쳐고 재수문 열려주어  
 만사가 대통하게 생겨주고 도와주시니  
 잇태 말미 삼 년 실력 있지 마라  
 있지 맙소

〈대감 노리 소리 타령〉

우리 대감이 이렇게 노실 제 날닐닐 날리 덩길덩덩  
 덩덕쿵 일상에 좋은 게 날네리야  
 사철 좋은 게 덩길덩덩 우리 대감에 그동 바라  
 아날님 병거지 미라파양 진사생모를 밧든 대감  
 길 갓튼 과자전복에 남부대단 도리불수에  
 전대띠를 밧든 대감 산남게 지점을 하고  
 죽은 나무에 왕래혈 제 은주저리를 밧든 대감  
 금주저리를 밧든 대감 사위삼당 제당대감  
 육조삼부 부군대감 한 우물에 용궁대감  
 셋우물에 용신대감 의전에 법전대감 기연에 상산대감  
 안산대감 밧산대감 내외산에 왕래대감 배웅남산에 불사대감  
 남관암 동관암에 증전시위 신장대감  
 물 건너 화주당에 매당황신에 산할대감  
 터주 원주 집주대감 앞문에 시주대감  
 뒷문에 화주대감 대문에 수문장대감  
 산남게 천용대감 죽은 나무에 목신대감  
 천변에 수각대감 만장육장에 열입대감  
 하늘에 천신대감 땅에는 지신대감 조비조상님 제장대감  
 대주에 몸주대감 계주에 식신대감 엄주대감님 복신대감



보물대감님 재물대감 으사대감에 술력대감  
 여러 대감이 하위 받아 노실 적에 대감님에 그동바라  
 낮이머는 으사를 돌고 밤이머는 술력 도라  
 으적 수적도 물려주고 화재부세도 물려주고 삼재팔난 관재구설  
 모든 대액을 물려주고 은산에 가서는 은을 뜨고  
 금산에 가서는 금을 떠다 곱간마다 싸어 주고 먹고 남게 생계를 주고  
 쓰고 남게 도와주고 안양주민 가중에 남녀자손 사방으로 출입할 제  
 험한 길에 낙마 없고 남에 눈에 꽃이 되고  
 말 끝마다 향내 나고  
 나갈 적에 빈 몸이지만 들어올 제는 찬 바리라  
 술래대로 실어다가 안팔으로 싸어 노니 부자장자 되는구나  
 우리 대감만 잘 위하면 고대광실 높은 집에  
 육간대청 삼 칸 마루에 남서단 치마를 잘잘 끌고  
 남녀노복을 부릴 적에 허제 같은 일꾼이며 열쇠 같은 식모들과  
 앵무 같은 아이들이 드나들면서 그행할 제  
 청풍으로 비를 매서 앞 뒤뜰을 쓸 적에  
 뒤뜰을 쓰니 봉덕새 나고 앞뜰을 쓰니 황금나네  
 일일소지 황금출이요 시시개문 만복래라  
 봉덕새는 드리울 제 업쪽제비는 새끼를 치조  
 돛 없는 거러들고 긴대업주는 기여들고 청사지는 춤을 춘다  
 봉덕새는 날어들어 한 날개를 툭탁 치니 가진 보물이 쓰다지고  
 또 한 날개를 툭탁 치니 역수만금이 쓰다졌네  
 었찌 아니 좋을 소야 우리 대감에 그동 바라  
 어떤 약주를 잡수실까 이태백이에 포도주며  
 도연명에 국화주며 마구할미에 천일주며  
 속달 열흘에 백일주며 뚝 떨어진 낙화주며  
 만첩산중에 송엽주며 혼자 비진 걱정주며  
 돌이 비진 그연주며 셋이 비진 공논주며  
 산삼주며 불노주며 참쌀 막걸리 더욱 좋다  
 술은 그러 하려니와 어떤 안주를 잡수실까  
 원소 잡아 설파를 하고 앞다리 선각두 내안주로구나  
 뒷다리 후각두 내안주라 양지머리 글안지에  
 대양푼에는 갈비찜 소양푼에는 영계찜  
 펄펄 뛰는 송어찜에 꺾꺾 푸드득 콩에 다라  
 윈돏슨 잡어서 흥굴레 씨워 먹고 놀고 지구 놀고

미구노시는 우리 대감 안주는 그러하려니와  
 어떤 떡을 잡수시니 청방사령에 청정떡  
 오동시루 금테두리에 산우봉백인 떡이로다  
 다령은 메칭 송기떡 을기설기 깨설기며  
 먹기 좋은 꿀설기며 보기도 좋은 화전이며  
 늘그니 비진 꼬장떡 두귀 번쩍 송편이며  
 네모반듯한 인절미며 안팓치 엷는 도래떡  
 시월 상달에 무시루떡 먹고 놀고 지구 놀고  
 미구 소니슨 우리 대감 술 잡수는 우리 대감  
 우리 대감에 그동 바라 밤은 침침 야삼경에  
 계수나무 능장 잡고 안마당에서 저벽 뒷것해서도 적벽  
 돌두 집어서 던저를 보고 모래도 집어서 꺾저 보구  
 대문도 붙잡고 흔덜어 베구 차취를 보이는 우리 대감  
 명기는 주시는 우리 대감 스기를 주시는 우리 대감  
 여러 대감님 수이에서 하위하더 놀고 나신 자취에는  
 소원을 성취해서 갑부 되게 도와주고  
 고간두 채우고 지단도 채워 멩에 노적에 싸노적에  
 노적더미에 싹시 나고 꽃이 피내 봉덕새가 드리울 제  
 선팔십 후팔십 자손들이 창성하고 부귀영화가 떠나질 않고  
 수화를 갖추 밝혀 봉과 학이 넘노는 듯  
 우슴으로 열락하고 출양으로 노리하고  
 자손으로 화초삼께 도와주시는 우리 대감이 아니시랴

## 타. 창부거리

〈창부만수반이〉

아 창부  
 만신몸주  
 대신창부  
 안산광대  
 박산 청계  
 소년 출신  
 재인광대  
 안양 ○씨 대주

몸주창부  
안양 ○씨 기주  
직성창부  
○남매자손  
몸주창부  
일 년하구  
열두 달에  
홍수창부  
부모자손  
산진홍수  
수진홍수  
자손에는  
동발홍수  
내위에는  
이별홍수  
손끝에는  
식물홍수  
낙마홍수  
병살홍수  
관제홍수  
부모자손  
삼재환란  
손재식물  
다저치고  
하위받어  
놀구나오  
아 창부 -

〈창부공수〉

어 구자 창부씨 아니신가 거염상산 창부씨 아니시라  
만신말명 대신창부씨 아니시라 안산은 광대씨 박산은 청계씨  
서무시 너털리 소년 출신 재인광대  
안양 ○씨의 대주님 부모자손 몸주창부 직성창부 창부씨 청계씨에서  
이렇게 받으시구 재수 열어서 도와주시구

은산에 은두 뜨구 금산에 금두 뜨구  
 천량산에 천량 뜨구 은자보물 숨은 천량  
 생기여 도와주고 열홍수 저쳐주고  
 뜬홍수 물려주고 재수천량 뜨러갑시다 열쑈나-  
 어 허허허 은산에 가 은두 떠왔오  
 금산에 가 금두 떠왔소  
 천량산에 천량 뜨구 보물산에 보물 뜨구  
 내가 약수산에 약수 떠다가  
 부모자손 병살수 물리어 도와주고  
 ○무년 해우년에 편안하게 도와주고  
 산진홍수 수진홍수 물홍수 불홍수  
 지홍직성 재도직성 다저쳐 도와줄 때

〈창부타령〉

어떤 광대씨가 올라왔소  
 전라도 하구 남원 광대 광대씨는 청계씨요  
 나무도 툇 꺾어 다리를 놓고 돌을 던져서 구렁 매구  
 울망졸망 엽량 달고 미투리 집세기 들쳐 매구  
 한양 성내를 올라올 때 돌을 던져서 구렁 매고  
 나무는 툇 꺾어 다리를 놓고  
 이집 저집을 다 저쳐 놓고 안양 ○씨에 가중에 들어서서  
 가는 소망도 생겨주고 오는 천량도 생겨주고  
 상업이요 사업이요 인간여립을 할지래두  
 입설수 귀설수 물려주고 억울한 누명수 저쳐주고  
 홍액대액이요 삼재환란은 손재식물 일년도액을 막아주고  
 안양시 ○씨에도 내위부처 산두 사고 땅도 사고  
 재벌 되고 비행기도 타고 각처 나라를 다니면서  
 은자천 금자천 재물번성요 천신이 받들어서  
 동서사방을 다니셔도 태평성대로 도와주고  
 늘고 불고 번성을 하고 재물도 늘고 천량 늘구  
 부귀장성을 하구 일년의 홍수도 막고 갈 제  
 이월 한 달에 드는 홍수는 삼월 삼진날 막어내구  
 삼월 한 달 드는 홍수는 사월 초파일에 막어내구  
 사월이라 드는 홍수는 오월 단오날 막어내구

오월이라 드는 홍수는 유월 육일에 막아내고  
 유월이라 드는 홍수는 칠월 칠석날 막아내고  
 칠월 한 달 드는 홍수는 팔월이라 한가위에 오리송편으로 막아내구  
 팔월 한 달 드는 홍수는 구월 구일날 막아내고  
 구월 한 달 드는 홍수는 시월이라구 무오일날 무사채로다가 막어를 내자  
 시월이라 드는 홍수는 동지달 동지날에 팔죽옹심으로 막아내자  
 동지달 한 달 드는 홍수 선달이라 소한 대한  
 흰떡으로다가 막아내구  
 선달 한 달 드는 홍수는 정월이라고 열나은날 지옹직성 재도직성요  
 화직성 수직성요 일직성요 직성환란을 막아다가  
 위주월강으로 소멸할 때 앞바다에 두동실 떠도는 배요  
 저기 저 배는 무슨 배냐  
 우환배라 손재식물 병살수 걱정수 화재수 도독수 실어다가  
 멀리 두동실 떠나는 배 어떤 광대씨 내 광대씨냐  
 앞으로는 어릿광대 뒤로 돌아 돌광대씨  
 어떻게나 좋은지 모르겠네 어 구자

산진홍수 막아주고 수진홍수 막아주고  
 삼재환란 막아주고 손재식물을 물리여 받들어 도와주시마 위-

## 파. 계면거리

〈계면만수받이〉

아 계면	아 계면
우두계면	우두계면
좌두계면	좌두계면

〈계면공수〉

어허긋자  
 좌두계면은 우두계면 아니시라  
 계면각시 계면말명 아니시라  
 삼십칠관 돌아다가 새기 접어 내기 접어  
 좌로 접어서 올릴 반도 열두 반이요 내릴 반도 열두 반이라

나비 안전 정간석에 열손물이 높고나서  
오냐 주씨에도 나는 기주 삼 남매 자손  
어허 금의환향하게 내가 도와주리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재수떡을 사먹어야  
내가 질환도 견어주고 재수 열어 도와주리다  
만신말명 대신성수가 떡을 팔러를 왔오

<계면떡타령>

떡을 사요 떡을 사요 좌두나 계면의 떡을 사요  
어떤 떡을 사가시려오 명떡 복떡을 사가시오  
새기나니 기쁠 떡이요 내기나니 이쁠 떡이요  
올망졸망 콩떡이요 뜸이 없는 송편이요  
언제 보아서 계피떡인가  
명떡 복떡을 사가시오  
이 떡일량은 사잡수시면 장자 되시게 도와주리다  
어떤 떡을 사가시오 올망졸망에 조랑떡이요  
절씨구 얼씨구 정말 좋다  
사과를 발라서 양떡이요 먹기가 좋아서 콩떡이요  
명떡 복떡을 사가시오  
한국 사람 떡은 찰떡이고요 미국 사람 떡은 빵떡이요  
일본 사람 떡은 모찌떡이요 명떡 복떡을 사가시오  
정월달에는 달떡이요 이월달에는 시래기떡이요  
삼월달에는 썩떡이요 사월달에는 느티떡이요  
오월달에는 송기떡이요 유월달에는 밀떡이요  
칠월달에는 수수떡이요 팔월달에는 송편이요  
구월달에는 귀리떡이요 시월상달은 무시루 찰떡  
동짓달에는 팔죽 새알심이요 선달 한 달은 흰떡이라  
명떡 복떡을 사가시오  
이 떡일량은 사잡수시면 무사고하게 도와주고  
절씨구 얼씨구 정말 좋다

<계면공수>

어허긋자 오냐 학생은 먹고 도망가고  
오냐 순경은 먹고 그냥 가고  
그저 계면값을 달라고 했드니  
떡 팔러 갈 데가 없어  
오냐 그랬으니 그저 떡장사 했으나  
남은 기 없으니 우리 떡장사 이래 가고

〈계면노랫가락〉

돌아 돌아를 왔오 삼십칠관을 돌아왔오

#### 하. 뒷전거리

〈뒷전 만수반이〉

아 걸립  
만신몸주  
대신걸립  
사외삼당  
제당걸립  
안양 ○씨 가중  
치어달아  
성주걸립  
내리 밀어  
지신걸립  
앞문전에  
서중걸립  
뒷문전에  
하주걸립  
기차여차  
노인걸립  
남터주는  
여터주라  
도령터주  
색시터주

보물터주  
오방지신  
사방천왕  
열맹인요  
상산맹인  
전안맹인  
곽곽선생  
이순풍이  
상통천문  
하달지리  
남성황요  
여성황요  
재재봉봉  
넘든 성황  
안양 ○씨가중  
높은 추녀  
얕은 하방  
만지구두  
다룬 성화  
여영산요  
남영산야  
청춘영산  
소년영산  
안양 ○씨가중  
줄에 줄매  
가든 영산  
말려 시들어  
가든 영산  
재수에두  
그린 영산  
외상문요  
진상문야  
노상문야  
재수에두  
꼬린 상문



일법상문  
벌법상문  
해두묵구  
철두묵구  
달목은 상문  
하위반어  
놀고나오

〈걸립 공수〉

어 구자 나는 걸립내 들어왔오  
지여달아 성주걸립이야 내리달어 지신걸립이요  
내가 앞문전에 시주걸립에 뒷문전에 하주걸립이요  
수문장에 패장걸립이요 기차 여차 모인 걸립  
여걸립은 여드리구 남걸립은 저드려서  
○씨의 가중에 은자보물 숨은 천량  
휘여드리고 안아드리던  
어라 걸립성주에서  
상덕입히여 도와주시라

〈터주대감공수〉

어 구자 어허허허 젠장 맞을 것  
어떤 대감님은 천신대감 양반대감 우의정 좌의정 대감님  
지전을 내리잡구 치잡구 앞뒤로 주든이만  
나는 의붓아들인가 개구녁바진가  
내가 그래두 석 달 열흘 장마가 쳐두  
제일이라구 내가 제일이야  
도령터주 아가씨터주 울 밖으로 총각대감  
울 안으로 처녀대감 내가 자취뵈구 의사돌구  
수문장에서 휘여들이구 휘여내구 그러든 대감이요

〈터주타령〉

어떻게 좋은지도 모르겠네 어둠충충 야밤 삼경에 자취를 뵈시던 내 대감님

이담 저담 왕래를 하구 돌로다가 우당탕탕 오매도 집어서 끼얹어 보고  
자취뽀시던 내 대감님 등장을 짚고 우리 대감이 저벅저벅은  
뚜벅뚜벅 자취를 뽀시던 내 대감님  
계수나무로 등장을 짚고 여터주대감 남터주대감  
주저리 대감니 내 대감님  
어 허허 우리 터대감 수문장대감님  
재수 열어서 받들어 도와 주리다

〈지신공수〉

어 구자 내가 동해지신이요  
남해지신이요 북해지신이요  
내가 이렇게 기소를 파고 기소를 만들어서  
공구리 치고 그래도 보이는 것 없어도  
내 지신 할아버지가 제일이고  
지신할머니가 제일이야  
옛날에는 무쇠치마가 다 닳고 무쇠동거리가 다 닳아서 했지마는  
지금은 큰 차 트럭 양회에 그냥 범벅을 해서  
우루루 쏟아놓고 재주가 무척 좋아  
일층 이층 삼층 사층 에리베타를 만들고 그렇지만  
우리 지신 할머니는 지경을 꼭꼭 다져가며  
어리나 얼사루 지경이야

〈지경달이 타령〉

지경 지경 다져봅시다  
동네방네에 역군들이요 격군들 역군들 풀어다가 지경지경을 다져보세  
쇠를 띠고서는 안을 보고 안산 좋고 주산 좋구나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해수로구나  
왕십산은 청룡대국 동구재마루가 백로다  
한강은 조수 되구 명당터가 제일이로다  
서른 세 명 역군님들요 쉬인 세 명이 격군들  
역군들 격군들 풀어다가  
한편쪽에 넷 다섯이만 다져주소  
북편지경 가만히 살짜궁 날을 뜯이 금족제비가 나시거늘

남편지경 다져를 보니 금붕어가 나시더라  
 서편지경을 가만히 살짝쿵 한갈 밥을 덤싯더니  
 백사자가 나시거던  
 북편지경을 다져볼 때 흑사지 나시거던  
 금구렁이는 굶을 친 듯 업죽제비는 맴을 논 듯  
 다칠세라 가만 가만히 다져주소  
 뭉베를 입고 잠뱅이를 입고 고추 상투를 까닥거리며  
 잔등허리를 굶나리며 위가 퍼진 떡대나무로  
 웅허리 동실로 띠여보세  
 가만가만 다져봅시다  
 먼 데 사람은 듣기 좋고 가까운 데 사람은 보기 좋게  
 얼이나 얼사는 지경이야  
 이 집터를 지경을 달고 천년대 만년대를 이룰소요  
 아드님 두면 정상감사요 딸을 놓으면 여중군자  
 허이허 제 같은 남중이로구나  
 열쇠 같은 나의 중기 불면서 날명 청풍으로다 뒤를 메워  
 앞뜰 뒤뜰을 쓸구 보니 앞뜰에서는 봉이 나구  
 뒤뜰에서 생굴이 인다  
 봉덕새가 날아들 때 한 날개를 통당치면은  
 억수만석이 쏟아지구 또 한 날개 통당 치면 수만석이 쏟아지고  
 너구찬 밭에 장찬 논에 길찬 밭에다 이주이천 자차배로다  
 김포통진은 일다배요 백수풍진은 소년배로다  
 울공출공 적두콩이요 구루팔 밀팔은 적두팔요  
 울러덩 출러덩 갈다가 놓고 광에다가 쌓아놓고  
 근들 아니 견들소냐  
 통풍바람 흔들 불면은 안팎 중문은 줄행랑이요  
 고추대문은 난사랑이로다  
 내외분님은 물림 뒤에 율타리에다가 선자추녀  
 윙그랑 쟁그랑 풍경소리가 더욱 좋다  
 삼년 폭포수에 수각 짓고 뒷동산에 산정을 짓고  
 앞에다는 연장 짓고 양금 거문고를 걸어놓고  
 안양 ○씨 양위가 부모자손 이만큼하시구 사실 적에  
 근들 아니 견딜소냐  
 뒤뜰에다가 물통을 놓고 앞뜰에다가 거위 놓고  
 목덕방에다 고갈 짓고 대아적 같은 금붕어는

시간을 맞춰서 춤을 춘다 물을 켜며 노실 적에  
 동면 춘면은 곤두보도 영산홍액은 취잘하다  
 외철쪽 진달래 삼가지며 맨드라미 봉숭아 좀도 좋소  
 길 같은 화초잎은 너울거리면서 춤을 추구  
 안방문 바라보니 부모는 천년수요 수여산을 부쳤구나  
 건너방문을 쳐다보니 자손만세는 영화가부사행 축으로다 부쳤구요  
 상기등을 바라봐라 원독산가는 불로초요  
 배랑고당 백발치리라 동남동서는 남북제기요  
 춘하추동은 사시복이요 천중시월은 임중수라  
 부엌문을 바라봐라 반철공문은 행백역이요  
 재생성수는 송천쇠라 팔도에 유적지요  
 사방에 입전물쪽에 부쳤구나 근들 아니 경일소냐  
 사랑채면 겹사랑인데 기생은 불려서 잔드리고  
 광대를 불려서 줄을 타면서 우쭐자쪼은 줄을 삼고  
 허리 굽고도 야윈 중상이 근들 아니와 경일소냐  
 안산유기는 배통유기요 늦반상 은반상 열두 반상에  
 칠적반상기를 놓아 놓고 열두 평 평풍을 피어 놓고  
 여덟 평 평풍을 피어놓고 선단요에 대단이불에  
 덮으니 접으니 턱 펴놓고 와령 촛대에다 불 밝히고  
 전등하로에 불을 놓고 능실능실이 잘도 논다  
 동벽에 진초사 도연명이 화랑을 역만하면  
 추강에다 배를 띠고 청풍명월을 흘리지며  
 희명으로 가는 길을 그렸구나  
 북벽을 봐라 봐라 석환씨 공부나 하야  
 우수견내 갈색 벼슬 숙여쓰고 합장배례를 하구  
 비는 경을 그렸구나  
 어떻게 좋은지 모르것다 자고 나면 늘어주고  
 자구 나면 번성하게 도와주고  
 우리 지신할머니가 이렇게 도와 줄거야

〈장님재담〉

흐으 으흐흐흐 어유 고맙소 저기를 오르려니까는  
 나보고 장님 그래 그래 얼마나 야속한지  
 거적은 거적이라나

아 봉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장구잡이)선달님이 되어서 시원하게 말씀도 잘하시구려  
 나는 그래두 내가 이래 뵈도 나라봉사님이오  
 또 내가 떡거머리 총각 때 아흔아홉 기첩을 달고 땡겼소  
 그런대요 뺨덕어멈인지 노랑어멈한테  
 훌쩍 반해서 그냥 있는대루 다 줘버렸더니  
 히프바람에 남봉이 나서 눈 뜬 서방을 얻어 가지구 간데  
 아 그런데 나는 오나가나 정성스러워서 밤대추가 있으면  
 성황 앞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상 할머니  
 제사 지내고 꼭 챙기거던  
 아 그러는데 장님 장님 그러기에  
 네 이놈아 말 같이 안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저러나 여기서 땡덕쿵 하니까  
 신명이 재천이 돼서 들어왔더니  
 옛날에 ○씨에 할아버지 할머니 오고  
 장가가실 때 나한테 날택일을 보러 오셨구려  
 그래 오니까 우리 단골집 단골집이야  
 이러나 저러나 내가 중간병신이 됐지  
 애써 병신이 된 건 아니요  
 그런데 장님 장님 그래 그러면서  
 어찌나 흥을 보는지

〈맹인타령〉

저기 가는 저 장님은 비틀거리고도 잘두 가누나  
 뜨물 독에 가 빠졌는지 부엌게도 잘 멀었오  
 저기 가는 저 장님은 냉수독에 가 빠졌는지  
 시원스럽게 잘 멀었네  
 식칼전에 지나왔나 버인듯이두 잘 멀었수  
 저기 가는 저 장님은 비틀거리구도 잘두 간다  
 은방전예를 갔다가 왔나 감은 듯이도 잘 멀었네  
 네 이놈들아 고약한 놈아 병신 보고 웃지 마라  
 늙은이 보구 흥보지 마라 장애자 가지구 흥보지 마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날 제 귀동자 아들이요

은을 준들 바꿀소냐 금을 준들 바꿀소냐  
어와 둥둥둥 내 사랑아  
우리 아들 밖에 없었던데 중간 병신이 어이 되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슬 적에  
굽이나물을 잡수셨는지  
굽이굽이 생각해도 설습니다  
도라지 나물을 잡수셨는지  
돌아먹기도 지긋지긋  
우리 어머니가 저를 슬 적거에  
대나물을 잡수셨는지 대짚팽이 하구는 지긋지긋  
네 이놈들아 고약한 놈아 병신 보고두 웃지 마라  
한 다리 한 팔이 없을망정 일월이나 보았으면  
보았으면 보았으면 일월이나 보았으면

〈맹인재담〉

내가 그러고 했오 내가 우리 맹인 신에 맹인 전안맹인  
신장맹인에서 놀고 날 제 애삼은 석삼에 되삼이며  
외다락지 쌍다락지 안질 곱질  
씨받이 다락지 저차주고 관재귀설 없구  
거리에 낙마홍액은 물리여서 상덕 입혀 도와주자

〈성황놀이〉

나는 남성황 여성황 헌 집에 새 재목 새 집에 헌 재목  
돌 보든 성황 흑 보든 성황나무 장목 긴대 성황  
청색 무색에 따라들든 성황 물어들든 성황  
하루 이틀 으실으실 춤고 뒤통안통 내위복장이 답답하구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고 감기 고불 다 저쳐 도와주자  
성황이야

〈영산〉

어 구자 이그 내가 사상달라가고 내가 돈 때문에  
원이 돼서 매 맞져 육신처참에 가든 영산이야

내가 칼 침 맞아 가든 영산이야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오고 이 그 도둑질을 뺏속에서 배워가지고  
 나온 놈이 저물도록 하구 내가 칼춤 추구 가든 영산이야  
 모락에 가든 영산이야 돈에 미쳐 가든 영산이야  
 아이구 배야 나는 날구 가구 배구 가구 하탈길에 가든 영산이야  
 폭격 맞아 가든 영산 파편 맞아 가든 영산  
 이 그 물에 빠져 수살귀야 불에 타서 가던 영산  
 못 살구 못 먹구 삼하구 이그 이러던 영산이야  
 개에 물려 가던 영산이야 쇠에 받쳐 가던 영산이야  
 말에 치여 가든 영산이야 돌에 맞아 가던 영산이야  
 아이구 여기저기 집을 짓구 웅덩이에 빠져서 가던 영산이야  
 내가 도영산 때영산이야 외상문 대상문 신상문 진상문이야  
 재수에 끄리던 상문이야 일봉상문이야  
 월봉상문이야 어루 상문영산이 많이 먹고 가리다

〈수비〉

대암제석 수비아 쟈제석 수비아  
 남수비는 여수비아 아흔아홉 떼수비  
 천아홉 도수비아 남수비는 지구 가구 여수비는 이구 가고  
 마른 목은 적셔가고 고픈 배는 불려가고  
 젖인 것은 먹고 가구 마른 것은 지구 가고  
 산수비는 산으로 가고 들수비는 들루 가고  
 뒤돌아 보지 말고 오든 길로 돌아서서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 찾아서  
 속거천리로 물리여 주소사

## 2. 수리산산신제의 무복

### 가. 기본 무복

우리나라 각 지역의 무속 중 가장 화려한 무복을 가진 곳은 서울·경기 지역이다. 강신무의 특성상 거리거리에 들어오는 신령이 누구인지를 무복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예

술성보다는 신적인 영력을 강조하고 있는 강신무는 무복을 신적인 힘의 과시로 사용한다. 수리산산신제를 관장하는 무속인도 강신무이다. 그러므로 서울·경기 무속의 한 영역에 속하는 수리산산신제도 각 거리마다 다양한 무복을 가지고 있다.

이 무복은 각 곳거리에 들어온 신령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강신무는 입고 있는 무복과 들어온 신령의 일치함 속에 굿을 진행한다. 세습무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이 무복은 각각의 색깔과 맵시로 인해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수리산산신제 각 거리에서 사용되는 무복을 본다. 다음으로 각각의 무복을 하나하나 살펴본 후 무복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 1) 주당물림

특정한 무복이 없다. 굿에 참가한 무당들은 대개 한복을 입고 온다. 이를 평복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당물림은 별도의 무복이 없이 진행한다. 한복이 아닌 옷을 입고 와서 아직 옷을 갈아입지 않은 무당이라면 한복으로 갈아입고 굿판에 참가할 준비를 한다.

### 2) 부정청배

주당물림처럼 특정한 무복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청배를 진행하는 무당은 평복을 입고 앉아서 장고를 친다. 아직 본격적으로 여러 신령들을 불러 모시지 않기 때문이다.

### 3) 가망청배

부정청배에 뒤이어 진행한다. 따라서 평복을 입고 진행하고 특정한 무복은 없다.

### 4) 산신거리

청치마에 흥철릭을 입고 머리에는 흥갓을 쓴다. 여러 신령이 꺾여 들어오는 거리여서 신령에 따라 무복을 바꾼다.

### 5) 불사거리

서울곳의 특징이라 할 신령이 꺾여 들어오는 거리이다. 불사거리를 진행하는 무당은 불사 거리에 들어올 여러 신령 중 먼저 불사를 나타내는 흥치마와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치고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 칠성신이 들어오게 되면 공수로 알려준다. 제석은 가사를 벗어내고 장삼에 고깔만 쓰고 진행한다. 부인은 장삼을 벗고 호구포를 머리에 쓰고 진행한다. 호구는 들렀던 치마를 벗어 이를 부채로 들어 얼굴을 가리고 진행한다.

### 6) 가망·말명·대신거리

청치마에 가망의대를 입고 진행한다. 대신이 들어오게 되면 노란 몽두리로 갈아입는다.



### 7) 장군거리

청치마를 입고 동다리를 입고 남괘자를 걸친다. 다음으로 남철릭을 입고 허리에는 장군님을 상징하는 주머니가 달린 대를 두른다. 머리에는 갓을 쓴다.

### 8) 별상거리

장군거리를 진행하다가 갓을 벗고 병거지를 쓴다. 그리고 가장 곁에 입었던 남철릭을 벗는다. 동다리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별상의대이다.

### 9) 신장거리

별상거리와 동일하다. 손에 들은 무구가 달라짐으로 인해 거리가 구분된다.

### 10) 대감거리

신장거리의 무복에 홍철릭을 걸쳐 입는다. 대감거리를 진행하다가 동다리를 벗고 쾌자만 걸치고 진행한다.

### 11) 창부거리

창부의대라 불리는 원삼을 입고 진행한다. 양팔에 색동을 아름답게 달았다.

### 12) 계면거리

평복차림으로 진행한다.

### 13) 뒷전

모든 곳이 끝나가는 거리이다. 무당은 처음에 입고 온 평복을 입고 진행한다.

이상이 각 거리별로 입는 무복이다. 수리산산신제의 각 거리에서 입는 무복은 서울곳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보고된 서울의 다른 마을곳과 비교할 때 상당히 유사하여 수리산산신제가 나름대로 서울·경기곳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잘 계승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된 봉화산도당곳의 무복과 비교해 보아도 수리산산신제가 서울 마을곳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봉화산도당곳과 수리산산신제가 서로 계통이 다른 마을곳이어서 곳거리가 같지는 않지만, 무복의 비교를 위해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수리산산신제		봉화산도당굿	
주당물림	평북	거리부정, 주당물림	평북
부정청배	평북	부정청배	평북
가망청배	평북	가망청배	평북
산신거리	청치마, 흥철릭	본향거리	몽두리
가망·말명·대신거리	가망의대, 몽두리	장군거리	청치마, 흥철릭
장군거리	청치마, 동다리, 쾌자, 청철릭	별상거리	청치마, 동다리, 청쾌자
별상거리	청치마, 동다리, 쾌자	신장거리	청치마, 동다리, 청쾌자
신장거리	청치마, 동다리, 쾌자	대감거리	청치마, 남색 동다리, 남쾌자
대감거리	청치마, 동다리, 쾌자, 흥철릭	산제석거리	흥치마, 장삼, 고깔, 흥색대띠
창부거리	남치마, 창부의대(원삼)	창부거리	남치마, 원삼
계면거리	평북	군웅거리	남치마, 흥철릭
뒷전	평북	용신거리	장삼, 고깔, 흥색띠
		뒷전	평북

수리산산신제와 봉화산도당굿의 무복 비교

무복은 매우 다양하고 수리산산신제에 참가하는 무당마다 장식이 달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어렵다.

이 무복은 서울곳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서로 어울려 거리거리에 사용되는데, 남치마에 구군복과 남철릭을 입고 쾌자를 걸치고 남색 띠를 두르면 <산신거리> 복색이다. 이때 남철릭을 대신해서 황철릭이나 홍철릭을 걸치면 <장군거리>의 복색이 된다. 작두를 탈 때 지금은 성수의대를 입지만 과거에는 구군복을 입었다. 남철릭은 남본, 홍철릭은 홍본이라 부르는데 황철릭을 가장 많이 입었다.

현재 서울 무복에 금박을 박거나 수를 놓는 것은 황해도 무복의 영향으로 원래는 아무 것도 없는 소략한 양식이었다. 수리산산신제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수리산산신제의 무복을 보게 되면 서울 무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복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1)</sup>



곳 준비를 위해 진설한 무복

31) 무당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복은 다음과 같다.

- 가. 불사장삼 : 전체가 흰색으로 넓은 소매에 가슴 밑으로 주름을 달았다. 불사와 칠성, 제석거리에서 사용된다. 스님들의 복장을 떠올리면 된다.
  - 나. 홍철릭 : 전체가 홍색이고 소매만 흰 끝동으로 되어 있다. 산신, 대감, 성주거리에서 사용된다. 대부분의 곳판에서는 항상 홍철릭을 걸어놓고 곳을 진행하는데, 이는 그 지역의 산신을 모시는 의미로 보인다.
  - 다. 남철릭 : 장군거리에서 사용된다. 전체가 남색이고 소매만 흰색으로 되어 있다.
  - 라. 성제님의대 : 서울곳에서 관운장은 매우 중요한 신령으로 바로 이 관운장을 모시는 상산거리에서 사용된다. 황색으로 되어 있고 소매 끝에 흰색 천을 달았다.
  - 마. 창부의대 : 창부거리에서 사용된다. 소매가 색동으로 되어 있어 구분이 쉽다.
  - 바. 별상의대 : 남색으로 되어 있고 소매에는 색동을 달았다.
  - 사. 동다리 : 협수(夾袖)라고 불린다. 신장이나 대감을 모실 때에는 남색 협수를, 조상이나 사자거리에서는 연두색 협수를, 군웅을 모실 때에는 검정색 협수를 입는다.
  - 아. 쾌자 : 대감거리에서 사용되는 가장 간편한 무복이다. 텃대감을 놀 때는 흑색 쾌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개 남색쾌자를 입는다.
  - 자. 몽두리 : 대신몽두리가 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 대신을 모실 때 입는다.
- 이상이 서울 지역의 무당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무복이다. 여기에 요즘 흔하게 보이는 무복으로 선녀의대가 있다. 흰색으로 된 이 선녀의대는 대개 몸주로 선녀를 모신 무당들이 사용한다. 날개옷을 연상시키는 매우 화려한 복색으로 선녀부채를 들고 선녀를 놀 때 입는다. 또한, 갑옷을 연상시키는 장군의대도 드물지 않게 보인다. 이렇게 보면 무복은 기본적인 것에 무당의 몸주에 따라 한두 가지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 나. 띠

무복에는 무복을 입을 때 장식과 편리성을 위해 사용하는 띠가 있다. 장군띠와 대띠, 가사가 그것이다.

### (1) 장군띠

장군의대를 입을 후 허리에 두르는 것으로 뒤에 모두 주머니가 셋이 달려 있다. 각각 최일장군, 그 부인, 그 아들이라 하는데 속에는 면화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 대한 해석은 역시 무당마다 다르다.

### (2) 대띠

말 그대로 큰 띠를 의미하며 폭 18cm, 길이 130cm에 이른다. 대띠에는 두 장의 장식띠가 달리는데, 이 띠의 폭은 15cm 정도이고 전체 길이는 100cm를 상회한다.

### (3) 가사

불사거리에서 장삼을 입을 후 양어깨에 걸치는 것이다. 붉은색을 기본으로 하며 매우 화려하다. 길이가 150cm를 넘으며 폭은 15cm 정도이다.

## 다. 의관

### (1) 병거지

신장거리에서 쓰는 것이다. 테 지름 40cm 내외, 높이 15cm 내외로 술띠를 돌려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 (2) 갓

홍갓, 호수갓 등의 여러 갓이 사용된다. 갓의 테 지름은 40cm 내외, 높이 14cm 내외이고 나무로 깎은 장식을 달았다. 예전에는 이 장식을 직접 밀화로 제작했었다고 한다.

## 라. 무복의 상징성

수리산산신제에서 사용하는 무복은 우선 색채에서 오방색을 사용한다. 오방색은 동쪽의 청색, 서쪽의 백색, 남쪽의 적색, 북쪽의 흑색, 중앙의 황색이다. 이들은 각기 방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령을 상징하기도 한다. 황색은 조상신을 의미하여 황색 몽두리는 조상과 관련이 있는 신령이 들어올 때 입는다. 청색은 엄숙하고 밝음의 상징이어서 장군, 신장 등의 신령이 입는다. 백색은 서쪽이고 서방이다. 그래서 불사처럼 하늘과 외지(外地)를 상징하는

신의 무복이 백색이다.

청치마와 홍치마를 입는 신령이 구분된다. 청치마가 외래신령을 상징하고 홍치마는 그 지역신을 상징한다. 이것은 청색과 홍색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오방색은 우리 민족의 색이다. 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상징의미는 앞으로도 계속 살릴 필요가 있다.

무복에서는 철릭의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개 격이 높은 신들이 입은 옷이다. 용왕을 모시러 나갈 때 황철릭, 도당부군과 성주신을 모실 때 홍철릭을, 장군을 모실 때 청철릭을 입는다. 쾌자는 흥겨움과 복을 상징한다. 그래서 대감신들이 주로 입는 무복이다. 무복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수리산산신제에서 굿거리가 하나씩 진행될 때 무당이 걸치는 무복은 신령을 나타냄과 동시에 모양과 색의 상징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 3. 수리산산신제의 무구

#### 가. 굿거리별 무구

굿거리별로 사용하는 무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신령의 위상과 의미를 드러낸다. 개별 굿거리에 들어온 신령이 누구인지를 무구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신령과 인간의 소통을 매개한다. 신령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할 때 부채와 방울 같은 무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복을 줄 때 부채를 활짝 펼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셋째, 신령의 의사를 나타낸다. <산신거리>나 <별상거리>에서 사술을 세운다. 이때 삼지창을 활용하는데, 삼지창이 쉽게 똑바로 서게 되면 신령이 굿을 잘 받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무구는 굿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신성함의 상징이 된다.

각각의 거리에 맞게 무구가 사용된다. 수리산산신제의 각 거리에 사용되는 무구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이러한 무구의 사용도 서울·경기구의 일반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비록 옛 법을 계승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수리산산신제지만 전통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

부채와 방울은 얇은거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개 선거리에서만 사용한다.

부채는 거의 대부분의 거리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부채가 가장 기본적인 무구라는 뜻이다. 그러나 <장군거리>에서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장군신이 매우 특별한 신이기 때문이다. 장군이라면 <가망청배>를 한 후 굿판에 참가한 사람이 굿상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하며, 이때 부르는 노랫가락이 상산(장군)노랫가락이다. 그러므로 장군신의 특별한 성격을 고려하면 부채는 거의 대부분의 거리에서 사용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거리 구분	무 구
주당물림	-
부정청배	-
가망청배	-
산신거리	산신종이(산종이), 부채, 방울, 월도, 삼지창
불사거리	부채 방울
가망거리	가망종이, 부채, 방울
장군거리	월도, 삼지창
별상거리	월도, 삼지창, 부채
신장거리	신장기
대감거리	부채, 방울
창부거리	부채
계면거리	부채
뒷전	부채

### 수리산 산신제 굿거리별 무구

이에 반해 방울은 특정한 거리 몇 군데에서만 사용되는데, 주로 공수를 줄 때 신의 위엄을 나타내면서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 사용된다. 이는 금속성의 날카로움을 상징적으로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호남지역에서는 팽과리를 귀신을 물어버리는 매구로 부르고 있는데, 금속성의 소리가 망자가 저승길을 갈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금속성은 새로운 것을 열어주고 액을 물려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방울이 주로 <대감거리>처럼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거리에 사용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삼지창과 월도는 신의 엄숙한 위엄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사슬을 세울 때도 삼지창을 사용한다. 월도와 삼지창은 두루 사용되는 무구는 아니고 신령에 따라 사용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무구를 과거에는 직접 제작하거나 만들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만물상에서 사서 쓴다. 때로는 재가집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다.

수리산산신제에 사용하는 무구는 굿판에 참가한 무당들이 개별적으로 가져온 것인데 오랫동안 사용한 것도 있고 따로 돈을 주고 구입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무구는 굿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구가 있음으로 인해 신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고 적절한 행위를 통해 신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 <장군거리>에서 무당은 장단에 맞추어 월도를 상에 차려놓은 대안주에 걸치고 흥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신령이 가진 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 나. 악기류

서울·경기 지역의 굿에서 피리류는 전악(악사)들이 가지고 오지만 무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기들도 몇이 있다.

### (1) 장구(장고)

수리산산신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구는 채 지름 45cm 정도에 장고 길이 60cm 정도이다. 장고도 굿판에서 오래 치면 팔이 아프다. 그래서 장구는 무당들이 번갈아 가며 친다. 하지만 아무리 번갈아 가면서 친다 하더라도 서울굿의 장단에 익숙하지 않은 무당은 참가할 수 없다. 그래서 장구를 익히는 것이 무가를 배우는 것보다 무당에게 더 필요한 일이다. 만수받이 형식으로 무가를 주고 받을 때도 장구가 연주된다. 이렇게 보면 피리, 대금, 해금은 전문적인 악사가 있고 이러한 악기들은 일종의 장식 역할을 한다. 굿판에서 장식이 아닌 긴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장구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굿판에서 악사 없는 굿판은 있지만 장구 없는 굿판은 없고, 무당 혼자서는 절대로 굿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장구는 무당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장구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아낀다. 동해안 무당의 장구는 매우 작고 또 조립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수리산산신제의 장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장구이다.

### (2) 제금

심벌즈의 모습으로 두 개로 구성된다. 백색 천으로 연결되어 있어 빠른 리듬이나 무당의 신력을 높일 때 강하게 두들겨 사용한다. 불사거리에서는 중상이 들어올 때는 굿을 연행하는 무구로 전환된다. 무당은 제금을 들고 바라를 사라면서 별비를 걷는다. 제금을 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처음 굿판에 들어오게 되면 제금 치는 것을 배우는데, 서울굿의 장단이 아무리 간단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제금을 제법 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지름은 24cm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구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것은 무구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우선, 신령을 표시하는 무구를 중심으로 신령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무신도와 무복이

여기에 속한다. 무신도는 인간에게 숭배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어 신령을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무복도 각각의 굿거리에 들어온 신령의 위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는 신의 영력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사슬을 세울 때 사용하는 월도와 삼지창은 영력의 표현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다. 신장기를 뽑아 점을 친 후 이를 통해 공수를 주는 것도 신의 영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무구는 인간이 사용하지만 신령의 표현과 영력의 표시라는 점에서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구가 가진 세 번째 기능은 인간과 신의 소통의 매개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한 무구를 통해 신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인간과 신의 소통의 매개체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구가 점상이다. 대부분의 점상에는 점괘를 내기 위한 쌀과 엽전, 염주 등이 놓여 있어 인간은 이를 이용해 신의 생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무당의 입장에서 보면 무구는 재가집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한다. 굿판에서 칼을 들고 신의 영력을 나타내는 무당을 보며 재가집은 고개를 숙인다. 월도와 삼지창이라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칼을 통해 신탁을 내리는 무당의 모습은 그 순간만은 인간이 아닌 신이다. 무구는 이러한 무당의 영험성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4. 수리산산신제의 상차림

##### 가. 일반적인 서울·경기굿 상차림

먼저, 서울·경기굿의 일반적인 상차림을 본다.

서울굿에서 차려지는 굿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부정상, 산신분향상, 가망분향상, 불사상, 조상상, 장군상, 성주상, 뒷전상, 지신상, 안당제석상, 대신말명상, 천궁맞이상, 대수대명상, 사자상, 연지당상, 대감상, 망제님 전물상 등이 현재 서울 지역의 무당들이 말하는 굿상의 종류이다. 그러나 이들 중 몇몇은 실제 굿판에서는 차려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무당에 따라 동일한 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들 굿상 중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굿에 차려지는 상은 부정상, 분향상, 장군상, 뒷전상이다. 이중 분향상은 산신분향과 가망분향을 모시는 상이다. 대감을 모시는 대감상도 중요한 상의 하나인데 신사굿에서만 별도로 차리고 다른 굿에서는 차리지 않고 떡시루에 북어 한 마리를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굿에 반드시 차리는 상차림으로는 다음과 같다.

##### (1) 부정상

떡 세 접시와 술 석 잔을 올리는데 막걸리와 같은 흐린 술을 사용한다. 나물은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로 각 한 접시씩 세 접시를 올린다. 시금치를 대신해서 무나물과 숙주나물을 사



용하는 경우도 있다. 통북어 한 마리를 올리고 고춧가루와 소금, 종이를 태운 재를 함께 섞은 잿물을 상에 올린다. 떡은 일반적으로 팔떡을 사용하지만 새남굿에서는 편떡을 사용한다. 상차림에서는 앞쪽에 통북어, 그 뒤에 나물, 술, 떡을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정거리에서는 소지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 앞에 소지를 미리 놓아둔다. 한편, 상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형편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모양으로는 둥근형이 아닌 사각형의 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 크기나 모양에 직접적으로 구애받음이 없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굿상이 동일하다. 그래서 상의 크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 (2) 분향상

산신분향상과 가망분향상을 따로 차린다.

산신분향상에는 팔떡 세 접시와 백설기를 안쪽에 올린다. 떡 왼쪽에는 통북어가 있는데 떡에다 꽃는 경우도 있다. 오른쪽에는 생미를 세 그릇 놓고 그 앞에 맑은 술 석 잔을 올린다. 술 앞에는 나물(고사리, 도라지, 무나물-또는 시금치, 숙주나물)과 전(두부전, 밀전, 동태전) 각 세 접시를 번갈아 놓고 그 앞에는 밤, 대추, 배, 사과, 산자, 약과를 각 한 접시씩 놓는다. 상의 양 가장자리에는 촛대를 세운다. 가지꽃을 세 송이 사용하는데, 꽃의 색은 노란색이나 흰색이어야 하고 떡에다 꽃는다. 새남굿을 할 때 팔떡 대신 편떡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상과 같다.

가망분향상은 상차림이 비교적 간소하여 떡 세 접시와 맑은 술 석 잔을 놓고 떡에 가지꽃을 꽃는다.

## (3) 장군상

전통적으로 장군상은 독립된 상이었지만 지금은 장군상에 조상상과 불사상을 함께 차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조상상과 불사상은 보편적으로 굿에 차리고는 있지만, 도당굿을 할 때는 차리지 않으며 새남굿에서도 차리지 않는다. 내림굿에서는 조상상은 있으나 불사상을 차리지 않고 맞이굿에서는 조상상을 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굿의 종류에 따라 장군상은 상차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장군상이 아닌 현재 굿판에서 차려지고 있는 조상상과 불사상이 함께 있는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서 제시한다.

여기에서 왼쪽의 팔떡 다섯 접시는 조상님떡으로 살제비꽃을 한 송이씩 꽃는다. 흰색이나 노랑색, 빨강색을 많이 사용한다. 중앙에 있는 두 개의 팔떡이 장군님떡으로 수팔년꽃 1층짜리를 꽃는다. 그리고 이 수팔년꽃을 에워싸듯이 가지꽃을 여러 송이 꽃는다. 오른쪽에 있는 세 접시의 백설기는 불사님떡으로 중앙에 있는 백설기에 수팔년꽃 흰색 1층짜리를 꽃는다. 신사굿에서는 3층짜리 꽃을 사용한다. 그리고 역시 수팔년꽃을 에워싸듯이 가지꽃을 여러 송이 꽃고 다른 백설기에는 가지꽃을 한 송이 꽃는다. 우환굿에서는 찹쌀로 떡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술은 맑은 술을 사용한다. 모든 굿에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만 새남굿에서는 팔떡이 편떡을 바꾸고 백설기 안쪽으로 방망이떡 세 접시를 올리며 각 접시에는 방망이떡이 세 개씩이 올라 있다. 방망이 떡은 진오기굿, 새남굿에서만 올려지는 특이한 떡인 셈이다. 그리고 산자 위에는 질빵을 반드시 얹는다. 새남굿에서는 꽃도 조금 달라지는데 수팔년꽃 3층짜리를 사용한다. 장군님떡 위에 꽃은 수팔년꽃 위에는 냇전을 올리는 데, 진진오기굿이라면 처음부터 냇전이 올라가 있겠지만 묵은진오기굿에서는 조상위에 있다가 사재삼성을 돌 때 수팔년꽃 위로 올라간다.

마을굿인 도당굿을 한다면 조상옷이 있는 상에 개인의 조상옷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산신 다리를 올리고 그 앞에 동네 가구 숫자대로 소지와 생미를 놓아두어 축원에 사용한다. 소족 뿐만 아니라 소머리도 올라가는 것이 도당굿의 모습이 될 것이고 시루에도 변화가 있어 산신 서낭시루, 산신타주시루, 산신지신시루, 도당시루, 구능시루, 분향시루, 산신말명시루를 올린다. 통팔떡을 사용하는데 도당시루만은 콩떡이다. 도당굿에서 꽃은 일반적인 굿에서와 동일하다.

수팔년꽃은 식물로 존재하지 않고 상상으로만 존재하는 꽃이다. 궁중의례를 기록한 의궤자료에도 나타나는 이 꽃은 무속의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꽃이다.

살제비꽃은 상상의 꽃으로 서울의 모든 굿에 사용되는데 재생과 환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가지꽃은 모든 굿에서 늘 사용하는 꽃으로 다리화나 목단으로 만드는데 한 가지에 여러 개의 송이를 꽃아서 가지꽃이라 부른다. 이들 꽃은 대개 만물상에서 만드는 것을 사용하나 이영희 씨는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 (4) 뒷전상

뒷전상의 상차림은 모든 굿이 동일하다. 기본적인 원칙은 있지만 실제 굿판의 사정에 따라 상차림의 내용이 매우 다르다. 과일, 유과 같은 것은 전물상에 차려놓은 대로 올리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고 하겠다. 밥과 떡을 각 세 그릇, 나물과 전을 각 세 접시를 올리고 유과를 함께 놓는다. 술은 흐린 술을 사용하며 걸립시루가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가지꽃 한 송이씩을 떡에 꽂는다. 굿에 따라 미역국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뒷전은 굿판에 오지 않은 여러 잡신들을 풀어 먹이는 거리로 어떤 잡신이 오는가에 따라 한두 가지의 음식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상에 차려놓은 음식은 헐어서 사람들이 먹지만 뒷전상에 차려놓은 음식은 뒷전이 끝난 후 한곳에 모아 버린다. 이름난 무당일수록 이 뒷전을 잘 놀아야 한다면 12거리를 놀면서 정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상 네 가지 상이 모든 굿에 공통되게 올라가는 상이다. 나머지 상들은 굿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제보자와의 대담과 굿판에서 관찰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물론 이들도 다른 굿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구 분	굿상
재수굿상	부정상, 산신본향상, 가망본향상, 불사상, 조상상, 장군상, 성주상, 뒷전상, 지신상, 안당제석상, 대신말명상
우환굿	부정상, 산신본향상, 가망본향상, 불사상, 조상상, 장군상, 성주상, 뒷전상, 지신상, 안당제석상, 대소대명상, 대신말명상
진오기굿 (새남굿)	부정상, 산신본향상, 가망본향상, 장군상, 망제님전물상, 뒷전상, 허주천개상, 연지당상, 사자상
내림굿, 가리굿	부정상, 산신본향상, 가망본향상, 조상상, 장군상, 성주상, 뒷전상, 지신상, 안당제석상, 대신말명상, 천궁맞이상
도당굿	부정상, 산신본향상, 가망본향상, 산신불사상, 장군상, 뒷전상, 산신지신상, 도당상, 구능상, 서낭상
맞이굿	부정상, 산신본향상, 가망본향상, 불사상, 장군상, 성주상, 뒷전상, 지신상, 안당제석상, 대신말명상, 천궁맞이상, 제당상
신사굿	부정상, 산신본향상, 가망본향상, 불사상, 조상상, 장군상, 성주상, 뒷전상, 지신상, 안당제석상, 대신말명상, 천궁맞이상, 제당상, 대감상

### 굿거리에 따른 굿상

이러한 상차림은 격식을 소중히 여기는 서울굿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굿판 사정은 그렇지가 않아서 간략화해지고 격식을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굿을 마을이나 일반 신도의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굿당에서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굿당에서 반복적으로 굿이 진행되자 같은 무당이 상을 할지 않고 같은 제물을 가지고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굿당에서도 상에 올랐던 여러 음식들이 결국은 남는 일이 반복되자 음식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무당이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환경을 고려할 때 굿상에 차리는 여러 음식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무당까지 나오고 있다. 좀 더 시간이 간다면 제대로 된 서울굿의 굿상을 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굿의 상차림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굿판에 나타나는 신령과 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안주거리>라고 하는 <장군거리>, <별상거리>, <신장거리>, <대감거리>는 서울굿의 백미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신령 중 상차림에 언급되는 것은 장군신 정도이다. <대감거리>는 황해도굿이나 평양굿에서도 서울 무당을 초청하여 맡기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면 대감신이 중요한 신령처럼 보이지만 대감시루 정도로만 상차림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쩌면 장군과 별상과 신장은 동일 신령이었고 후대로 오면서 분화되었을 가능성을 상차림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창부신을 받드는 창부상도 없다. 악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부신은 서울굿에서 뒷전 전에 행해지는 중요한 거리이다. 무당에 따라서는 <창부거리>를 잘 놀아야 굿이 잘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창부상이 없다는 것은 굿판에서 악사의 지위가 무당보다는 떨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창부거리>가 후대에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향상을 가망본향과 산신본향상을 따로 차리고 있지만, 실제 서울굿에서는 가망은 청배로 이어지고 산신은 여러 신령이 껴들어 오면서 활발하게 진행된다. 가망이 점차 굿판에서 그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호구신에 대해서는 어느 상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굿에서는 산신호구와 불사호구가 들어오는데 이들은 모두 산신본향상과 불사상에 포함된다면 호구신령이 굿상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비중이 떨어지는 신령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는 굿판의 성격에 따라 비중을 강하게 부여하는 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굿상이 여러 종류가 있고 굿의 종류에 따라 차려지는 상의 종류도 달라지는데 굿의 성격에 따라 다른 상보다 훨씬 중요하게 평가하는 상이 있다. 우환굿에서는 대수대명상이 비중있게 다루어져서 우환의 종류에 따라 상차림을 달리한다. 반면 도당굿에서는 불사상이 산신불사상으로 바뀐다. 진오기굿에서는 망제님 전물상이 차려지고 무당의 신적인 영험성과 관련이 있는 천신굿, 내림굿, 맞이굿에서는 천궁맞이상이 중요하게 평가 받는다. 이렇게 본다면 산신본향, 가망본향, 장군, 걸립은 어느 굿판에서나 중요한 신령으로 인정받고 대접을 받지만 다른 신령들은 대접을 받는 굿이 각각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 무속의 신령의 위상이 정리될 가능성이 발견된다. 죽음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승사자가 진오기굿에서나 겨우 상차림으로 나타나는 것은 죽음을 그만큼 경원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셋째로는 서울굿의 상차림에서는 제물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이 보인다. 떡, 나물, 과일, 전, 고기로 이 중에서 떡과 나물, 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나물 중 고사리, 도라지, 무나물은 각각 의미가 있어서 조상과 후손을 상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굿판에서 무당은 나물과 전을 직접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쁜 경우에는 주문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재가집이 무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집이라면 무당이 손수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가집의 특성에 따라 어물을 몇 접시 더 대안주상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2003년 2월에 있었던 진오기굿의 경우 재가집이 부산이라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오징어순대, 대합요리, 조기찜을 따로 올렸는데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 했다.

넷째로는 상의 규모를 줄일 때 시루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장군상에는 대감시루, 타

주시루, 성주시루, 구능시루를 올려서 각각의 신령을 모신다. 성주상을 따로 차릴 때에도 시루만은 반드시 차린다. 이러한 현상에서 무속에서는 시루를 하나의 작은 세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로 꽃(무화)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보인다. 살제비꽃, 수팔년꽃, 가지꽃 등이 가장 대표적인 꽃으로 예전에는 무당들이 직접 이 꽃을 만들어 사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만물상에서 이 꽃을 사다가 사용함에 따라 꽃 전승의 다양성이 없어지면서 가지꽃 만이 겨우 장식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편리성이 도입되면서 무당들은 기계화로 대량생산되는 꽃만을 이용하고 있고, 꽃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고 있어서 변화 양상이 확인된다.

여섯째는 상징성이 있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진오기에서는 팥떡을 사용하지 않고 편떡을 사용하는데, 이는 팥이 가진 축사 상징과 관련이 있다. 또한, 진오기굿에 송어찜을 올리기도 한다. 송어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서식하는 어류로 이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켜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술을 사용할 때도 맑은 술과 흐린 술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신령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일곱째는 상차림이 재가집에게 보이는 무당 정성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굿을 한 번 하기 위해 무당이 받는 비용은 상당하다. 재가집에게 무당은 자신이 받은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그런 측면에서 상차림의 음식에 변화를 주어서 재가집에게 자신의 성의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상차림은 신에게 바치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운 인간들의 또 다른 위세의 표현이다. 굿이 끝나고 상을 헐어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에서 그 음식이 결국은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굿음식에도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이 감지된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또는 딸기, 참다래(키위) 등이 굿상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훈제된 연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바나나 껍질은 신이 가다가 미끄러질 수 있다 하여 굿상에 쓰지 않는 과일이었지만 지금은 경제성으로 인해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재가집의 고향이 어디인가에 따라 굿상에 올라가는 제물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바닷가라면 여러 가지 어물이 올라가기도 한다. 그럴 경우 전악이나 무당들은 새로운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그 음식은 굿이 끝나기 전에 헐어져서 먹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결국 굿음식이 인간을 위한 하나의 장식으로 신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굿상은 굿판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가장 정적인 요소로 굿거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번 진설된 굿상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무구가 무당의 동작에 따라서 계속 사용되는 동적인 요소라면, 굿상은 술잔을 제외하고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굿판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신적인 힘과 가장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무당은 무가를 통해서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전달하고 춤을 통해 신을 흥겹게 한다. 무복을 갈아입으면서 신령의 존재를 제시하고 무구를 통해 굿판을 진행하고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굿상은 변함이 없다. 처음부터 신령이 정해진 상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굿판에서 역할을 다했다.

무복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각각의 옷에 맞는 거리에서 무당이 그 옷을 입고 연행함으로써만 의미가 있다. 무가는 불려져야 하는 것이고 춤은 무당의 행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자신들의 존재를 무당을 통해 드러내고 그로 인해 가치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굿상과 음식은 무당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존재함으로써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는 굿상이 굿판의 다른 여러 요소들과 달리 처음부터 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굿이 진행되는 공간은 주당을 물리고 부정을 침으로써 일반공간에서 신성공간으로 변화한다. 공간은 신의 영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무당의 적극적인 행동 표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굿상과 음식은 처음부터 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굿상은 무신도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 무신도와 굿상은 무당의 의사표시와는 상관없이 신의 영역에 포함된다. 무신도가 전적으로 신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 자체가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굿상은 인간의 정성을 신에게 나타내어 신의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굿상과 음식은 처음부터 신적인 영역에 포함이 되고, 그 속에는 인간의 적극적인 정성과 의사 표현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성격으로 볼 때 굿판의 여러 요소 중 신과 인간이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은 굿상과 음식을 통해서이고 여기에 굿상의 존재 가치가 있다.

굿판에 존재하는 여러 요소는 무당과 신이라는 두 존재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무가(巫歌)와 무무(巫舞), 공수와 동작들은 신과 무당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이런 과정 속에는 굿판에 참가한 재가집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무당의 적극적인 행동을 바라보면서 재가집은 굿에서 수동적인 존재로만 남는다. 그러나 굿음식의 경우는 그 의미라 달라진다. 재가집이 지불한 비용을 기반으로 전적으로 만들어진 굿상과 음식은 신과 재가집 양자 사이의 소통체이다. 굿에 소요되는 경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쓰이는 부분이 상차림 준비이다. 비록 그 상차림을 전적으로 무당이 맡아서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재가집을 대신한 일일 분 상차림은 무당이 아닌 재가집이 중심이 되는 굿판의 요소이다. 이러한 점은 무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가급적 상차림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준비하여 재가집에게 굿판의 화려함을 보이려고 애쓴다.

이처럼 굿상은 신에게 재가집의 정성을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치이며, 무당이 아닌 재가집이 중심이 되는 굿판의 요소이다. 이와 함께 굿상은 신의 영역에 포함되면서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굿상의 음식을 헐어서 나누어 먹는 것은 결국은 신이 아닌 인간이다. 그런 점에서 신에게 올리는 여러 가지 음식은 인간들의 기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신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굿상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여러 기호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굿상의 성격은 이중적이다.

신과 인간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곳이 굿상이다. 다른 여러 요소들이 신 또는 인간의 일방적인 의사가 내재되어 있다면 굿상은 양자가 만나는 쌍방향적인 요소이다. 사람들은 신을 위해 굿상을 차리는 것이 결국은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굿상은 다른 여러 요소들과 구별된다. 굿상은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신의 영험을 나타내는 장치이다.

## 나. 수리산산신제의 상차림

이러한 인식 아래에 수리산산신제에 사용된 상차림을 본다. 수리산산신제에서는 모두 세 종류의 상을 차린다. 본상과 산신상 그리고 뒷전상이다. 산신상은 수리산산신제의 주 신령인 산신에게 올리는 상으로 본상의 우측에 따로 차린다.

### (1) 산상

산신께 올리는 상이다. 과일로는 포도, 바나나, 배, 사과, 오렌지, 토마토, 용과, 밤, 대추, 수박, 파인애플을 올렸고, 그외 밤사탕, 약과, 옥춘, 다식, 산자, 두부전, 생선전, 육전을 삼색 나물과 함께 올렸다. 산신노구메로 밥을 올렸고 팔시루떡을 올린 후 위에는 지화로 장식을 하였다. 온갖 과일을 올린 것은 나름의 의미는 있으나 전통적인 상차림에서는 조금 벗어난다. 앞으로 상차림에 대해서는 산신제를 맡은 무속인과 함께 다시금 살필 여지가 있다.



### (2) 본상

좌측이 불사상이다. 고깔 셋을 백설기 위에 꽃아 불사상임을 드러낸다. 절편, 콩시루떡, 인절미를 백설기 옆에 차렸고 파인애플, 바나나, 수박을 차렸다. 그 앞에는 옥수 3그릇과 함께 흰밥 세 그릇을 올렸다. 본상이어서 삼색나물을 각각 한 접시씩 담아 올렸고 두부전을 올린다. 불사상에는 누리고 비린 것은 올리지 않는다. 가장 아래 쪽에 사과, 참외, 배, 오렌지, 토마토, 용과를 올렸다.

우측은 개인굿이라면 조상상이겠지만 산신제여서 가망, 말명, 대신 등을 모시는 상이다. 불사상에 백설기를 올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팔시루떡을 올렸고 나머지 떡은 불사상과 같다. 과일 등은 모두 불사상과 같고 전은 생선전과 육전을 올려 불사상과 차이가 있다.

중앙은 대안주상이다. 장군님을 비롯한 여러 신령에게 올리는 상이다. 옥춘, 웨하스젤리, 과자, 다식, 산자, 약과, 밤사탕 등을 올렸고 그 아래에는 갠 떡과 함께 삼색나물을 큰 접



시에 담아 올렸으며, 생선 3마리로 조리한 생선전, 육전을 올렸다. 양 옆에는 팥떡을 담은 시루를 올렸고, 시루 위에는 술 3잔과 함께 복어를 올렸다. 가장 앞쪽에는 향로와 함께 옥수를 올리고 술 3잔을 차린 후 촛대를 두었다. <산신거리>와 <별상거리>에서 사슬 세울 때 사용할 소 한 마리, 돼지 세 마리를 따로 두었다.

본상은 사실 새롭게 해석하여 차린 것이다. 상에 올린 과일도 바나나, 파인애플, 용과 등 새로운 과일이 있고 시루 숫자도 활용이 편리하게 조정하였다. 앞으로 상차림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본상과 사슬 세우기를 위해 준비된 소와 돼지

### (3) 뒷전상, 작두상

뒷전에 사용할 상은 본상을 차리면서 남은 제물을 조금씩 담아 제단 아래에 두었고 작두 옆에는 작두를 탈 때 신령에게 올리기 위한 작두상을 별도로 차렸다.



뒷전상과 작두상



#### (4) 상차림 음식 준비

음식은 다양한 경로로 준비한다. 먼저 육고기는 정육점에 연락하여 맞춘다.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정육점에서도 신경을 써서 좋고 깨끗한 것으로 준비한다. 과일상에 연락하여 과일을 주문하고 떡집에 연락하여 각종 떡을 맞춘다. 나물과 전은 당주무당이 직접 준비한다. 시장을 봐와서 나물은 정갈하게 다듬은 후 정성을 다해 무친다. 전은 동태포 뜯 것을 사가지고 와서 역시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

필요한 술도 미리 준비하는데 수리산산신제에서는 맑은 술을 주로 사용한다. 이 술은 명잔 복잔을 내릴 때 사용한다. 굿을 하는 무당은 술을 따른 잔을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명잔내림'이라고 한다. 이 잔을 받아 마시면 글자 그대로 명과 복을 받아 마시는 것이다.



수리산산신제에서의 명잔내림 모습

상차림은 직접 무당들이 한다. 전날 준비한 제물을 모두 합심하여 상에 올려 역할을 분담해 상을 차린다. 일일이 손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요즘 굿당에서 굿을 하게 되면 굿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차림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수리산산신제와 같은 마을굿은 직접 해야 한다.

#### (5) 음식 나누어 먹기

수리산산신제의 상차림에 올라간 음식은 모두 나누어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감거리>에서 대감을 모시고 놀 때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상의 음식을 찢어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창부거리>가 끝나고 <뒷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무당들이 가져가는 음식은 거의 없다. 이러한 나누어 먹이기에서도 마을굿이 가진 베품의 정신을 수리산산신제가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5. 수리산산신제의 장단

수리산산신제에는 다양한 장단이 활용된다. 개별 장단을 설명한다.

### 가. 청배장단

수리산산신제의 〈부정청배〉와 〈가망청배〉 거리에서 사용된다. 무당은 장고를 얹어서 자장단으로 치면서 무가 사설을 구송한다. 무가의 내용은 여러 신령의 나열이다. 동일한 장단으로 신령을 나열하던 무당은 장단을 빠르게 치면서 “내위야 제산으로 공수하시다.”, “정성덕을 입혀 주소사 시위 들으소서.” 등의 말을 주워섬긴다. 무당들은 이를 ‘염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염을 지은 후 다시 신령을 나열한다. 그런데 이러한 염을 짓는 것은 나열하는 신령의 성격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불사거리〉의 한 소절을 가져와 본다면 다음과 같다.

불이불사 신에불사 여불사 남불사  
천궁불사 일월성군님 사부칠성님 칠성마지 받으시고  
정성덕 입혀주소서 시위 들으소서  
여영산 남영산 산에 올라 호영산에 거리 뇌변에 객사영산<sup>32)</sup>

불사와 관련이 있는 여러 신령이 호명되다가 “정성덕 입혀주소서 시위 들으소서”라는 말이 나온 후에는 영산과 관련이 있는 여러 신령이 나열된다. 이로 미루어보아 청배 장단은 여러 신령을 나열하면서, 신령의 위상에 따라 구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개 서울굿판에서 청배장단을 연주하는 이는 그날 굿판에 불려온 청송무당이다. 청송무당은 기량이 매우 뛰어난 무당으로 여러 굿판에 불려다니며 굿만을 전문적으로 연행하는 무속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청배장단이 결코 쉬운 장단이 아니라고 한다. 특히 부정청배를 물리게 되면, 그날 진행될 굿의 성격과 재가집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sup>33)</sup>. 그러므로 청배장단은 신령을 불러들여 굿문을 열면서, 신령의 위상을 구분하고 그날 진행될 굿의 성격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또한 〈부정청배〉, 〈가망청배〉가 수리산산신제에 함께 사용되고 있어 ‘부정’과 ‘가망’이 신령의 이름이 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가망’은 굿문을 열어주는 근원신의 이름을 의미한다<sup>34)</sup>. 가망이 신령의 의미가 있어 청배라는 말이 가능하다면, 부정도 단순하게 굿청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신령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청배장단을 통해 부정과 가망은 동일한 신령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2) 홍태한, 『한국의 무가1』, 민속원, 2004, 179쪽.

33) 신현주를 비롯하여 서울굿판에 30여 년 이상 종사한 여러 무당들의 증언이다.

34) 홍태한, 「서울굿 가망청배거리에서 가망의 의미 연구」,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

## 나. 휘몰이장단

〈부정청배〉 후반부에서 부정을 물릴 때 사용한다. 청배장단에 맞추어 여러 신령을 호명하던 무당은 갑자기 장단을 휘몰이로 치게 되고, 다른 무당은 물과 불로 굿청을 정화하는 의식을 거행한다. 〈뒷전거리〉에서 수비를 물릴 때도 휘몰이장단을 사용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휘몰이장단은 부정한 것을 물리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굿거리가 끝남을 사방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다. 노랫가락장단

노랫가락 장단은 굿판에 여러 번 등장한다. 대개 모셔지는 신령의 이름을 붙여 상산노랫가락, 가망노랫가락 등으로 부른다. 음악적 짜임은 동일하다. 이 노랫가락은 장구를 연주하는 무당이 선굿을 하는 무당의 행위와 무관하게 연행한다. 내용을 보게 되면 각각의 굿거리 에 들어오는 신령을 모신 후 인간의 소망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노랫가락은 굿판에 모셔지는 신령 모두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다. 상산, 가망, 불사, 성주, 시왕가망, 중디 등 비교적 상위 신령에게만 바쳐진다. 서울굿판에 있는 신령의 위계질서가 비교적 느슨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만, 노랫가락이 바쳐지는 신령이라면 상위 신령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런 점에서 노랫가락은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장단이다.

## 라. 타령장단

노랫가락과 동일하게 타령장단도 사용하는 신령이 정해져 있어 대감, 신장, 중상, 창부, 사자 등의 신령이 등장하는 거리에 나타난다. 노랫가락과 달리 타령은 장구 장단에 맞추어 선굿을 진행하는 무당이 무가를 부른다. 무가의 내용은 대개 해당 거리에 등장한 신령이 흥이 나서 인간에게 복을 나누어준다는 내용이다. 노랫가락과 달리 타령은 재가집에게 직접 불러주며, 타령이 끝난 후 무당은 재가집에게 별비를 요구하는 것이 관례이다.

## 마. 상산장단

상산장단은 흔히 반염불장단이라 하지만 굿판에서는 상산장단이라고 한다. 이는 서울굿 〈상산거리〉에서 상산(장군)님이 거상을 할 때 연주하기 때문이다. 상산의대를 갖춘 무당이 상산장단에 맞추어 거상춤을 추는데, 이것은 장군신이 굿청으로 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산장단은 서울 경기굿에 등장하는 여러 신령 중 반드시 장군신에게만 연주되고 있어 상산장단이라고 한다. 장군이 서울굿에서 매우 중요한 신령임을 고려하면 상산장단 역시 매우 신성한 장단이라는 의미이다. 신성성을 가진 상산장단은 신성성을 강조하는 거리에서만 연주된다. 〈진적거리〉에서 굿판에 온 사람들이 신령님에게 인사를 올릴 때 상산장단을 연주하고,

진오기굿에서는 <상식거리>에서 저승으로 천도된 망자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한다. 인간이 처음으로 신을 만나면서 신성한 굿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상산장단이 필요하고, 망자가 저승으로 들어가 존재의 위상이 바뀜으로 인해 상산장단을 연주한다.

이러한 성격으로 보아 상산장단은 인간과 신이 처음 만날 때 연주되는 장단이다. <진적거리>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신을 뵈 때, <상식거리>에서 조상으로 좌정하여 위상이 바뀐 망자를 처음 만날 때 연주하기 때문이다. 상산은 서울굿판에서 무당의 조종으로 받들어 모시는 인물이다. 진오기굿을 할 때도 상산에 죽음을 고하는 절차인 물고를 받는 것으로 볼 때 상산은 저승으로 떠나는 망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려야 하는 신령이다. 따라서 상산장단은 서울굿의 장단 중에서는 가장 신성성이 높은 장단이다.

## 바. 굿거리장단

대부분의 굿거리에서 들이숙배나숙배<sup>35)</sup>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이 오는 시늉과 맞물린다. 따라서 모든 굿거리에 사용되는 음악장단이다. 그러므로 굿거리의 등장을 통해 개별 굿거리의 구분이 가능하다.

<불사거리>에는 불사-칠성-제석-중상-신장-대감-부인-호구 등의 여러 신령이 등장한다. 이들을 하나의 거리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바로 굿거리 장단의 존재이다. 불사가 들어와 공수를 준 후 다시 칠성이 들어오는 그 사이에는 굿거리 장단은 나타나지 않고 당악 장단만 나온다. 그래서 불사-칠성-제석을 하나의 <불사거리>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감거리>가 끝나고 바로 <창부거리>가 이어지는데, 이때는 굿거리장단이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굿거리장단은 개별 굿거리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고, 굿거리와 굿거리 사이에 등장하는 신령은 모두 동일한 성격의 신령일 가능성을 암시한다. <진적거리>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굿거리는 개별 신령이 굿판에 등장함을 나타내는 장단으로 보인다.

## 사. 별상장단

허튼타령장단이라고도 불리며, <상산거리>와 <별상거리>에서 사용된다. 별상은 서울굿판에서 욕심 많고 탐심 많은 신령으로 간주되어 모두 조심하는 신령이다. 경기도 굿판에서는 마을마다 모셔지고 있는 호구신 계통으로 역시 사람들에게 노여움을 잘 부리는 신령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별상신을 위하여 연주하는 장단으로 상산장단과 동일하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상산거리>와 <별상거리>에 사용하는 장단을 굳이 별상장단이라 이름한 데에서 별상신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서울굿에서 사술은 모두 두 번 세운다. <산신거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산신군웅이 들어오게 되면 사술을 세우고, <대안주거리>에서 별상신이 들어오게 되면

---

35) 굿이 시작되면서 무당이 신을 청하기 위해 앞뒤로 움직이는 춤을 이렇게 부른다.

사술을 세운다. 별상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성과가 있었는데 주신이라기보다는 부속신의 성격을 가진다<sup>36)</sup>. 산신의 부속신으로 산신군웅이 존재하듯이 상산신의 부속신으로 별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산신군웅과 별상이 사술을 받는다. 이런 점에서 상산신이 들어올 때 연주하는 장단이지만, 별도로 별상장단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아. 당악 장단

가장 기본적인 수리산산신제 굿거리 음악이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잖게 들이숙배나숙배를 하던 무당은 당악 장단에 맞추어 뛰기 시작한다. 이제 신령이 굿판에 뛰어들어오는 모양을 나타낸다. 굿거리 없이 당악만 연주한다면 바로 앞서 나온 신령과 동일한 계통의 신령이 연이어 나온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굿거리장단 + 당악장단’이 굿거리의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면, 당악장단만이 나왔을 때 굿거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 자. 만수받이장단

과거 서울·경기굿판에는 만수받이 장단이 지금보다는 다양했으나, 현재는 〈불사거리〉, 〈사재거리〉, 〈뒷전〉 등에 사용된다. 만수받이가 사용된다는 것은 굿의 성격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의미로 보인다.

〈부정청배〉, 〈가망청배〉 이후 〈진적거리〉를 통해 신과 인간이 처음으로 만난다. 그리고 뒤를 이어 본격적인 굿이 진행되는데 그것이 〈불사거리〉이다. 따라서 불사만수받이를 통해 굿의 성격이 청배에서 청신으로 넘어가는 의미를 보인다. 〈뒷전〉도 동일하다. 굿판이 중반부에서 중반부로 넘어감을 보여 준다.

진오기굿에서 〈사재거리〉의 성격이 그러하다. 진오기굿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뜯대왕거리〉가 연행된다. 〈뜯대왕거리〉에서는 시왕가망, 십대왕, 중디, 말명 등의 저승에 존재하는 여러 신령이 나열된다. 이때는 주로 노랫가락이 연행되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저승의 신과 인간이 만나지는 않았음을 나타낸다. 뒤이어 사재만수받이가 진행되면서 저승의 사자가 이승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수받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순하게 신령이 굿판에 들어오는 과정이어서 재가집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재만수받이’가 진행되면서 재가집은 굿판에 참가하여 무당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만수받이의 존재는 굿거리의 성격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불사만수받이’가 진행되면서 굿은 신을 청배하는 초반부에서 본격적인 중반부로 진행될 수 있고, ‘뒷전만수받이’가 진행되면서 중반부로 진행된다. ‘사재만수받이’를 통해 저승의 신이 비로소 인간과 만나 망자를 저승으로 데려가는 여러 시늉을 할 수 있다<sup>37)</sup>.

36) 홍태한, 「군웅의 의미와 지역별 망자천도굿의 비교」, 『비교민속학』 제32집, 비교민속학회, 2006.

37) 〈뜯대왕거리〉와 〈사재삼성거리〉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의미로 보게 되면 두

## 차. 물림장단

모든 굿을 시작하기 전에 굿청을 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단이다. 재가집을 비롯하여 일반 사람들을 굿청 밖으로 물린 후 무당은 빈장고와 제금을 요란하게 울려 굿청을 정화한다.

이상과 같이 굿거리와 관련한 이러한 개별 장단의 존재는 서울굿판의 대부분의 음악이 청신의 과정에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강신무의 굿은 ‘청신-오신-공수-송신’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수리산산신제 장단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장단 이름	주된 기능	부수적 기능
청배장단	여러 신령을 굿판에 모신다.	
노랫가락장단	상위신을 모신다.	인간의 소망을 기원한다.
상산장단	상산신을 모신다.	진적, 상식거리 등에 사용하여 신성성을 드러낸다.
굿거리 장단	여러 신령을 모신다.	굿거리 앞뒤에 등장하는 신령의 계통을 구분한다.
별상장단	별상신을 모신다.	진적, 상식거리 등에 사용하여 신성성을 드러낸다.
당악장단	여러 신령을 모신다.	당악 앞뒤에 등장하는 신령이 동일한 계통임을 드러낸다.
만수받이 장단	불사, 사재, 뒷전의 잡신을 모신다.	굿의 흐름을 구분한다.
타령장단	신령이 흥을 드러낸다.	
휘몰이장단 물림장단	잡신을 물린다.	

### 수리산산신제 장단의 기능

거리는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 카. 각 개별 장단의 연결과 의미

수리산신제의 장단은 개별 굿거리에 하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둘 이상의 장단이 연이어 등장한다. 여기서는 장단의 결합이 무속적으로 어떤 의미망을 가지는지를 규명하기로 한다.

### 1) 노랫가락과 타령에 따른 신령의 위상 구분

노랫가락을 받는 신령과 타령을 하는 신령은 정확하게 구분된다. 노랫가락의 내용은 신을 청배한 후 신에게 인간의 소망을 간절하게 기원하는 내용이다. 반면 타령은 흥이 오른 신령이 인간에게 복과 명을 주겠다고 흥겹게 부르는 노래이다. 창부타령처럼 액을 막아주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기도 한다.

노랫가락이 등장하는 개별 굿거리에서는 무당과 재가집 사이에 구체적인 행동이 진행되지 않는다. 장구를 치면서 무당이 노랫가락을 부르기 때문에 재가집은 경건한 자세로 노랫가락을 들으면서 정성이 잘 통해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타령이 등장하는 굿거리에서는 무당과 재가집 사이에 적극적인 행동이 이루어진다. 무당은 타령을 부르면서 재가집에게 복을 퍼주는 시늉을 하고 재가집은 주머니나 옷자락으로 복을 받는 시늉을 한다. 타령을 부르면서 무당은 재가집에게 별비를 요구하고 재가집은 선뜻 별비를 준다.

노랫가락이 엄숙함을 전제로 한다면 타령은 흥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노랫가락을 받는 신령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까이하기에 매우 어려운 신령이다. 상산처럼 무당의 조종이고, 성주처럼 집안에 으뜸가는 신령이다. 그러나 타령을 부르는 신령은 인간에게 매우 가까운 신령이다. 직접 인간에게 복을 가져와 퍼주는 신령으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려움 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신령이다.

이처럼 노랫가락과 타령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결정하며, 신령의 위상이 서로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 2) 굿거리와 당악의 성격에 따른 개별 굿거리의 구분

굿거리장단은 대개 개별 굿거리의 처음에 연주되고 당악은 개별 굿거리가 진행되는 중간 중간에 자주 연주된다. 굿거리장단이 연주될 때에는 개별 굿거리가 시작될 때이다. 무당은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들이숙배나숙배를 올려 신령이 들어오기를 청한다. 신령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악 장단이 연주되고 이에 맞추어 무당은 뛰는 춤을 춘다. 춤을 멈춘 무당은 재가집에게 공수를 주고 옷을 바꾸어 입으며 들어온 신령을 보내고 새로운 신령을 모시는데 이때에는 당악 장단이 연주된다.

따라서 신령을 불러들일 때는 ‘굿거리+당악’인 경우와 당악 장단만이 연주되는 경우가 있다. 굿거리장단과 당악장단이 함께 연주되는 것은 굿거리가 바뀌었다는 의미로 이때에는 연행하는 무당도 바뀐다. 그러나 당악장단만이 연주될 때에는 무당도 바뀌지 않고, 연이어 들어오는 신령은 서로 동일한 계통의 신령이다.

이러한 것은 <대안주거리>의 성격을 명확하게 한다. <대안주거리>는 글자 그대로 큰 안주를 바치는 곳거리로 서울곳에서 매우 중요한 거리이다. <대안주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곳거리	장단	세부 내용
상산거리	상산장단+곳거리+별상장단+당약	상산
	당약	최영장군
	당약	명잔내림
별상거리	별상장단+당약	별상
	당약	사슬세우기
신장거리	당약	신장
	당약	신장공수
	타령	신장타령
대감거리	당약	전안대감
	당약	양반대감·조상대감
	당약	대신대감
	당약	텃대감
	당약	끝내기

#### 대안주거리의 구성



굿거리장단은 <상산거리>의 시작에만 사용한다. <별상거리>부터 <대감거리>까지는 주로 당악을 사용하여 진행한다. <별상거리>에 사용하는 별상장단과 <상산거리>에 사용하는 상산장단은 신성한 의미를 보여주어 상산신과 별상신의 위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대안주거리>를 그동안 <상산거리>-<별상거리>-<신장거리>-<대감거리>로 나누어 본 것은 굿거리장단의 존재로 인해 동일한 거리로 보아야 한다. 현재도 서울굿판에서 무당들은 대안주 드린다고 하면서 상산부터 대감까지를 같은 무당이 옷을 벗고 바꿔 입으며 연이어 진행한다. 따라서 굿거리장단과 당악장단은 개별 굿거리의 구분에 의미가 있다.

### 3) 장단에 따른 신령 등장의 차이와 개별 굿거리의 의미

이러한 굿거리장단과 당악장단의 짜임을 바탕으로 하면 ‘굿거리장단+당악장단’은 신령이 굿판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상산장단+굿거리장단+별상장단+당악장단’은 신령이 위엄있게 굿판으로 나오는 의미를 보이고, ‘별상장단+당악장단’은 별상신의 신성성을 강조하면서 신령이 굿판에 등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배장단은 신령이 직접 굿판에 등장하는 의미보다는 인간이 신령의 등장을 소망하는 의미를 가진다. 아직 직접적으로 신령이 등장한 것은 아니고 신령이 굿판에 나오기를 간청한다. 그리고 신령이 등장하는 과정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한 것을 물리기 위해 휘몰이장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단의 의미를 개별 굿거리와 연결하여 보게 되면 서울·경기굿의 일반적인 양상이 보다 명확해진다. 일반적인 서울·경기의 재수굿 열두거리는 다음과 같다.

- 1) 주당물림
- 2) 부정청배
- 3) 가망청배
- 4) 진적
- 5) 불사거리
- 6) 산거리
- 7) 가망·조상거리
- 8) 대안주거리
- 9) 성주거리
- 10) 창부거리
- 11) 제면거리
- 12) 뒷전

열두거리의 성격은 각각의 굿거리에 사용하는 장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곳거리 이름	사용하는 장단 이름	곳거리의 성격
부정청배	청배장단	신령을 굿판에 청하기
	휘몰이장단	부정한 것을 물리기
가망청배	청배장단, 노랫가락장단	신령을 굿판에 청하기
진적	상산장단, 곳거리장단, 별상장단, 당약장단	굿판에서 신령을 인간이 처음으로 뵈기
불사거리	만수받이장단	곳거리의 성격 전환
	곳거리장단, 당약장단	개별 신령의 등장
산거리 이하	곳거리 장단	곳거리의 구분
	당약 장단	동일 계통의 신령 등장
뒷전	만수받이	곳거리의 성격 전환
	휘몰이장단	부정한 것 물리고 끝내기

곳거리별 장단의 사용과 곳거리의 성격

이처럼 개별 굿거리는 신령이 중심이 되지만 장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리산산신제에서는 여러 무속인이 번갈아 장구를 맡아 장단을 이끈다. 악사가 굿판에 오기는 했지만 굿을 이끄는 것은 장구이다. 장구는 앞에 기술한 여러 장단을 연주하면서 굿판에 들어온 신령의 위상에 맞게 굿을 이끈다.

## 6. 수리산산신제의 춤

세습무의 춤이 예술성을 강조하면서 정적이고 단아한 느낌을 준다면 강신무의 춤은 역동적이고 힘차다. 높이 뛰면서 신적인 힘을 과시하고 동작이 크다. 서울굿은 강신무권이면서도 세련된 예술성을 견지하려고 하여 굿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보인다.

서울굿의 춤은 주로 처음에는 암전하게 거상장단에 맞추어 추다가 뒤에 가서는 뒷꿈치를 들고 발돋움을 하면서 된다. 이것은 강신무라면 누구나 추는 춤으로 서울지역이 강신무권이기 때문에 이렇다. 서울굿의 기본이 되는 춤은 삼진삼퇴(三進三退)로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왼발을 왼쪽으로 비껴 디디면서 삼각형을 그리는 상산춤이다. 대부분의 굿거리에서 무당은 거상장단에 맞추어 이 춤으로 굿을 시작한다. 발을 한 발 딛고 난 후 다른 한 발을 모을 때는 딛는 것이 아니라 끌어 모은다. 중간중간에 원을 그리면서 돌기도 한다. 손놀림새는 주로 췌자나 섭수 자락을 양손으로 잡고 양사위로 엇갈려 가며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sup>38)</sup> 이러한 춤이 공수 직전에 오게 되면 빠른 장단에 맞춰 무릎을 약간씩 움직이며 뒷꿈치만 들다가 점차 빨라진다. 무악이 점차 빨라지고 고조되면 전신을 똑바로 하고 높이 뛰어 오른다. 이처럼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춤으로는 활발하고 위세당당함을 드러내는 몸짓춤이 많다. 어떤 뚜렷한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몸짓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다. 춤 동작이 크고 다소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서울굿의 주재자가 강신무이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강신무의 춤이 세습무의 춤보다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수리산산신제에서 사용되는 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들이숙배나숙배춤

모든 굿거리의 시작에서 볼 수 있는 춤이다. 무복을 갖추어 입은 무당은 장단에 맞추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물러서기를 몇 차례 반복한다. 이를 들이숙배나숙배춤이라 한다. 신령에게 공손하게 예법을 갖추는 춤이라 볼 수 있다.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서사무가 <바리공주>에도 서천서역국을 가는 바리공주가 부처님이나 산신을 만났을 때 ‘들이숙배 내숙배’를 들인다고 되어 있어 연조가 오래되고 예법을 갖춘 춤임을 알 수 있다. 수리산산신제에서도

38) 서울굿의 악기와 무구, 춤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 잘 실려 있다. 홍태한 외, 『한국의 무속-서울 황해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9.

각 거리의 시작에서는 항상 이 춤이 있다.



### 들이숙배나숙배춤

(2022년 제9회 수리산산신제 중 <산신거리 모습>)

#### 나. 거상춤

<장군거리>에서 볼 수 있다. 상산의대를 갖추어 입은 무당은 장단에 맞추어 팔을 약간 들고 전후좌우 사방으로 걸음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돌아오는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 상산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서울지역에서는 특별하게 대우하는 신이다. 거상춤을 출 때만큼은 반염불, 굿거리, 허튼타령, 당악 장단이 모두 사용된다. 무당에 따라서는 이를 '신령님 거상(거성) 드린다'고 말하기도 한다. 장군님이 위용을 갖추고 인간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이 거상춤은 무당의 연조와 비례한다. 걸보기에는 쉬운 춤이지만, 발걸음이나 동작, 맵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수리산산신제에서는 대개 이 부분을 경력 있는 무당이 맡아 한다. 가장 엄숙하고 장중한 춤이다.

#### 다. 뛰는 춤

신령님이 강림하여 인간에게 공수를 주기 직전에 추는 춤으로 강신무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춤이다. 무당은 양발을 모은 후 제자리에서 뛰어오른다. 무작정 높게만 뛰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뛴다. 뛰는 모습을 보면 가벼우면서 무게가 있고, 사뿐사뿐한 듯하면서도 장중한 느낌을 준다. 연조에 따라 뛰는 모습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신을 모신 지 오래되지 않은 무당은 높이 뛰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경력이 오래된 무당은 발뒤꿈치를 약간 드는 느낌을 드는 정도로 뛴다. 수리산산신제의 각 거리에서 이 춤을 볼 수 있다.

## 라. 제금 들고 드는 춤

제금을 들고 추는 춤으로 중상신이 내려온 경우에 볼 수 있다. 무당은 제금을 양 손에 들고 가볍게 몸을 흔들면서 바라는 사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투어 제금에 시주돈을 준다.



### 제금 들고 추는 춤

(2021년 '제8회 수리산 산신제' 중 <불사거리> 모습)

## 마. 신장춤

<신장거리>에서 오방신장기를 들고 추는 춤이다. 양손에 신장기를 갈라 쥐고 흥겹게 몸을 흔들면서 가볍게 전후로 다닌다. 신장이 흥겹게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신령임을 고려하면 경쾌한 느낌을 주면서도 경박한 느낌을 주지 않게 춰야 한다.

## 바. 대감춤

<대감거리>에서 흥이 오른 대감이 추는 춤이다. 손에는 돼지 족발이나 북어를 들고 추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격식을 갖추기보다는 흥이 많이 올랐음을, 그래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명과 복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어깨를 흔들고 손을 좌우로 가볍게 휘저으면서 춘다. 수리산산신제에서 <대감거리>가 굿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직접 공수를 주고 복을 나누어 주는 거리임을 생각하면 굿판의 분위기를 아주 흥겹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 아. 바라기춤

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적인 동작이다. <산신거리>나 <불사거리>에서 신을 청할 때 이 동작이 나온다. 무구를 높이 들고 사방을 바라보면서 신들이 강림하기를 청한다. 어느 한 방향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바라보고 한다. ‘바라기춤’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신을 모시는 동작이라고 정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을 모셔 놀리고 난 후 공수를 듣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 자. 뒷전춤

<뒷전거리>에서 사용하는 여러 동작을 말한다. 뒷전에서는 여러 하위 신령들을 불러 모시고 해학적인 동작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동작을 모두 일러 ‘뒷전춤’이라 했다. 맹인이 들어와 맹인 시늬를 하는 장면에서의 춤, 지경을 닦을 때 보이는 손동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에 북어를 던져 북어머리가 밖으로 향해야 좋다고 여기는 것도 일종의 뒷전춤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 수리산 산신제

---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

## V. 수리산산신제의 전승 주체

1. 내적주체

2. 외적주체

---



## V. 수리산산신제의 전승 주체

### 1. 내적 주체

수리산산신제는 안양시민들이 주체이다. 하지만 이들은 구체적으로 결집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신해 수리산산신제를 끌고 갈 주체가 필요하다. 안양시에 서는 이 역할을 안양문화원과 안양시청이 하고 있다. 이를 일러 내적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주체는 실질적인 주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안양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양시와 안양문화원이 수리산산신제의 표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수리산산신제 제단에 올린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의 깃발을 내리고 그 자리에 안양시를 나타내는 깃발을 올리는 등 가시적인 등장을 해야 한다.

내적 주체가 수리산산신제 전면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래에 기술하겠지만 수리산산신제보존회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수리산산신제를 주도한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와 안양문화원, 안양시청의 관계자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수리산산신제 연행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진다. <산신거리>에서 신장 기점을 칠 때는 다수의 시민들이 줄지어 나와 깃발을 뽐으면서 무속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는 별비를 다투어 내면서 산신제에 참여한다. <작두거리>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작두를 둘러싸고 무속인의 동작 하나, 말 한마디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이 수리산산신제의 주체임을 매우 잘 알고 있어 이들의 열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2. 외적 주체

수리산산신제는 의례이다. 의례를 거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 역할을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가 담당하고 있다. 오랫동안 잊힌 수리산을 정면에 내세우는 산신제를 올린 것은 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의 공로이다. 그동안 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가 걸어온 길은 다음과 같다.



###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 연혁

하지만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는 안양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들이 수리산산신제를 맡고 있는 있지만, 자신들을 정면에 내세우는 한 수리산산신제는 안양시의 수리산산신제가 아닌 이들의 수리산산신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는 외적 주체로 설정하고 이들은 외곽 지원단체의 구실을 해야 한다. 내적 주체와 외적 주체는 상보적 관계임을 인식하고 서로 연합하여 수리산산신제를 주도해야 한다. 내적 주체와 외적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에 상술한다.

2022년 수리산산신제를 맡은 이들이 외적 주체의 대표적인 구성원들이다. 곳거리별로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역 할	담당 인력
총괄진행	: 한상윤
부정청배, 가망청배, 진작	: 김영애
산신거리	: 한대석
불사거리	: 김영애
가망·말명·대신거리	: 이평자
대안주거리	: 권희락
창부거리, 계면거리	: 조소연, 김소희, 김청화
뒷전거리	: 김영애
작두거리	: 김주영
길가름	: 이평자
군웅풀이(군웅거리)	: 장태익
악사	: 박덕근(피리), 김상태(대금), 김재용(해금)

### 2022년 제9회 수리산산신제 외적 주체 구성원

이들은 모두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의 회원이면서 임원들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이 오랫동안 수리산산신제를 준비하고 주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맥이 이어지게 한 큰 공헌을 했다. 이제는 이들과 안양의 시민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 수리산 산신제

---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

## Ⅵ. 수리산산신제의 가치와 발전 방안

1. 수리산산신제의 현대적 의미
  2. 수리산산신제의 무형유산으로의 가치 평가
  3. 수리산산신제의 발전 방안
  4. 수리산산신제의 구체적 발전 방안
-

## VI. 수리산산신제의 가치와 발전 방안

### 1. 수리산산신제의 현대적 의미

수리산산신제는 전통을 이으면서 새로운 모습을 수용한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서울·경기지역의 무속 전통을 이어 12거리 구성을 확립하였다. 〈부정청배〉부터 〈뒷전거리〉까지 굿 문법에 충실하게 굿을 구성하였다. 〈산신거리〉를 가장 앞서 연행함으로써 수리산산신제가 산신을 위한 의례임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굿거리를 창안하였다. 〈작두거리〉, 〈길가름〉, 〈군웅거리〉 등을 새롭게 연행함으로써 수리산산신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축제로서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마을굿은 종교의례이다. 사제가 있고 주신령인 산신이 있으며, 참가하는 신도로 마을 주민들이 있다. 이 세 존재가 상호 소통하면서 연행되는 것이 마을굿이다. 무당은 신령과 주민의 중간 존재로 신령의 뜻을 주민에게 전달해주고 주민들이 소망을 신령에게 아뢰어 준다. 굿판에서 마을 주민들이 공수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 속에 자신들의 재수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굿을 종교의례로 여기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종교의례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위상 정립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마을굿이 단순히 종교의례로만 존재했다면, 종교의례로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마을굿이 없어지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종교의례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으면서도 마을굿은 남아있다. 이것은 마을굿이 종교의례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마을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는 역할도 했다는 의미이다.

존재가치를 확인한다는 것은 마을굿 행사를 통해 마을주민 개개인이 마을의 구성원임을 느끼고, 마을이라는 틀로 묶여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산신이라는 상징적인 신령을 통해 자신들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한다. 마을당에 얽혀 있는 영험담이나 위력담은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한 마을의 구성원임을 안다. 마을굿이라는 행사를 통해 동일한 구성원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마을은 새롭게 태어난다.

종교의례로서의 마을굿은 사라지고 있지만, 이러한 의미로서의 마을굿은 지금도 남아있다. 종교의례에서는 주신령이 있어 마을굿의 중심축을 잡을 수 있다. 주신령과 함께 굿판에 들어온 여러 신령들의 공수를 통해 마을굿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례성이 거듭 확인된다. 주신령에 대한 관념이 마을굿의 종교성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의식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종교성이 사라지면서 마을굿은 마을의 상징으로 존재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한 여러 양상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과거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맞지 않지만 새로운 변화상을 수용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의 변화상은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마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일어난 현상들이다. 마을의 변화에 따라 굿 재차를 변화시키고, 연행 공간의 의미 변화, 마을굿 주체의 변화까지 수용하는 것은 마을굿의 현대적 적응성이다. 비록 종교 의례적 기능은 사라졌지만, 이처럼 적극적으로 현대적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마을굿이 마을을 대표하는 행사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일회적 행사라는 의미를 마을 주민들에게 주더라도 마을굿은 살아남는 길을 택한다. 왜냐하면 마을굿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전통적인 마을 관념도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종교의례성은 사라져도 변화를 수용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마을굿이 택한 존재 방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 방향을 선택한 주체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쉽게 내릴 수 없다. 무당이라면 신령의 조화이고 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마을당을 아직도 믿는 고로(故老)들이라면 그것이 마을에 존재하는 산신의 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어렵פות이나 답을 제시한다면 전통의 힘이 아닌가 한다. 전통은 무생물이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답이 될 수 없겠지만, 전통이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힘을 가진 존재이고 부지불식간에 그 힘의 영향을 주민들이 받는다면, 그 힘이 마을굿을 사라지게 하지 않고 현대적 변화상을 수용하면서 살아남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수리산산신제는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무속인 단체가 이끄는 행사로 변화했다. 마을굿을 주재하는 당주무당은 마을굿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보인다. 마을굿이 열리는 곳에 언론기관이 찾아와 관심을 보일 때 당주무당은 나서서 인터뷰를 하고, 사진작가나 학자들에게 기꺼이 문을 연다. 미신으로 치부 받고 있던 마을굿이 본격적인 행사를 통해 공인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적인 측면은 비록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전통의 힘으로 마을굿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러 가지 변화상은, 기준을 과거의 마을굿에 두었을 때에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마을굿에 기준을 둔다면, 이는 적응이다. 마을굿은 나름대로 현대 사회에 적응하면서 새롭게 살아남고 있다.

이는 민속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속을 우리의 전통문화, 잔존문화라고 본다면 민속은 변화되지 말아야 한다. 민속 조사를 위해서는 대도시가 아닌 과거의 문화가 살아있다고 평가받는 지방을 찾아가면 된다. 변화된 것은 깨어진 민속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민속을 우리의 생활로 본다면, 민속은 고정적이지 않다. 시대 변화에 따라 발 빠르게 적응하고, 담당층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도 민속의 소멸이라 할 수 있지만, 민속이 적응하지 못하고 소멸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길이 올바른 적응이라고 생각했다면 민속은 사라질 수 있다.

종교적 의례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수리산산신제는 마을굿이 아닌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속의 본질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현재의 마을굿은 새롭게 적응된 민속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담당층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마을굿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전통에 대해 거론할 수 있다. 완전하게 사라진다면 전통에 대해 말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에 기술한 마을굿의 변화는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조되기도 하고 적응하기도 하면서 흘러가는, 민속의 본질을 보여준다.

## 2. 수리산산신제의 무형유산으로의 가치 평가

문화재청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조사 지표의 항목 및 배점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리산산신제와 같이 개인이 아닌 다수가 전승하는 종목을 단체종목이라고 하며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전승능력이나 전승환경은 말 그대로 무형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둔 평가로 수리산산신제의 실질적인 가치 평가와는 무관하다. 전승능력의 세부 항목으로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 및 이해 정도, 전승 단체의 운영 기간과 전승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따지고, 전승환경으로는 교육형태와 사회적 관심 정도, 시설 및 장비 현황, 전승 주체의 전승 의지 등을 따진다. 그런데 이 두 항목은 모두 무형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에 필요한 항목으로 수리산산신제의 현재적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수리산산신제의 가치를 진작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둔 주체가 있

다면 마땅히 관심을 가질 항목이지만 글쓴이는 이 항목에는 큰 관심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항목은 전승가치로, 전승가치 평가 항목을 일별하면서 수리산산신제의 가치를 살피는 것은 무형문화재 지정과 무관하게 수리산산신제의 가치를 파악하는 유용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전승가치의 평가 항목은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다음과 같았다.

기본 항목	세부적인 내용
역사성	전승된 기간 무형문화재 형태의 지속성 정도 역사적 근거의 신뢰성 정도
예술성	고유성의 수준 형식미 내용미의 수준 표현미의 수준 기능성 정도
학술성	한국문화 연구에 대한 기여 가능성 수준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지역성	지역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평가 기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이라는 네 가지 기본항목은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의 지표를 넘어서서 무형문화의 일반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대단히 유용한 기준이 된다. 무형유산의 역사를 따지면서, 형식과 내용의 가치를 따지는 예술성을 포함하면서 학술적인 가치, 지역적 의미를 따진다면 무형문화 자체의 가치는 도출될 수 있다. 그러다가 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기존에 시행되던 세칙을 확장하여 세대 간의 전승과 전형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

형문화재의 특성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 나.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다. 표현미, 형식미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마.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sup>39)</sup>

이를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 항목	세부적인 내용
역사성	전승된 기간 관련 문헌 자료 및 구술 자료 근거의 신뢰성 정도
학술성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 자료 가치 학술연구 자료로서의 가능성
예술성(기술성)	유사 종목과 비교할 때 고유성의 수준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가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대표성 수준 사회 문화 형성에 기여한 수준
대표성	지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한국 전통문화로서의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형태의 변화 정도와 지속적 가치 공동체 및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수준 현재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준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평가 기준

3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14조 1항 관련) 발췌.

과거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동체 및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 현재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판단하는 항목을 첨가하였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단순히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인과 전승 단체가 아닌 공동체 및 집단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이다. 물론 이것이 수리산산신제의 진정한 가치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최상의 기준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 이상의 기준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형문화, 무형유산의 가치 연구의 기반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기준으로 수리산산신제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수리산산신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 가. 역사성에 대한 평가

수리산산신제의 전승된 기간은 길지 않다. 따라서 수리산산신제와 관련한 신앙에 대해 다양한 자료를 모을 필요가 있다. 좀 더 다양한 구술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수리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수리산 신앙에 대한 여러 경험들 등 관련된 자료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안양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수리산 영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야 한다.

### 나. 학술성에 대한 평가

그동안 발표된 수리산산신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수리산산신제의 학술성 평가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애써 논의를 전개한 여러 글들이 있어 수리산산신제의 가치가 지금 온전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리산산신제의 학술성은 지금 현재 전승되면서 올리는 산신제 자체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자료 집적이 있을 때 더 확연해질 수 있다. 어떻게, 누가, 언제, 왜 수리산산신제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 집적과 이에 대한 해석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수리산산신제의 학술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여겨 판단을 유보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는 수리산산신제 자체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주변부에 대한 연구라고 감히 판단한다.

### 다. 예술성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올리고 있는 수리산산신제 자체에 대한 평가이다. 유사 종목과 비교할 때의 고유성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산신

신앙을 포괄하는 민속신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수리산산신제의 특징을 드러내야 한다. 수리산산신제를 다양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고유성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를 따져야 하는데 사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지표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식미란 무형문화재의 외적인 형식이 갖고 있는 조화나 균형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오광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래되고 있는 오행설과 관련이 있으며 다섯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완결된 형식을 갖고 있어 형식미가 뛰어납니다. 내용미는 무형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광대는 그 내용이 당시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민들이 이를 통해 쾌감을 느끼는 등 내용 면에서 상당한 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의 무형문화재 경우 형식미, 내용미를 나타내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표기하세요. 표현미는 실제 표현되었을 때 나타나고 있는 표현미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춤의 경우 탈춤을 연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표현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형식미란 외적인 형식으로 수리산산신제의 정밀한 의례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용미는 수리산산신제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가치를 가리킨다. 표현미는 실제 수리산산신제를 올릴 때 어떠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가를 기술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 항목 평가에서는 의례의 배경으로 용 모양, 굿상차림, 장식 등이 언급되고 구체적인 연행 요소로서 음악, 춤, 말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리산산신제의 완결된 굿 형식의 설정 및 진행의 정밀함과 고정적 체계가 필요하다. 이 항목 역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 라. 대표성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은 앞의 항목에 대한 평가 항목과 연동된다. 학술성과 예술성을 가진다면 자연스럽게 대표성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지역문화와의 연계이다. 무형문화가 가지고 있는 지역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수리산산신제가 안양에서 어떠한 위상과 의미를 가지는가를 찾아야 한다. 다양한 제의를 제시하면서 안양 고유의 제의성을 드러내면서 그러한 흐름에 산신제가 있음을 찾아야 한다. 왜 지금 산신제가 안양에 등장하였고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 마. 사회문화적 가치 평가

형태의 변화 정도는 현재 올리는 수리산산신제의 형태의 고정성에 대한 평가이다. 이 항목으로 인해 과거 수리산산신제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 기록일 뿐 현재의 정체성 확립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수리산산신제의 구체적인 의례 형태에 대한 역사적 증언이 필요하다. 공동체 및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여하는 수준, 현재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준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유용적이다. 그리고 이 항목은 과거와 달리 현재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새롭게 설정된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수리산산신제가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다양한 예술이나 의례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유네스코에서 무형유산의 경제성과 생태성을 강조하는 것도 현재적 가치 진작과 무형유산 존립 기반이 연계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무형문화재로의 가치를 인정받아도 전승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과의 연계성이 없다면 후대로 전승될 가능성이 부족할 수 있어서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수리산산신제의 사회문화적 가치 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항목도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수리산산신제의 무형문화로서의 가치 평가는 하기 어렵다. 평가를 해서 정량화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수리산산신제를 위에 제시한 평가 항목과 연계하여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안양 마을신앙의 역사적 접근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되겠지만 수리산산신제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의미망 도출, 지역적 가치 등에 대한 탐색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위의 평가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항목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 3. 수리산산신제의 발전 방안

### 가. 무형문화재 정책의 방향성 수용

현재 국가에서는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포괄 종목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없는 아리랑(국가무형문화재 제129호, 이하 지정번호만을 기재함),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 방식-어살(제138-1호), 갯벌어로(제138-2호), 활쏘기(제142호),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제143호), 막걸

리 빚기(제144호), 떡 만들기(제145호) 등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희귀한 것, 전승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고 전승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 종목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한두 사람의 보유자나 특정 단체가 중심이 되는 향토문화재 전승과 보전은 실생활과 유리되어 자칫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 중심의 전승 지원과 연구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가치가 있으며 많은 이들이 향유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도 안양시민들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종목 발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별 종목의 지정과 보전도 중요하지만, 안양의 독특한 마을신앙 등을 일괄 지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016년에 시행된 법률은 무형문화재 정책 방향에 몇 가지 전환점을 두게 되었다. 첫째는 해당 종목 전승의 주체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는 방향성의 표시이다. 새롭게 추가된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의 '지식' 범주가 이에 해당한다. 법률에 명기된 '지식' 또는 '전통지식'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지만, 한 지역이나 한 집단의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즉 향토문화재 전승 주체로서 특정화된 개인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일상인을 인정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누구나 전통지식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향토문화재 전승의 핵심 또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뒤에 살필 유네스코 체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둘째는 사회 문화 변동의 무형유산 수용 인정이다. '원형'에서 '전형'으로 변화함으로써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면 더더욱 변화를 수용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는 향토문화재의 일상문화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원형 대신 전형을 설정함으로써 향토문화재의 핵심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비고정적인 체계가 될 수 있고, 정형화된 틀을 가지지 않은 다양한 틀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절대적인 권위자의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범주 안에서의 수용으로 확장될 수 있다. 김치 담그기, 해녀 등이 지정된 데에서 전형의 범주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김치 담그기에서 '김치'의 범주는 무한하다. 어쩌면 김치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이 김치 담그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토문화재가 일상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달리 말하면 일상문화가 될 수 있다. 고유성,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향토문화재가 현재성, 변화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고정된 체계로서 향토문화재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우리 생활에 살아있는 무형유산이 된다.

이것은 향토문화재 정책의 흐름을 수용하려면 일상문화,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향토문화재 정책의 방향성은 종목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고, 과거 지향이 아니라 현재 지향이고, 마을과 같은 고착화된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 중심이다. 보유자나 보유단체와 같은 핵심 기여능 담당층에 대한 인식이 필수조건은 아닌 셈이다. 여기에 문화공간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및 활용도 가능하다.

먼저 무형유산 또는 향토문화재 지정 종목 중심의 조사가 아닌 전승 공동체 중심의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어떤 종목이 있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감당하고 있는 전승 공동체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구실을 하고 전승이 이어지는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익과 필요에 따라 결성된 공동체도 가능하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공동체일수록 역량을 결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수월하다. 과거부터 이어온 무형유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결성된 공동체가 어떤 구실을 하면서 어떤 무형유산을 진흥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현재 개별 공동체가 주재하고 있으며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 제고이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는 마을신앙이다. 마을신앙은 마을공동체가 지속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공간에 남아있는 신앙을 말한다. 다양한 공동체가 마을신앙을 감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마을신앙이 전승된다. 마을신앙의 지속성과 제의 절차, 제의 시기, 당신과 제당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속성과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안양의 마을신앙 전체가 향토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보유자나 보유단체 없이 안양의 마을신앙 전체를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향토문화재로 인정받는다. 이는 마을신앙에 대한 행정기관 지원의 명분을 제공하게 하고, 감당하는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한다. 같은 이치로 안양의 민속놀이도 조사 후 일괄 지정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안양시의 새로운 정책 설정도 필요하다.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시군구 향토문화재 정책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의 핵심을 ‘원형’에서 ‘전형’으로 바꾼 것도 큰 변화이지만, 무형문화재 지정 범주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이다. 전통지식과 구전전통이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이 된 것이 새롭다. 실상 그동안의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을 보게 되면 구전전통이라고 개념화한 것은 아니지만 구전전통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남도들노래’, ‘고성 농요’, ‘예천 통명농요’는 농업 현장에서 연행되는 민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구전전통에 포함된다. 시도무형문화재 중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있어 여러 지역의 민요가 지정된 바 있다. 구전전통 및 표현이 새롭게 대상화가 되면서 설화, 호칭, 방언 등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전될 길이 열린 것이다. 새롭게 거론된 여러 항목 중에서 ‘전통지식’은 최근에 와서 새롭게 주목되는 분야이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이에 적극 부응하여 ‘농경어로 종합 조사 사업’, ‘민간의료 종합 조사 사업’



등을 통해 생산지식과 민간의료지식 자료를 확충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문화재청에서는 ‘전통어방식-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조사하여 종합할 수는 있다. 다양한 자료적 성과가 이루어진 데에서 전통지식의 종합이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음이 보인다. 국립수목원에서 『한국의 민속식물-전통지식과 이용』이라는 책자에 식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모아놓은 것이 한 예이다. 하지만 자료의 종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전통지식이 전승될 수 있어야만 무형문화재, 또는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당대에 전승되던 전통지식이 기록으로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더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지식의 전승은 대단히 위태롭다. 생업의 변화, 사회와 시대 흐름의 변화에 따라 전통지식을 전승할 세대 또는 개인, 집단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경 어로 관련 전통지식이 한 예가 된다. 농경 분야 지식에서는 다양한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의 식생, 재배 기술, 수확 후 가공 및 판매 활동까지 조사가 되었지만 기계화, 대규모 경작화로 인하여 전통지식 자체가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에서는 안양의 농경 어로 유산 조사, 갯벌 지식, 물때에 대한 지식, 지명과 호칭, 친족간의 용어 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집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선도적으로 안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나.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와의 협조 방안 모색

경기도에서도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무형문화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도 경기도와 안양시의 행정적 협조가 잘 구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와 안양시 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와 안양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안양이 향토문화재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이나 국립무형유산원의 관계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초빙하여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토문화재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안양시에 속한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북메우기와 생칠장이 있다.(경기도 무형문화재의 현황은 부록 참조) 두 종목 모두 기능 종목이다. 기능 종목은 전승 주체가 매우 적고, 전승 범위도 협소하다. 지역 문화 창달에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종목임은 분명하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예능 종목 지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수리산산신제를 중심을 한 마을신앙과 다양한 민속놀이 발굴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가에서는 상이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통합 관리하다 보니 지정 방식, 관리 절차 등이 서로 다른 두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문화재법)」이 분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관리하여 왔으나,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두 조례를 통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향상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 지원, 교육 및 행사 지원,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명예보유자 지정 대상에 '전수교육조교'까지 포함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자세한 조문 내용은 참조)

#### 4. 수리산산신제의 구체적 발전 방안 - 향토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둔 조건과 관련하여

수리산산신제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적으로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을 이루어야 하고 그 조건을 아래에 제시한다.

##### 가. 굿거리 구성의 표준화

수리산산신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연행자의 변화와 무관하게 굿거리 구성이 표준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굿거리를 변경(變改)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굿거리의 흐름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다. 먼저 기본 굿거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 1) 부정청배 : 앉은 청배, 선부정물림
- 2) 가망청배 ; 앉은 청배, 가망노랫가락
- 3) 진 작 : 상산노랫가락
- 4) 산신거리 : 산신, 도당, 부군, 군웅, 호구, 신장, 대감, 말명, 제장, 창부, 서낭
- 5) 불사거리 : 불사, 칠성, 제석, 종상, 부인, 호구, 신장, 대감, 말명, 제장, 창부, 서낭
- 6) 가망·말명·대신거리 : 가망, 말명, 대신
- 7) 대안주거리 : 상산, 별상, 신장, 대감
- 8) 창부거리
- 9) 계면거리
- 10) 뒷전

기본 굿거리에는 반드시 연행해야 할 세부 굿거리가 있다. 굿판의 상황에 따라 가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연행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음으로 그동안 수리산산신제에서 연행하여 온 인기 굿거리는 확장 굿거리 개념으로 고정해야 한다. 확장 굿거리에는 <작두거리>, <군웅풀이>, <길가름>이 있다. <작두거리>는 액을 물리는 거리로 가장 인기 있는 굿거리이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작두를 연이어 타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군웅풀이>는 안양시 박달동 옛날 범고개에서 호랑이에 의해 목숨을 잃은 마을 주민을 비롯한 사람들을 위무하기 위한 굿거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역성이 전혀 없는 굿거리이다. <군웅풀이>는 연행 과정에 상당한 혐오감을 주기도 하여 호불호가 엇갈리는 굿거리이다. <길가름>은 수리산산신제가 올려지는 병목안시민공원이 일제강점기인 1930년부터 경부선 복선 및 수인선 철도 부설을 위한 자갈을 채취하던 채석장으로 이곳 역시 강제노역으로 희생된 우리 조상들을 위무하고 천도하기 위한 굿거리이다. 안양 지역의 망자천도굿으로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역시 수리산산신제의 정체성 정립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확장굿거리는 연행은 하지만, 확장굿거리는 이름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축소 내지는 생략이 가능한 굿거리임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무용이나 음악, 국악 관련과 관련한 다양한 공연물은 수리산산신제의 핵심은 아니어서 의미 부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들을 통해 수리산산신제가 안양시민들을 위한 축제임을 드러내면 될 일이다. 다만 수리산산신제에서 찬조 공연을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해당 종목의 정체성을 높이는 장치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나. 굿거리 구성의 세부 조정

먼저 ‘산신께 인사 올리기’의 조정이다. 수리산산신제 제의 전날 오후에 미리 산신제당에 올라 인사를 올리는데 법사가 앉은 독경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강신무권인 안양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주무당이 산신을 청배하고 공수를 내리는 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시간은 다시 조정하여 수리산산신제가 열리는 날 새벽에 정결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신께 인사를 올렸으므로 산신을 상징하는 산신대를 모셔 수리산산신제 제단에 좌정시켜야 한다. 서울·경기 지역의 무속 특징을 고려할 때 참나무를 적당하게 잘라 산신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산신께 인사를 올리는 장소도 조정이 필요하다. 당주무당이 나서서 정결한 장소를 다시 잡아 수리산산신제의 신성 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수리산산신제를 본격적으로 연행하기 전에 산신께 인사를 올린 후 모셔온 산신대를 제단에 좌정하는 <산신 모시기>를 연행하고, 모든 수리산산신제가 끝난 후 다시 산신을 보내드리는 <산신 배웅하기>를 당주무당이 맡을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수리산산신을 직접 인사드리고 모셔와 좌정시

키고 굿을 연행하는 의미와 함께 굿이 끝난 후 다시 산신을 보내드리는 의미를 안양시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산신제례의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는 본격적인 수리산산신제를 올리기 전에 유교식 산신제를 올리는데, 시간이나 공간을 바탕을 할 때 적절하지 않다. 밝은 대낮에 무대로 꾸며진 산신제단에서 제례를 거행하는 것은 한국의 민간신앙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산신께 인사를 올리는 정결한 장소를 선택한 후 그곳에서 전날 저녁이나 당일 새벽에 제례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무속인들이 이를 주관할 것이 아니라, 제례는 마땅히 안양시민들이 주도하도록 하여, 안양문화원장뿐만 아니라 안양시장, 안양시민들도 함께 헌관을 맡도록 해야 한다.

〈군웅거리〉의 연행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군웅풀이〉가 있어 〈군웅거리〉와 성격이 겹치지 않는가 라는 오해도 가질 수 있지만 〈군웅거리〉의 군웅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령으로 확장 굿거리 〈군웅거리〉의 군웅과 성격이 다르다. 서울·경기 지역의 마을 굿에서 열리는 〈군웅거리〉를 참고하여 당주무당이 활을 쏘아 액을 물리고 대동성주, 마을성주를 받들어 모시는 공수를 내리는 식으로 연행하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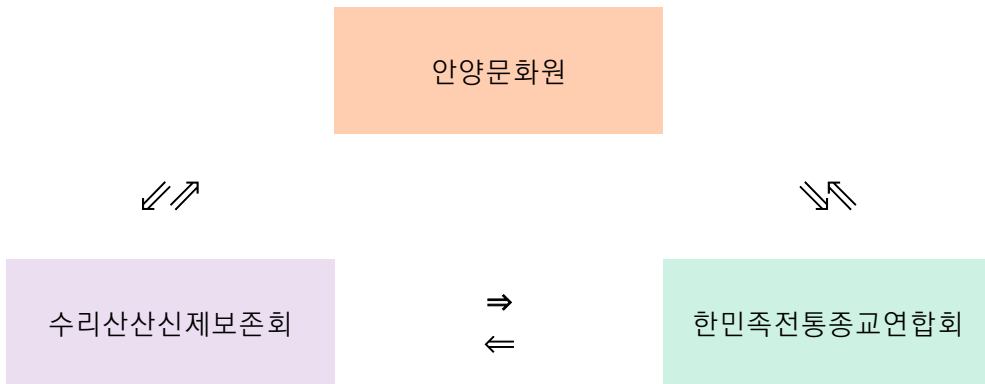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 도당굿 군웅거리 중 활쏘기 모습

#### 다. 전승 주체의 조정 및 확립

현재 수리산산신제는 (사)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가 주관한다. 이들이 그동안 수리산산신제를 위해 기여한 공로는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이 있어 수리산이 안양시의 진산임이 널리 알려졌고 안양시민들을 위한 수호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칫 수리산산신제가 무속인들만을 위한 연례 행사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높다. 제단에 한민족전통종교연합회 깃발을 양쪽에 게시한 것은 더더욱 수리산산신제의 위상에 오해를 준다. 따라서 수리산산신제를 주관하는 수리산산신제보존회 결성이 필요하다.

수리산산신제보존회는 새로운 인물로 구성하는 새로운 단체가 아니다. 그동안 수리산산신제에 참여한 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 구성원과 안양문화원의 관계자가 힘을 합쳐 구성하는 단체이다. 현재 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 대표가 현재 안양문화원의 부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므로 이 두 단체는 힘을 모으기에 매우 적절하다.

안양문화원, 수리산산신제보존회, 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가 삼각 편대를 구성하여 수리산산신제를 감당하도록 하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의 관계는 다음 그림처럼 형상화된다.



안양문화원과 한민족전통종교총연합회는 수리산산신제를 지원하는 단체이면서 수리산산신제를 실제로 운영하는 단체가 된다. 두 단체가 힘을 모아 수리산산신제보존회를 지탱하도록 하고, 두 단체가 수리산산신제 연행을 주도하는 실질적 단체가 되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수리산산신제보존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수리산산신제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리산산신제보존회 정관을 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시로서 부록을 통해 정관을 제시하며, 이는 향후 수리산산신제보존회가 설립된 후 적절하게 수정, 가감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 라.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 추구

안양시에서는 향토문화 발전의 기여를 위해 향토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중 관련 조항이다.

... 중략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재 중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토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으로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안양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주변의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략 ...

제12조(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재 및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유형문화재: 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무형문화재: 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무형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것

3. 기념물: 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기념물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4. 민속문화재: 법 제2조제1항 제4호의 민속문화재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재가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문화재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정신청) 향토문화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향토문화재(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향토문화재(무형)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략 …

제16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향토문화재(유형, 기념물, 민속) 지정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향토문화재(무형) 지정서나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재(무형) 보유단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재 지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향토문화재(유형)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 의 향토문화재(무형)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13호) 일부 발췌

(출처 : 안양시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조례에 의거하여 수리산산신제를 안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한다면 수리산산신제는 안양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으며 연소가 쌓여 나름의 체계를 구축한다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까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안양시 수리산산신제는 비록 연행된 지는 1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수리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있다. 역사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향토문화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나 시도 무형문화재는 역사성이 중요하지만 향토문화재는 현재성과 전승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마을 전통문화를 살리는 차원에서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수리산산신제의 원활한 전승과 보전, 향토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수리산산신제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수리산산신제보존회 결성 및 운영이다. 앞에 기술한 대로 보존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기본 곳거리를 정형화하고 확장 곳거리는 매년 산신제 상황에 따라 가감 운영한다. 기본 곳거리로 중심을 잡고 확장 곳거리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산신께 인사드리기의 재정립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산신모시기와 산신보내기의 정형화 추구이다. 산신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높이는 방안이다. 넷째, 무속인 및 무속단체가 주도하는 산신제가 아닌 안양시민들이 주도하는 산신제임을 천명하여 수리산산신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다섯째, 안양 수리산산신제 교본을 이룬 시일 내에 간행하여 전형을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안양 수리산산신제의 신성공간으로서 제단을 확충해야 한다. 산신당과 같은 당집의 건립도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당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앞에 산신제단을 구축해야 한다. 병목안공원에서 수리산산신제를 연행하더라도 수리산 중턱에 있는 산신제단과 연계한 의례를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안양시 무형유산 정책의 확립이다. 수리산산신제를 포함한 다양한 무형유산을 조사, 보전, 전승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양문화원이 주체가 되어 향토사연구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미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있지만, 특성상 전문적인 인재를 영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문화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안양향토사연구소를 활성화하여 안양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서울 경기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5.
-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사연구』, 집문당, 1989.
- 김지옥, 『경기도의 마을신앙과 제단』,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2.
-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4-춘향전 완판 84장본』, 박이정, 1997.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0.
- 김헌선, 「서울굿 안당뒷전의 제의적 성격과 굿놀이적 특징」, 『서울굿, 거리 거리 열두 거리 연구』, 민속원, 2011.
- 김혜숙, 『황해도 만신 김혜숙의 문서』, 민속원, 2018.
- 문화재청,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운영 규정 및 자료보고서 안내』, 문화재청, 2011.
- 이경엽, 『씻김굿 무가』, 박이정, 2000.
- 이상순, 『서울 새남굿 신가집』, 민속원, 2011.
- 이용범,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01.
- 조흥윤, 『한국 무의 역사와 현상』, 민족사, 1997.
- 최원오, 「작두장군」. 『한국민속신앙대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5.
- 홍태한 외, 『이지산의 서울굿 그림 읽기 43점 이야기마당』, 민속원, 2021.
- 홍태한 외, 『한국의 무속-서울 황해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9.
- 홍태한 외, 『무당내력류 그림 톺아 읽기』, 민속원, 2021.
- 홍태한 윤동환, 『2020 군포시 무형문화유산 기초 조사 연구』, 군포시청, 2020.
- 홍태한, 「군웅의 의미와 지역별 망자천도굿의 비교」, 『비교민속학』 제32집, 비교민속학회, 2006.
- 홍태한, 「서울굿 가망청배거리에서 가망의 의미 연구」,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
- 홍태한, 「수륙재 하단에 보이는 죽음 양상의 보편성」, 『남도민속연구』 24, 남도민속학회, 2012.
- 홍태한, 『서사무가 당금애기 연구』, 민속원, 2001.
- 홍태한, 『한국의 무가1』, 민속원, 2004.
- 홍태한, 『인물 전설의 현실 인식』, 민속원, 2000.

# 수리산 산신제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부 록

# 1. 경기도 무형문화재 현황

## 가. 기능

연번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제1호	계명주(옛탁주)	남양주시	1987-02-12
2	제10호	방짜유기장	군포시	1992-06-05
3	제11호	조선장	하남시	1993-10-30
4	제12호	군포당정옥로주	안산시	1994-12-24
5	제13호	남한산성소주 제조기능	광주시	1994-12-24
6	제14호	소목장(가구)	남양주시	2006-03-20
7	제14-1호	소목장(창호)	수원시	2002-11-25
8	제14-2호	소목장(백골)	광주시	2006-03-20
9	제16호	지장	가평군	1996-12-24
10	제17호	생칠장	안양시	1997-09-30
11	제18호	옥장	파주시	1997-09-30
12	제19호	입사장	안성시	1997-09-30
13	제24호	나전칠기장	성남시	1998-09-21
14	제24-2호	나전칠기장(나전장)	양주시	1998-09-21
15	제25호	자수장-민수	용인시	1998-09-21
16	제25-1호	자수장(공수)	평택시	1998-09-21
17	제26호	벼루장	이천시	1998-09-21
18	제28호	단청장	수원시	1999-10-18
19	제29호	화각장	이천시	1999-10-18

20	제30-1호	약기장(북메우기)	안양시	1999-10-18
21	제30-2호	약기장(현약기)	용인시	1999-10-18
22	제36-2호	대목장	성남시	2001-11-05
23	제37호	옹기장	여주시	2002-11-25
24	제38호	풀피리	포천시	2002-11-15
25	제39호	조각장	부천시	2004-01-05
26	제40호	서각장	평택시	2004-01-05
27	제41호	사기장(청화백자)	여주시	2005-02-07
28	제41-1호	사기장(백자)	이천시	2005-02-07
29	제41-2호	사기장-분청사기	광주시	2011-06-17
30	제42-1호	석장(조각)	광주시	2002-02-07
31	제42-2호	석장(석구조물)	구리시	2013-12-31
32	제43호	금은장	고양시	2005-02-07
33	제45호	주물장	안성시	2006-03-13
34	제47호	주성장(불구)	용인시	2008-03-24
35	제47-1호	주성장(범종)	용인시	2008-03-24
36	제49호	목조각장	이천시	2010-03-03
37	제51호	양태장	과천시	2010-06-08
38	제57호	불화장	수원시	2015-11-20
39	제60호	야장	안성시	2016-11-08
40	제62호	환도장	고양시	2017-11-21
41	제63호	지화장	평택시	2017-11-21

나. 의례, 놀이

연번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제15호	구리갈매동도당굿	구리시	1995-08-07
2	제44호	과천무동답교놀이	과천시	2005-02-07
3	제50호	이천거북놀이	이천시	2010-06-08
4	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	남양주시	2010-08-02
5	제58호	젓머리성황제	안산시	2015-11-20
6	제59호	시흥군자봉성황제	시흥시	2015-11-20
7	제61호	자리걷이	부천시	2016-11-08
8	제65호	청련사 예수재	양주시	2021-12-21

다. 공연 예술

연번	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지정일
1	제8호	승무,살풀이춤	수원시	1991-10-19
2	제20호	광명농악	광명시	1997-09-30
3	제21호	안성남사당풍물놀이	안성시	1997-09-30
4	제22호	고양송포호미걸이	고양시	1998-04-06

5	제23호	김포통진두레놀이	김포시	1998-04-06
6	제27-1호	양주상여·회다지소리	양주시	1998-09-21
7	제27-3호	양평상여·회다지소리	양평군	1998-09-21
8	제27-4호	고양상여회다지소리	고양시	2017-06-16
9	제31-1호	휘몰이잡가	고양시	1999-10-18
10	제31-2호	경기소리(긴잡가)	과천시	2000-08-21
11	제33호	파주금산리민요	파주시	2000-08-21
12	제34호	안성향당무	안성시	2000-08-21
13	제35호	포천메나리	포천시	2000-08-21
14	제38호	플피리	포천시	2002-11-15
15	제46호	양주농악	양주시	2006-03-20
16	제48호	평택민요	평택시	2009-03-19
17	제53호	경기검무	구리시	2011-06-17
18	제54호	경기송서-송서울창	동두천시	2011-12-06
19	제55호	동두천민요	동두천시	2013-12-31
20	제56호	경기고깔소고춤	용인시	2015-11-20
21	제64호	경기도당굿시나위춤	고양시	2018-06-01

## 2.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무형문화재 관련 조례 일부 발췌

### 제53조의2(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무형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기능 또는 예능(이하 "기·예능"이라 한다)이 보편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만이 원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정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제53조의5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도무형문화재 지정은 제4항에 따라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인정은 제4항에 따라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⑥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할 때에는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⑦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6. 07. 19.]

### 제53조의3(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의 취소 또는 해제)

- ① 도지사는 제53조의2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지정 또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무형문화재법 제35조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제5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3조의6제1항에 따른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 ④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 중 개인이 사망한 때와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이민 또는 다른 나라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이 해제되며,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 ⑥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6. 07. 19.]

#### **제53조의4(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① 무형문화재법 제31조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도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2. 도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취소에 관한 사항
  3.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명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 및 장학생에 대한 심의 사항
  5. 「무형문화재법」제3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의 기능은 제42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가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 07. 19.]



### 제53조의5(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육성)

-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전수교육비·장학금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에게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그 기·예능의 전수를 위하여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또는 장학생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전승지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수교육과 장학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⑥ 도지사는 제5항의 전수교육조교 지원대상자에게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증서를 주어야 한다.
- ⑦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07. 19.]

### 제53조의6(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

- ①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도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의 공개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07. 19.]

### 제53조의7(정기조사 등)

- ① 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도무형문화재의 소재장소 출

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조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 및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07. 19.]

#### **제53조의8(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53조의2에 따라 도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명예보유자의 인정,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07. 19.]

#### **제53조의9(신고사항)**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조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07. 19.]

#### **제53조의10(행정명령)**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무형문화재 전승자(무형문화재법 제2조제7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문화재의 전형(무형문화재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도무형문화재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도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본조신설 2016. 07. 19.]

#### **제53조의11(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운영을 무형문화재 연구, 보호, 전수 또는 문화시설 운영·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6. 13.]

#### **제53조의12(사용료 감면)**

도지사는 경기도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공유재산을 대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6. 13.]

### 3. 수리산산신제보존회 정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안양수리산산신제보존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문화원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안양 수리산산신제의 전통을 계승 및 보존하여 우리 문화의 진수를 널리 선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안양 수리산산신제 의식 재현 및 영구 보존
2. 안양 수리산산신제에 관한 교육 및 선양
3. 안양 수리산산신제 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4. 안양 수리산산신제에 관한 도서 간행
5. 안양 수리산산신제 관련 건물 재건 및 박물관 운영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안양 수리산산신제의 보존과 선양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회의 제반 행사 및 사업에 참여 또는 적극 협력
4.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안양문화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③ 전항의 징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견책

###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이사 7인 이내
4. 감사 2인
5. 사무국장 1인
6. 자문위원, 추진위원, 실행위원 약간 명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안양문화원에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 상호 간에도 ①항의 「민법」 제 777조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회장이 안양 수리산산신제 보존회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⑤ 자문위원, 추진위원, 실행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에 자문을 받아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자문위원과 추진위원, 실행위원의 임기도 4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사무국장은 본회의 행정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는다.

⑥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대하여 자문하고 추진위원은 수리산산신제 거행 시 제반 업무를 분장 받아 집행하며 실행위원은 실무를 회장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다.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가 부의할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안양 수리산산신제 의식의 거행에 관한 사항
5. 안양 수리산산신제 보존 및 재현에 관한 사항
6.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에 기록하여 이사회 의 결을 받는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보조금, 기타 목적사업의 수입으로 총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수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국

제38조(조직 및 운영)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인사,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장 보칙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안양문화원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기부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내역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안양 수리산산신제보존회 또는 안양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회장이 별도의 공개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한다.

안양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서  
수리산산신제



발행인 | 김용곤(안양문화원장)

조사연구 | 홍태한(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이승규(안양대학교 교수)

자문 | 류호철(안양대학교 교수)

편집 | 박희은(안양문화원 학예사)

발행처 |  안양문화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53

T. 031-449-4451 F. 031-442-0230

발행일 | 2022. 6.

디자인 | 디자인포트

© 안양문화원

※본 학술조사연구서는 안양수리산산신제의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본 책의 내용을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본 책자 내지 폰트는 '경기천년체목체VB', 'Kopub World 돌음체 L'로  
저작권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인회의이고  
공유마당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